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2022.12.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영학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오명진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조민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곽승진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노영희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박민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양은수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과정
현지자료조사원	김정하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홍승희	베트남 Dom Dóm Farmtory 대표

〈목차〉

1. 연구개발 목표	13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와 전제조건	14
1.2.1. 연구 범위	14
1.2.2. 연구의 전제조건	14
1.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4
2.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 내용	15
2.2. 연구 방법	16
2.2.1.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16
2.2.2.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6
2.2.3. 국내 유관기관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7
2.2.4.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17
2.2.5.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18
3.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19
3.1. 한국사에서 근대의 시대 범위	19
3.1.1. 서양의 근대	19
3.1.2. 한국 근대의 시작은 언제인가	19
3.2. 한국사에서 현대의 시대 범위	20
3.3.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범주	20
3.4. 근현대 관련 자료의 범주	21
3.4.1. 수집의 우선순위	21
3.4.2. 수집 대상 지역 분류	22
4.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23
4.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현황	23
4.1.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수집 현황	25

4.1.2.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수집 현황	29
4.1.3.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생산 자료 수집 현황	30
4.1.4. 러시아 국립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30
4.1.5. 그 외	31
4.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현황	31
4.2.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서비스 현황	32
4.2.2.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서비스 현황	37
4.2.3.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서비스 현황	40
4.3. 시사점	43
5. 국내외 기관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46
5.1. 해외 국가도서관 유사 사례 조사 분석	46
5.1.1.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46
5.1.2.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50
5.1.3. 독일 국립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	54
5.2. 국내 기관의 유사 사례 분석	60
5.2.1. 국내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60
5.2.2. 유관기관의 해외 자료 수집 통합 분석(2017~2022)	63
5.2.3. 기관별 수집 영역 분석(2017~2022)	65
5.3. 국내 유관기관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현황	70
5.3.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현황	70
5.3.2. 국가기록원 자료 수집 현황	75
5.3.3. 국가보훈처 자료 수집 현황	76
5.3.4. 동북아역사재단 자료 수집 현황	77
5.4. 국내 유관기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현황	90
5.4.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서비스 현황	79
5.4.2. 국가기록원 자료 서비스 현황	84
5.4.3. 국가보훈처 자료 서비스 현황	86
5.4.4. 동북아역사재단 자료 서비스 현황	88
5.5.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및 분석	90

5.5.1. 해외 자료 수집 관련	90
5.5.2. 수집 후 서비스 및 관리 관련	95
5.5.3. 향후 협의회 운영 및 방향성 관련	97
5.6. 관계자 면담을 통한 향후 수집 방향성 제언	98
5.6.1. 유관기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98
5.6.2. 향후 수집 방향성 및 전략	99
6.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101
6.1.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방법론	101
6.1.1. 과업의 목적과 정의	101
6.1.2. 과업의 수행 방법	101
6.1.3. 대상 지역(국가) 선정	104
6.1.4. 중남미 지역 관련 사항	104
6.1.5. 중간보고 이후 경과	105
6.2. 독일	106
6.2.1.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소재 파악 전략	106
6.2.2. 독일 아카이브의 역사와 체계	107
6.2.3. 한독 관계사 및 독일 아카이브 관련 문헌 분석	108
6.2.4.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아카이브 검색 포털 조사 결과	114
6.2.5. 연방주와 시에 초점을 둔 아카이브 성격별 검색	122
6.2.6. 독일 관련 국내 유관기관 기 수집 현황 분석	131
6.2.7.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한국 관련 기록물	131
6.3. 베트남	137
6.3.1. 베트남 주요 아카이브 개황	137
6.3.2. 한-베(韓-越) 관계사	139
6.3.3. 베트남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분석	141
6.3.4.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아카이브 포털 검색 방법	143
6.3.5. 자료보관소 외 기록 보유 예상 기관	148
6.3.6. 향후 연구 제언사항	148
6.4. 이탈리아	149

6.4.1. 이탈리아 소재 한국 관련 역사 기록물 조사 및 수집 전략	149
6.4.2. 이탈리아 아카이브의 역사와 체계	150
6.4.3. 한-이(韓-伊) 역사 관련 주요 연표	155
6.4.4. 이탈리아 소재 조선 관련 기록물 현황	156
6.4.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탈리아 소재 조선(대한제국) 관련 기(飢)수집 자료	161
6.4.6. 문헌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62

7.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174

7.1. 해외소재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163
7.1.1. 수집의 지향	163
7.1.2. 수집 대상	167
7.1.3. 수집 방법과 전략	168
7.2. 해외소재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 수집의 단계별 · 연차별 이행방안	174
7.2.1. 고려사항	174
7.2.2. 단계별 운영 방안	175
7.3. 수집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177
7.3.1. 서비스 모형 설계 방향	177
7.3.2. 서비스 방안 제안	179

〈표 차례〉

[표 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장 한국 자료 수집 현황	13
[표 2] 과업요청서의 연구내용 재구성	15
[표 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기본 방침	23
[표 4]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대상	23
[표 5]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방법	24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현황 (2022. 6. 기준)	24
[표 7]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별 수집/해제 현황	25
[표 8] 최근 3년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별 수집 현황	28
[표 9]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28
[표 10]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30

[표 11]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생산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30
[표 12]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서비스 현황	32
[표 13]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원료 문서군 해제 제공 현황	33
[표 14] 수집처수별 문서군 현황	34
[표 15]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 활용하기' 현황	34
[표 16]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 기반 자료집 발간 현황	36
[표 17]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 기반 전시 현황	36
[표 1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개최 현황	37
[표 19]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서비스 현황	38
[표 20]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의 번역 및 해제 서비스 현황	39
[표 2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서비스 현황	40
[표 22]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현황	40
[표 23]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기반 카드뉴스 제공현황	43
[표 24] 해외 각 나라별 한국 고문헌 자료 발간 현황	44
[표 25]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종합 현황	45
[표 26] 사료수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연혁	61
[표 27] 사료수집보존 기관별 수집 지역 및 시기	61
[표 28] 자료수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의 중점 수집 분야	62
[표 29] 러시아 기록물 수집 기관 및 연도별 수집 현황	63
[표 30]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2017~2020년 미국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내용	64
[표 31] 유관기관의 미국 소재 한국 자료 수집 대상 기관(2017~2021)	65
[표 32] 유관기관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자료 현황	67
[표 33] 수집된 동일 RG(Record Group)번호와 해당 기관 정리	69
[표 34] 각 기관별 RG242 내 수집 자료 내용	69
[표 35] 집중 조사 분석 대상 기관	70
[표 36] 국사편찬위원회 2021년 사료 수집 결과	74
[표 37] 국가기록원 자료 수집 현황(2021)	75
[표 38] 국가보훈처 2021년 국외 사료 수집 결과	77
[표 39]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국외 사료 수집 결과	78
[표 40] 조사 방법별 특징	102
[표 41] 조사대상 국가별 조사 개요	106
[표 42] 한독 관계 주요 연표	109
[표 43] 한독관계 시기별 주요 키워드	110

[표 44] 독일신문포털 한국 관련 기사 정리	119
[표 45] 1차 검색에 사용한 주제 키워드	121
[표 46] 16개 연방주 아카이브의 'Korea' 검색 결과 정리	123
[표 47] 독일 시립 아카이브 133개 정리	124
[표 48] 헤센주립아카이브, 시립아카이브 및 그 외 전문분야 아카이브 기관 한국 관련 소장기록 목록화(예시)	130
[표 49] 국사편찬위원회 - 독일 소재 한국 관련 기록 수집 현황	132
[표 50] 국가기록원 한국 관련 독일 기록 수집 현황	133
[표 51] 국가보훈처 한국 관련 독일 기록 수집 현황	134
[표 52] 베트남 국립자료보관소 개괄	138
[표 53] 베트남 아카이브 포털 검색 키워드	144
[표 54] 하노이 국립도서관 키워드별 검색 결과	144
[표 55] 호치민 종합 도서관 키워드별 검색 결과	145
[표 56] 호치민 종합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소장기록 예시 목록	145
[표 57] 제3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146
[표 58] 제2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147
[표 59] 이탈리아 기록보존소 기관별 연락처 및 이용 관련 사항	150
[표 60] 이탈리아 주(州)별 기록보존소	151
[표 61] 한국(조선) - 이탈리아 역사 관련 주요 연표	155
[표 62] 이탈리아 소재 조선 관련 기록물 현황 및 사진 정리	156
[표 63] 수집대상 자료의 정리 수준별 구분	168
[표 64] 현재 업무분장 근거	174
[표 65] 국가기록원의 관련 규정 예시	175
[표 66]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방안	179
[표 6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비전 및 목표	180
[표 68]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이용자 설정(안)	181
[표 69]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이용자 설정(안)	182
[표 70]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검색서비스 현황	183
[표 7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검색기능 강화(안)	184
[표 7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 컬렉션 서비스 현황	185
[표 73]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전시회 기획(안)	188
[표 7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189
[표 7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체험프로그램 제시(안)	190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현황	31
[그림 3]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의 문서군 검색	33
[그림 4] 회계연도 2021년 기준 미국 LC 현황	47
[그림 5] 미국 의회도서관 조직도	48
[그림 6] 영국 국립도서관 현황(2021년 기준)	51
[그림 7] 영국 국립도서관(BL) 조직도	52
[그림 8] 독일 국립도서관 조직도 (2022. 11. 기준)	55
[그림 9] 독일 국립도서관 이용 현황 및 소장량	59
[그림 10] 국사편찬위원회 RG 242 설명 화면	70
[그림 11]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79
[그림 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사료 검색 및 결과 화면	80
[그림 13] 국사편찬위원회 주제별 사료 콘텐츠 목록	83
[그림 14] 국가기록원 국가별 해외 사료 수집 결과	84
[그림 15]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사료수집 현황(전체, 2021년까지)	86
[그림 16] 국가보훈처 사료생산지역별 독립운동 사료수집 비율 현황(전체, 2021년까지)	86
[그림 17] 국가보훈처 원문 검색 결과 화면	87
[그림 18]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사료라이브러리 메뉴 화면	88
[그림 19]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서비스 화면	89
[그림 20] 독일 자료 소재 파악 전략 개요	106
[그림 21] 문헌 분석으로 살펴본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의 이슈들	114
[그림 22] '유로피아나'에서 'Korea'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일부)	116
[그림 23] 독일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117
[그림 24] '독일아카이브포털' 검색 - 칼스루에 시립기록원 소장 한국 관련 기록	118
[그림 25] 독일신문포털에서 한국 관련 기록물 해제본	119
[그림 26] 독일연방아카이브 필름아카이브 목록	121
[그림 27] 독일아카이브포털에서 해선주, 'Korea'검색 결과	128
[그림 28] 해선주 Archinsys 포털에서 'Korea' 검색 결과	129
[그림 29] 독일연방아카이브내 한국 관련 기록물 현황	136
[그림 30] 베트남 국립도서관 전자 자료 검색 사이트	137
[그림 31] 호치민 종합 도서관 전자 자료 검색 사이트	138

[그림 32] 하노이 국립 도서관에서 'Triều Tiên'으로 검색한 결과	144
[그림 33] 호치민 종합 도서관에서 'Triều Tiên'으로 검색한 결과	145
[그림 34] 제3국립자료보관소 검색 과정 화면	146
[그림 35] 제2국립자료보관소 검색 과정 화면	147
[그림 36] 이탈리아 소재 한국 관련 역사 기록물 조사 · 수집 전략 도해	149
[그림 37] 이탈리아 지도상 기록관 위치 표시	151
[그림 38] 중장기 수집정책의 배경의 지향	164
[그림 39] (시계방향순으로) 홍범도의 홍상, 빅토르 안의 사진기, 고려일보, 조명희 작가	166
[그림 40] 수집 자료의 내용적 범주	167
[그림 41] 수집 방법 개요	169
[그림 42] 오픈아카이브에서 검색한 김근태 재단 기록물	172
[그림 43] 오픈아카이브에서 검색한 늦봄문학기념사업회 기록물	173
[그림 4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늦봄문학기념사업회 로고가 삽입된 사료	173
[그림 45] 주요 과제	175
[그림 46] 단계별 운영전략	176
[그림 4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서비스 모형 설계 방향	177
[그림 48]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발간 자료집(일부)	187
[그림 49] '게더타운'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관 예시(안)	189

〈부록〉

- 부록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별 수집/해제 현황
- 부록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 부록 3. 베트남 제2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목록
- 부록 4.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한국' 검색 결과 목록
- 부록 5.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대한민국' 검색 결과 목록
- 부록 6.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북한' 검색 결과 목록
- 부록 7.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남조선', '조선공화국' 검색 결과 목록
- 부록 8. 독일 연방 아카이브 한국 관련 기록물 목록
- 부록 9. 한국 관련 자료 소장 독일 기관 목록
- 부록 10. 독일 주립 아카이브즈 내 한국 관련 기록물

1. 연구개발 목표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지식 정보의 포괄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선진국 지식 강국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근현대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미국 소재 한국 관련 기록을 수집·서비스하고 있으나, 수집대상 지역이 국한되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까지는 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¹⁾의 문서를 수집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NARA의 휴관으로 2021년부터 미국 CIA의 한국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음
- 이 외에도 2020년 이후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전남대학교)가 수집한 CIS 지역 자료의 디지털 사본과 러시아국립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기초 조사 후 헝가리 자료를 수집할 예정임

[표 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장 한국 자료 수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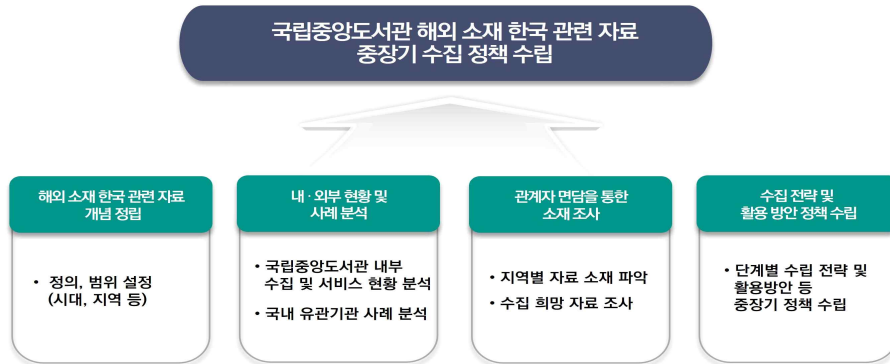
	수집처	건	수집연도	비고
1	NARA	39,301	2004-2020	-
2	CIS	92	2020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수집 자료를 디지털화 수집
3	CIA	1,456	2021	-
4	러시아 국립도서관	436	2021-	고려인 발간 도서, 북한 서적 등을 디지털화 수집
총계				41,285

출처: 2022.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자료 참조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근현대 자료는 자료 소장국 관점에서 타 자료에 비해 우선순위에 미치지거나 보존 가치가 낮고 분실 또는 소실 우려도 있음
- 한국학 연구에 중요한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한 자료 발굴 및 수집 방법 다원화 등 체계적 수집 정책 수립이 필요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미국의 각 행정부가 생산한 공문서들을 이관해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1934년 설립, 1985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법 44 U.S.C.2101에 의해 행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설치·운영됨

[그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전제조건

1.2.1. 연구 범위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시대, 지역 등) 설정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비교 분석
- 관계자 면담을 통한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1.2.2. 연구의 전제조건

- 기존 연구 성과(2014, 국가기록원 / 2020, 국립중앙도서관)를 발전시켜 재해석하고 현행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중장기 수집 정책 방안 도출
-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소재를 파악하고, 주 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사 지역 및 조사 우선순위를 결정

1.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컬렉션 개발을 위해 설계도를 마련하여 역할 재정립과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고양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의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해 관련 연구 활성화와 역사 재정립 가능
- 수집된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역사의식 고양 가능

2.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① 개념 확립, ② 현황 분석, ③ 사례 분석, ④ 소재 조사, ⑤ 전략 수립의 5개 과업으로 구분됨
 -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개념 확립, 수집 주체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외부 맥락과 유관 사례 분석, 수집 대상 발굴을 위한 지역별 소재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에 기반한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정책이 제안되어야 함
- 이에 연구팀에서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재구성하였음

[표 2] 과업요청서의 연구내용 재구성

세부 과업	과업별 주요 연구 내용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시대, 지역 등)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유사 사례 조사(지역학 자료 수집 및 서비스 기관 사례)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시대, 지역 등 범위 설정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내부 현황 분석을 통한 특징과 시사점 및 개선 방안 제안
국내 유관기관 수집 및 서비스 현황 조사·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유관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안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파악 대상 지역 발굴 및 선정 - 국내외 한국 관련 연구자, 실무자 등 지역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 단계별, 연차별 수집 이행 방안 - 수집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모형 제안

2.2. 연구 방법

2.2.1.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과업 개요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시대, 지역 등 범위 설정
- 과업 산출물
 - 지역학 자료 수집 및 서비스 기관 사례 현황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시대, 지역 등의 범위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지역학 자료 수집 및 서비스 기관 사례)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2020.
 - 11. 국립중앙도서관 등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시대, 지역 등 범위 설정
 - (문헌 조사) 국내외의 해외 한국 자료와 관련된 도서, 보고서 등 조사
 - 관련 문헌 분석 및 정리

2.2.2.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과업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내부 현황 분석을 통한 특징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안
- 과업 산출물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현황 및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 시사점 정리 및 개선방안 제안서
-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담당자 면담을 통한 내부 현황 조사
 - 수집정책 담당자 면담
 - 서비스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
-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안

2.2.3. 국내 유관기관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과업 개요
 -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유관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성 제안
- 과업 산출물
 - 해외 소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내 유관기관의 사례 조사 결과
 - 유관기관 수집 서비스 현황 조사 분석 결과
 -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향 제안
-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사례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사례 조사) 국내외 유관기관의 수집 및 서비스 현황과 관련한 웹사이트 조사
 - (문헌 조사) 국내외 해외 한국 자료 관련 도서, 보고서 등의 조사 및 분석
 - (담당자 면담 및 설문) 선정된 유관기관별 해외 자료 수집 담당자 면담과 설문
-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방향성 제안
 - (면담 및 설문조사) 유관기관 담당자의 의견 수렴

2.2.4.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 과업 개요
 - 지역별 자료 소재 조사
 - 조사 지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과업 산출물
 - 지역별 아카이브 조사 결과 자료
 - 관계자 면담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지역별 수집대상(수집 희망)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현황(목록, 원문: 온라인)
- 분석 방법
 - 시범 조사(제안 및 착수 단계)

-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 진행(독일)

- 인터넷 조사와 자문 및 면담 등

- 사전 분석

- 선정 국가 및 소장기관 관련 문헌 분석

- 한국 관계사 및 아카이브 소장기관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본 조사 단계

- (인터넷 조사) 아카이브 포털, 개별 아카이브별 검색도구 교차 확인

- 유관기관 수집 목록 분석

- (자문 및 면담) 지역 연구자, 실무자 등 관계자를 선정해 자문 및 면담 진행

- 분석 내용

- 지역 및 기관별 자료 소재 확인 및 수집 가능성

- 자료 유형과 특징 및 주요 맥락정보

- 자료 수집 방법(기증, 구입, (디지털) 사본 수집 등)

- 기타 관련 경험과 노하우 등 청취

2.2.5.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 과업 개요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수집 전략 및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 수집 전략의 단계별 · 연차별 이행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방안 제시

- 과업 산출물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목표 컬렉션(지역, 주제, 유형 제시)

- 수집 우선순위와 수집대상 평가 기준 등 수집 정책 핵심 요소

- 제도적 · 운영적 측면의 단계별 · 연차별 이행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모형

3.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3.1. 한국사에서 근대의 시대 범위

3.1.1. 서양의 근대

- 14~16세기 영주-농노제 하의 농노의 분화와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분화
-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부르주아가 영주제를 타도하고 정치적 지배권 장악
-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적 지배권까지 장악함. 이후 자본주의제가 완성됨
- 서양사에서 ‘근대’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다수설

3.1.2. 한국 근대의 시작은 언제인가

- 한국 근대의 시대구분 논쟁은 ‘식민사관의 극복’을 목적으로 1969년에 전개됨
 - 한국경제사학회 주최 전국역사학대회 개최. “한국사시대구분론”(1970) 발간
- 1990년대 근대 시대구분 논쟁이 다시 전개됨
- 한국사학계에는 3가지 학설이 존재함
- 첫째, 19세기 중엽(1860년대) 이후를 한국 근·현대의 기점으로 보는 학설
 -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채택한 학설
 - 대원군 정권(1864년) 이후
 - 1862년 전국적 민란과 1864년 대원군 정권 이후 정치·사회 개혁을 근거로 함
 - 대원군 정권에서 권력구조, 군사제도, 조세제도(호포법 실시) 등 개편
- 둘째,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한국 근·현대의 기점으로 보는 학설
 - 병자수호조약(1876)으로 문호개방을 하고 국제적 무역 거래를 행함
 - 조선은 쌀, 우피, 수산물 등 1차산물을 수출하고, 산업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영국 제 면제품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하며 세계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됨
 - 그리하여 조선은 병자수호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게 되었고, 세계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됨

- 셋째, 1894년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전쟁을 한국 근 현대의 기점으로 보는 학설
 - 갑오개혁, 동학농민전쟁으로 정치 · 경제 · 사회의 개혁을 단행
 - 갑오정권은 정치 · 경제 ·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실시, 사회적으로 신분제 타파 등을 바탕으로 근대사회로 나아감
 - 아울러 동학농민전쟁에 의해 신분제 타파, 중세적 토지제도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함

★ 정리

- 한국사에서 근대의 시작을 19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하면 무난할 것이며, 대체로 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함.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음.

3.2. 한국사에서 현대의 시대 범위

- (다수설) 1945년 해방 이후
 - 1945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이 해방된 이후를 현대로 설정하는 것이 다수 학자의 주장임
- (소수설) 남북한 통일 이후 (한양대 정창렬 교수)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의 역사적 유산이 남북 분단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극복되는 남북한 통일 이후에 비로소 한국 현대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주장

3.3.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범주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에서는 주로 정부의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뿐 아니라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 아래 제시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하여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정부의 공식 문서뿐 아니라 비정부기구의 문서도 수집함
 - 정부의 공식 문서
 - 비정부기구 문서 : 일반 단체 및 개인 저술의 기록
 - 한국 이민사에 관한 기록

- 근현대 한국 관련 도서를 수집
 -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근현대 한국 관련 도서
 - 해당 국가의 개인 저서 및 견문록
- 정기간행물 중 근현대 한국 관련 기록 수집
 - 해당 국가 정부의 정기간행물 중 근현대 한국 관련 기록
 - 민간단체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중 근현대 한국 관련 기록
- 시청각 자료의 수집
 - 사진, 엽서 등의 시청각 자료
 - 비디오, 활동사진, 방송국 등의 시청각 자료
- 해방 이후 북한 관련 자료
 - 공산당이 지배하였던 베트남이나 동유럽내 북한 관련 기록
 - 북한과 수교를 맺은 스웨덴, 스위스 등 중립국내 북한 관련 기록

3.4. 근현대 관련 자료의 범주

3.4.1. 수집의 우선순위

1)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가

- 일본, 미국, 중국 등

2)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국가

-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된 국가의 자료를 수집함
- (G7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 (BRICS)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G20)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 등

3) 국내 유관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에서 수집한 기록과 중복되지 않는 기록을 수집

3.4.2. 수집 대상 지역 분류

1) 유럽

- (독일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중부 유럽)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 (동유럽)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2)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 중남미(이민사 관련)

- 하와이, 쿠바, 멕시코, 아르헨티나(스페인어), 브라질(포르투갈어)

4) CIS 지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건설), 이라크(파병), UAE(원자력),

6) 아프리카

4.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4.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현황

1) 기본방침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근현대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확충하고 한국학 연구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을 조사·수집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표 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기본 방침

기본 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수집한다. ②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한국 관련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③ 북한 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연도, 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④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는 중점 수집한다. ⑤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및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상호협력한다.

2) 수집대상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시,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수집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4]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대상

수집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 중 도서관 미소장본으로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 ②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③ 북한 관련 자료 ④ 기타 도서관장이 디지털화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3) 수집 방법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료 목록 조사,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수집 · 검수 · 등록 및 정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자세한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5]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방법

수집 방법	
①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목록 조사,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수집, 수집 자료 검수, 등록 및 정리, 주요 자료 해제 등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관계자 면담 및 자문, 현장 실물 조사를 통한 수집 대상 자료의 목록을 조사한다.
③	디지털화를 통해 자료 수집 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의 [별표2]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붙임 3)'을 준용한다[부록2].
④	한국 관련 자료 소장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자료 수집 용역 사업, 조사수집위원 고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⑤	자료 수집 시, 기본 서지 정보(자료명, 저자명, 발행·생산자, 발행·생산년도 등)가 포함된 목록을 수집한다.
⑥	'자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타 기관과 중복 수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집현황

- (수집 기관 현황) 총 4개 기관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중앙정보국(CIA), CIS 지역 생산 자료, 러시아국립도서관 - 과 연계하고 있음
- (전체 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 41,285건, 3,290,038면의 자료를 수집함
 - 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수집 자료가 9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이 3.53%, 러시아국립도서관이 1.06%, CIS 지역 생산 자료 0.2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6)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현황 (2022. 6. 기준)

국가	기관	건		면		서비스여부	해제현황
		N	%	N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39,301	95.19	3,135,036	95.29	서비스 중	일부 문서군 해제 (59,84,242)
미국	중앙정보국(CIA)	1,456	3.53	29,350	0.89	서비스 중	주요 자료 해제 (자료집 없음, 파일 형태)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 생산 자료	92	0.22	22,140	0.67	서비스 중	목록집/해제집 발간, 카드뉴스 제작

국가	기관	건		면		서비스여부	해제현황
		N	%	N	%		
							(누리집에서 서비스 중)
러시아	러시아 국립도서관	436	1.06	103,517	3.15	자료등록 중 (‘23년 이후)	
합계		41,285	100	329,243	1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자료 참고 (2022)

4.1.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 수집 방법

- (수집 방법)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집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위치한 워싱턴 현지에서 디지털 이미지파일로 수집한 문서들에 기록자료의 특성에 맞는 기술규칙을 적용하고 목록DB와 원문DB를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자료수집 범위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문서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49개의 문서군과 노근리파일을 수집하고 있음. 이 중 해제된 문서군은 RG 59, RG 84, RG 242임

[표 7]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별 수집/해제 현황

문서군	문서군명 / 내용		수집 면수	해제 여부
12	Records of the Office of Education	교육부 문서	160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농무부 문서	144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1940년어족국및생물학관찰국을합병 해설립한어족및야생서비스국의야태관 련문서	218	
51	Recor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관리국문서	13	
52	Records of 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미 국방부 의약 및 외과국에서 생산된 문서	1,279	
56	GeneralRecordsoftheDepartmentoftheTreasury	재무부 일반문서	12,082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일반문서	198,502	✓
81	Records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 국제무역회의문서	123	
82	Record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미 연방준비제도문서	1,349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미 국무부의 해외공관문서군	96,044	✓

문서군	문서군명 / 내용		수집 면수	해제 여부
	Department of State, 1788-1964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1912-1968	미 국립보건위원회 문서	199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한국전시기동군사령부산하 군수참모실문서	23,974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주통신대문서	6,189	
11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미군의료단(AMEDD) 및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8군의료단생산문서	13,987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미 해병대 생산 문서	38,580	
151	Records of th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상무부문서	681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1952년에서 1954년 사이 당시 미국군법무관실 (국제관계국전쟁범죄처)에서 생산된 전쟁포로학살사건에 대한조사기록문서	50,614	
160	Records of U.S. Army Service Forces (WorldWarII)	미국국지원단본부문서 (제2차세계대전)	381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전쟁부(War Department)문서	8,797	
166	Records of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외국농업국문서	18,683	
169	Records of the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on	해외경제처 문서	2,519	
175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화학전부문서	250	
200	National Archives Gift Collection	국립공문서관기프트컬렉션	19,837	
208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전쟁정보부문서	816	
218	Records of the U. S. Joint Chiefs of Staff	미합동참모본부실문서군	29,228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기획처문서	1,494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	북한노획문서	506,240	✓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 대통령직속정책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자료	3,688	
286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60~70년대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문서		199,929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미정보처의 1960년대 한국 관련문서	14,580	
313	Records of Naval Operating Forces	해군운영부대 문서	14	
319	Records of the U.S. Army Staff	미 육군참모부 문서	86,282	
33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Transportation	주운송부대문서	913	
337	Records of Headquarters Army Ground Forces	육군지상군사령부문서	5,476	

문서군	문서군명 / 내용		수집 면수	해제 여부
338	Record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미 육군작전,전술,지원부대 문서	306,808	
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 (AirStaff)	미 공군본부(항공참모)문서	91,455	
350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도서국가에 대한 문서로 1907년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자료	241	
371	Records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방위정보국문서	284	
377	Records of the U.S. Travel and Tourism Administration	미 관광국문서	138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941 ~ 한국전 당시 미 헌병사령관실에서 생산된 문서		6,388	
407	Adjutant General's Office 부관참모실 문서		165,661	
428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7-	1947년 이후 해군부 문서	3,495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8-1961	미국재개발처(USAID)전신격인미해외원조처의 1950년대 초 한국개발관련 문서	25,626	
472	Records of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 1950-1975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관련 문서	29,130	
476	Records of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수출관리국문서	2,153	
489	Records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국제무역관리국문서	1,250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평화봉사단문서	409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미 태평양군(US Army, Pacific)	107,595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미국동군사령부연합군최고사령관및유엔사령부 문서	1,027,531	
노근리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미육군부 산하에 노근리사건조사단이 구성되어 NARA에서 1년간 문서발굴작업 후 일부를 NARA에서 공개함 ✓ 노근리 파일은 특정문서군에 소속되지 않고 따로 보관되어 있음 	-	23,607	
계			3,135,036	

3) 최근 3년간 자료수집 및 등록 현황

- (2018년 수집 및 등록현황) RG 338 등 3개 문서군 174,138면 수집 / 목록DB 1,928건, 원문DB 201,877면 정리
- (2019년 수집 및 등록현황) RG 338 등 3개 문서군 98,299면 수집 / 1,048건, 116,850면 등록
- (2020년 수집 및 등록현황) RG 338 등 2개 문서군 668건 / 60,675면 수집

[표 8] 최근 3년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별 수집 현황

연도	문서군	문서군 내용	수량(면)
2018	RG 338	Record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미 작전, 전술, 지원부대 문서)	43,041
	RG 407	Adjutant General's Office(부관참모 문서군)	50,700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80,397
	계		174,138
2019	RG 338	Record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미 작전, 전술, 지원부대 문서군)	44,016
	RG 407	Adjutant General's Office(부관참모 문서군)	54,283
	계		98,299
2020	RG 338	Record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미 작전, 전술, 지원부대 문서)	19,495
	RG 407	Adjutant General's Office(부관참모 문서)	41,180
	계		60,675

[표 9]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구분	내용	
총 수집현황	39,301건 / 3,135,036면 (2022년 6월 기준)	
수집 방법	용역 사업 추진	
수집 범위	문서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49개의 문서군과 노근리파일 수집	
문서수집 형태	디지털 이미지파일	워싱턴 현지에서 디지털 이미지파일로 수집되는 문서들은 기록자료의 특성에 맞는 기술규칙을 적용하여 목록DB와 원문DB 구축

4.1.2.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 수집 방법

- (수집 방법)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집
- (수집 자료 범위) CREST는 CIA가 창설된 1947년 9월 이후 생산된 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한국 관련 문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시기의 것이긴 하지만 일부 문서의 내용은 1945년 해방 전 사건까지 포함함

★ CREST(CIA Records Search Tool)

- 미 중앙정보국(CIA)은 2000년에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있는 NARA II에 CREST라고 명명된 전자문서검색 시스템(CIA Records Search Tool)을 설치했고, 1천 1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해제 문서를 CREST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함
- NARA II의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CIA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CREST 문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고, CREST 문서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CIA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할 수 있게 함

2) CIA 문서 수집 기준

- (3가지의 수집 기준) 한국 관련 CIA문서 수집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됨
 - 첫째, 직접 한국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서는 주제와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수집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대부분의 문서는 이 첫 번째 기준에 의해 수집된 것들임
 - 둘째,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이 한국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서라 하더라도 한국 사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이거나 참고용으로 수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문서도 일부 수집 대상에 포함시켰음
 - (사례) ‘CIA 역사(Organizational History of CIA)’, ‘Counter Spy’ 등
 - 셋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의 특정 사안을 주제로 한 문서라도 한국 사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 문서도 일부 수집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일본의 대북한 정책(Japan Policy Toward North Korea)’, ‘제3세계 무기 수출(Third World Arms Exporters)’, ‘차단 무기로서의 공습의 역사적 역할(Historical Notes on the Use of Air Power As a Weapon of Interdiction)’ 등임

3) CIA 문서 수집 형태

- (2가지 유형의 수집 형태) 국립중앙도서관의 CREST 컬렉션은 수집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뉨
 - (수집형태 1 - 종이문서 수집) 현지 수집팀이 NARA Archive II에서 종이문서로

수집한 것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JPEG 파일로 디지털화하였으며, 주로 1967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들임

- (수집형태 2 - PDF 파일 수집) 또 하나는 2017년부터 CIA 웹사이트 검색 작업을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1967년 이후의 문서들임

4) 최근 자료수집 현황 (2018-2021)

- (2020년) 미국 CIA 문서 : 25,699면 수집

[표 10]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구분	내용	
총 수집현황	1,456건 / 29,350면 (2022년 6월 기준)	
수집 방법	용역 사업 추진	
수집자료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1945년 해방 이후 시기의 것 - 일부 문서의 내용은 1945년 해방 전 사건 포함 	
문서수집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 한국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서는 주제와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수집 대상에 포함 ②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이 한국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서라 하더라도 한국 사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이거나 참고용으로 수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문서도 일부 수집 대상에 포함 ③ 특정 국가의 특정 사안을 주제로 한 문서라도 한국 사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 문서도 일부 수집 대상에 포함 	
문서수집 형태	종이문서 수집	NARA의 현지 수집팀이 Archive II에서 종이 문서로 수집
	PDF 파일 수집	CIA 웹사이트 검색 작업을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

4.1.3.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생산 자료 수집 현황

- (수집 방법)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집
 - (2020년) 독립국가연합(CIS) 소재 자료 : 92건 / 29,350면 수집, CIS 지역에서 수집된 육필원고 및 사진을 활용한 카드뉴스 제공

[표 11]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생산 자료 수집 현황 (2022. 6. 기준)

연도	문서군	문서군 내용	수량(면)
2020	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생산된 도서, 육필원고, 사진 등	22,140

4.1.4. 러시아 국립도서관 자료 수집 현황

- (수집 방법)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
 - 2020년 12월 양국 국립도서관장 서면협약 체결
- (수집기간) 2021~2023년(3년간)

- (대상) 1910~1960년대 고려인 발간자료 및 북한서 등 총 3,200책
- (방법) 디지털화(tiff 파일, 컬러, 400dpi)하여 클라우드 전송
- (결과) 『조선어 독본』 등 702책 150,00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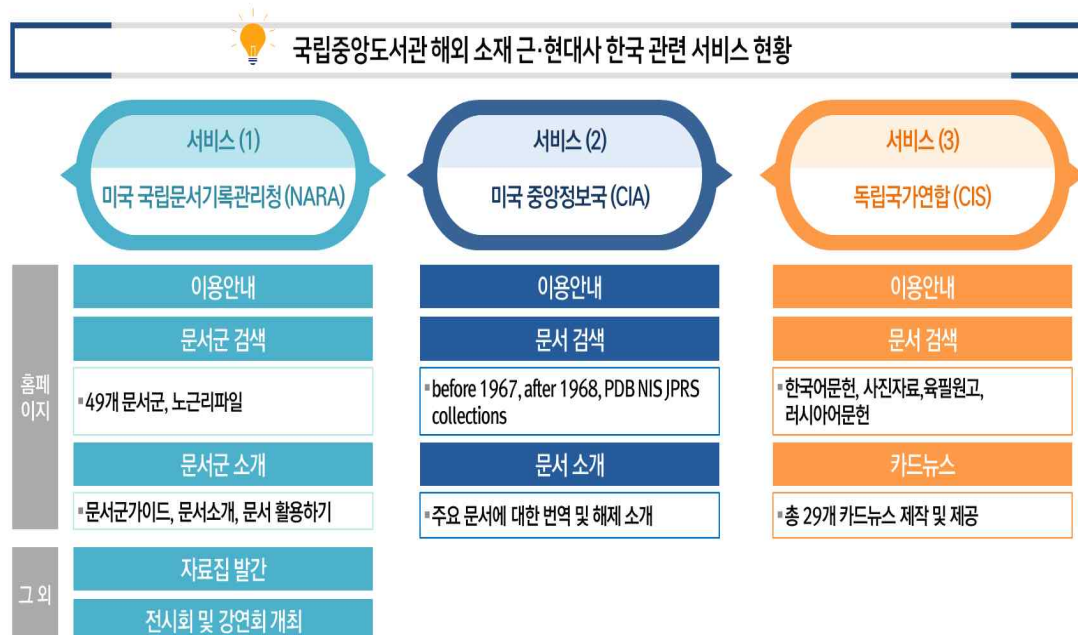
4.1.5. 그 외

- 2022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헝가리, 튀르키예 자료의 수집을 용역 사업으로 추진 중임

4.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중 하나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② 미국 중앙정보국(CIA), ③ 독립국가연합(CIS)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현황



4.2.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근·현대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 중 **민사 분야 문서**, **군사 분야 문서**, **북한노획문서** 등을 수집하고 있음
 - (민사 분야 문서) 미 농무부(USDA), 해외농업국(FAS), 해외경제처 등
 - (군사 분야 문서) 전쟁정보국, 미 공군본부,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기 문서, 동남아시아 주둔 미군 문서철 중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군 관련 문서 등
 - (북한노획문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중 노획 수집한 노획문서컬렉션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중 북한노획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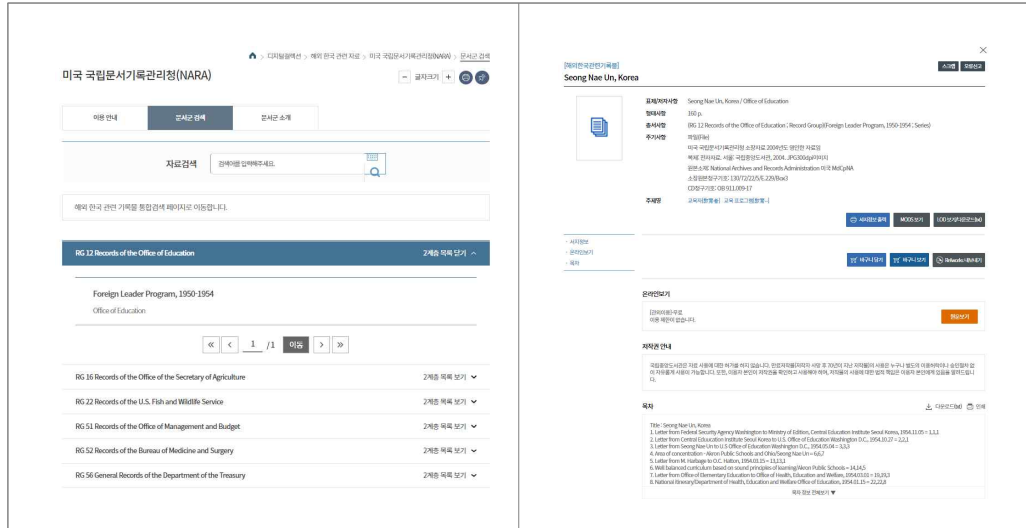
[표 12]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이용 안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서비스 개요 및 이용 방법 제공	
문서군 검색	총 49개의 문서군과 노근리파일	
문서군 소개	문서군 가이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완료한 문서군(Record Group)의 해제 제공 - RG 59, RG 84, RG 127, RG 218, RG 242, RG 286, RG 319, RG 554
	문서 소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차수별로 소개
	문서 활용하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제공한 문서 활용방법 소개

2) 원문서비스 제공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원문 자료를 문서군별(총 49개 문서군, 노근리파일)로 구분하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3]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의 문서군 검색



3) 문서군 소개

- 문서군 소개 서비스에서는 세부적으로 ① 문서군 가이드, ② 문서 소개, ③ 문서 활용하기를 제공하고 있음
- (문서군 가이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완료한 문서군(Record Group)의 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총 8개의 문서군 해제를 제공하고 있음

[표 13]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완료 문서군 해제 제공 현황

연번	문서군	문서군명
1	RG 84	미 국무부해외공관문서군
2	RG 218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3	RG 319	미 육군참모부분서군
4	RG 127	미 해병대 문서군
5	RG 286	미 국제개발처 문서군
6	RG 59	미 국무부 일반 문서군
7	RG 242	노획 북한 문서
8	RG 554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사령부 문서군

- (문서 소개) 수집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차수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총 223건이 제공되고 있음 [개별 리스트 현황은 부록1 참조]
- 세부적으로 223건 중 문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 수집차수별 문서군 현황

문서군	건수	문서군	건수
RG 59	18	RG 319	17
RG 84	13	RG 338	28
RG 127	1	RG 407	8
RG 218	4	RG 550	9
RG 242	14	RG 554	82

- (문서 활용하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제공한 문서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총 50건이 제공되고 있음

[표 15]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 활용하기' 현황

연번	제목
1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3)] 국무부 해외공관 기록
2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2)] 연방항공청(FAA) 기록
3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1)] 항공기 사고 보고서 관련 기록
4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0)] 잠수함 전쟁 초계보고서, 호위함 기록 등
5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9)] 해군참모총장 문서(RG 38)
6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8)] 사상자 보고서 및 무장요원 근무일지
7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7)] 해군 인사국 기록(RG 24)
8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6)] 선박/부대 기록 및 기타 자료출처 종류
9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5)] 선박 및 기타 해군부대조사
10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4)] 미국 내 제2차 세계대전 포로수용소 관련 군사기록
11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3)] 한국전쟁(1951-57) 당시 국가차원의 사상자 목록
12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2)] 낙손자료 참조절차
13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1)] 닉슨 대통령 자료에 대한 연구원 예비교육
14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0)] 미 정보처 전자기록(RG 306)
15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9)] 조사("R") 보고서 1960-63. - Entry 1013A
16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8)] 미 정보처(RG 306) 미국 인종관련 연구부 보고서
17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7)] 2차 세계대전 관련 기록, 미국인 전쟁포로(POWs)
18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6)] 해외 농업청 문서(RG 166) 농무관 보고서 1904-1984
19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5)] 전쟁부 문서(RG165) 중 군 정보부(MID) 1917-1941
20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4)] 국무부(RG 59) 중앙파일(Central File) 중 구 소련(USSR) 관련 기록 1910-1973
21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3)] 국무부(RG 59) 중앙파일(Central File) 중 남 베트남 관련 기록 1910-1973
22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2)] 생존인물 연락방법 -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23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1)] 생존인물 연락방법- 육군, 해군, 군정보부
24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0)] 해외공관 문서(RG 84) 중 미국 정보서비스 기록 1946-1965
25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9)] 전쟁지역 내 예술 및 역사기념비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미국위원회 기록(The Roberts Commission, RG 239)
26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8)] 해외공관 문서(RG 84) 중 국무부 파일

연번	제목
27	[NARA 문서 100%활 용하기 (17)] 국무부 중앙파일(Central File., RG 59) 주제-번호 분류파일(Subject-Numeric File) 1963.2-1973.6
28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6)] OSS(전략정보국) 및 국무부 번호 기재 정보보고서, 1941-1961
29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5)] 국무부 문서 중 주제-번호 분류파일(Subject-Numeric File, RG 59) 1963-1973(RG 59)
30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4)] 국무부 문서 중 한국 관련 자료(RG 59) 1910-1973
31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3)] 국무부 중앙외교정책파일(Central Foreign Policy File, RG 59)
32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2)] 국무부 중앙파일(Central File, RG 59)1910-1949
33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1)] 해외공관 문서(RG 84)
34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0)] 국무부 문서 LOT파일(RG 59)
35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9)] 국무부 문서(RG 59)
36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8)] 국제통화금융정책 국가자문협의회(NAC), 국제업무차관보 사무소(OASIA) 1945-1970
37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7)] 美 외교정책에 속하는 재무부 일반기록(RG 56) 1933-1970
38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6)]NARA의 비밀해제 프로젝트 번호(NND)에 대하여
39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5)]NARA에서 국제회의, 위원회, 박람회 문서군(RG43) 자료 찾기
40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NARA 전자기록을 활용한 조사 연구
41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NARA의 AAD(Access to Archival Databases)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이용
42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이용자 서비스
43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이용자 서비스
44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7)] 문서의 배포 통제
45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6)] 전문(電文)에도 위아래가 있다④
46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5)] 전문(電文)에도 위아래가 있다③
47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4)] 전문(電文)에도 위아래가 있다②
48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3)] 전문(電文)에도 위아래가 있다①
49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2)] 'Top Secret' 이야기
50	[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 (1)]"美 비밀문서, 제대로 읽기"를 시작하며

4) 자료집 발간

- 국립중앙도서관은 NARA에서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주제에 맞게 선별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음
 -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를 발간함
 -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육군군사연구소와 협업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NARA 문서 RG 242 중국인민지원군 노획문서 자료집』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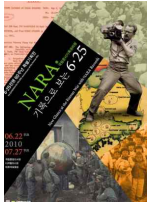

[표 16]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 기반 자료집 발간 현황

연도	자료명	내용	비고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목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NARA에서 수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발간 - (수록내용)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모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문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서한과 책자, 미국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와 한인들에 대한 보고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 	
2022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NARA 문서 RG 242 중국인민지원군 노획문서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이 NARA 소장 한 국전쟁기 미군의 노획문서를 조사 수집하고 육군군사연구소가 그 중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생산 문서를 발췌 분석하는 방식으로 양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발행한 공동의 성과물임 - (대상) RG 242 문서 6,541건, 506,240면 - (내용) 중국인민지원군 관련 문서에 대한 주요 문서 해제 및 목록 수록 - (배표) 유관기관, 대학교, 군 관련 기관 등 300여 개 처 	

5) 전시 서비스 개최

-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6·25전쟁 관련 문서를 엄선해 전시를 개최함
 -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6·25전쟁 관련 문서 가운데 기록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비밀문서와 사진 자료 100여점을 가려 뽑아 ‘NARA(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록으로 보는 6·25’라는 특별기획전 개최
 - (2016년)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6·25전쟁, 미 NARA 수집문서로 보다’를 개최함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자료 가운데 문서, 보고서, 사진, 동영상 자료를 엄선하여 선보임

[표 17]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 기반 전시 현황

연도	전시명	전시내용	비고
2010	NARA (美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기록으로 보는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RA에서 영인수집한 6.25전쟁 관련 문서 및 사진자료 100여점 - NARA에서 수집한 6.25전쟁 기간 중 촬영한 영상자료(20편, 143분 분량) 상영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25전쟁 관련 도서 및 지도서 450여점 - 6.25전쟁 기간(1950~1953) 중 발간된 도서 50여 책 	
2016	6.25전쟁, 미 NARA 수집문서로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66주년 기획전시로 진행 - NARA에서 영인수집한 6.25전쟁 관련 문서 및 사진자료 130여점 - NARA에서 수집한 6.25전쟁을 촬영한 영상자료 - NARA 사료를 활용하여 저술한 6.25전쟁 관련 도서 40여 책 	

6) 강연회 개최

-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한 NARA 소장 자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1년 강연회를 개최함

[표 1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목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주제	<p>『美 정부 비밀문서에 대한 다섯 가지 흔한 오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기록 문화 들여다보기 (1) NARA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2) '무엇을, 왜, 어떻게 기록하며, 누가, 무엇을, 왜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답을 NARA 문서에 대한 한국인 이용자들의 공통된 다섯 가지 오해의 사례를 통해 찾아본다. (3) 밀러 센터(Miller Center) 이야기 (4) WikiLeaks의 이상한 승리 (5) 국가안보보좌관이 훔친 문서

4.2.2.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미 중앙정보국(CIA) 생산 문서 중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CIA는 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비밀 해제된 문서를 CREST(CIA Records Search Tool)라는 전자문서검색시스템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CIA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서를 다운로드 · 출력 ·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표 19] 국립중앙홈페이지 내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이용안내	미국 중앙정보국 생산 한국 관련 문서 서비스 개요 및 이용 방법 제공
문서 검색	- Before 1967 - After 1968 - PDB NIS JPRS collections
문서군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CIA 소장 한국 관련 자료의 주요 문서에 대한 번역 및 해제 소개 - 2022년 6월 기준, 16개의 번역 및 해제 자료 제공

2) 원문서비스 제공 현황

- (4개의 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은 CIA 생산 문서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문서를 조사 분석하여 총 29,350면을 수집하였으며, 4개의 별도 ‘파일 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음
- (주제별 파일, Subject Files) CREST 문서 가운데 20여 개의 주요 주제를 가려 뽑아 한곳에 모아 놓은 별도의 컬렉션임
 - (세부 내용) 해방 전인 1945년 4월의 한국 상황을 분석해 놓은 미 육·해군 연합 정보연구(JANIS, Joint Army-Navy Intelligence Study), 한국전쟁 정전(停戰) 후 상황을 예측 분석한 정보 비망록(Intelligence Memorandum),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서해 5도를 둘러싼 분쟁 배경 분석, 북한의 미국산 헬리콥터 구매 상황 등 해방 전후 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기를 아우르는 주요 문서가 이 컬렉션에 들어 있음
 - (서비스 제공 현황) 모두 1,132면으로 ‘1967년 이전 자료(before 1967)’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대통령 일일 보고, PDB) CIA가 미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핵심 인사와 자문들(Advisers)에게 매일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President’s Daily Brief) 컬렉션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종합 정보(all-source information)와 분석을 담고 있음
 - PDB는 CIA가 제공하는 정보를 국가정보처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에서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임
 - 1946년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일 요약(Daily Summary)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대통령의 PDB가 구축되어 있음
 - (서비스 제공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한국 관련 PDB 컬렉션은 1968년 1월 24일부터 1977년 1월 19일까지 총 3,211면임
- (국가별 정보 조사, NIS) NIS(National Intelligence Survey)는 세계 각국의 자연 자원 관련 정보에 중점을 두고 정치·경제·사회 현황 등을 국가별로 묶은 조사서로, 여

러 행정부가 작업에 참여해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CIA는 기본적인 NIS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파일을 작성해 보관함

- (서비스 제공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CIA의 한국 NIS 1973년도 220면과 더불어 CIA가 제작한 남한과 북한의 지명사전도 수집(1,070면)함
- (연합 출판물 조사 서비스, JPRS) 연합출판물조사서비스(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JPRS)는 외국어로 발행된 단행본, 신문, 저널 및 비밀분류되지 않은 해외 문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미국의 행정부처로, JPRS 문서의 약 80%는 정기간행물임
 - JPRS는 단일가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역 출판 생산처로, 1957년 이후 약 8만 건의 보고서를 생산했으며 현재도 매년 30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영역 발행하고 있음
 - 설립 초기인 1950년대 후반에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과학과 기술 관련 영역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영역 범위를 점차 과학 이외의 자료로 확대시켜 왔음
- (서비스 제공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관련 JPRS 컬렉션은 1979~1982년 시기의 것으로 총 905면을 PDF 파일로 수집함

3) 주요 문서 번역 및 해제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부터 수집한 CIA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중 주요 문서에 대한 번역 및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표 20]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의 번역 및 해제 서비스 현황

연번	제목
1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시기 ⑥] 소련군이 등장한 인공 치하의 서울(1950.7.31.)
2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시기 ④] 중공군과 인민군 고위급의 개전 직전 비밀 회동(1950.7.25)
3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시기 ③] 인민군 서울 입성 첫날 무료 쌀 배급, 이튿날 중단(1950.7.12.)
4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시기 ②] 한국전 개전 당시 CIA의 주간 정보 분석 (1950.6.27.)
5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시기 ①] 한국전 다음 날, 모스크바 미 대사관의 한국전 분석 (1950.6.26.)
6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⑪] 북조선으로 돌아온 재소 조선인들(1950.6.8)
7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⑩] 북한과 소련의 비밀 협상 (1950.5.9.)
8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⑨] 소련 쿠릴 열도의 조선인 전쟁포로 25명 (1950.3.21.)
9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⑧] 재중 조선인들 - 베이징 카오리툰(高麗屯)의 120가족, 상하이 700명(1950.2.26.)
10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⑦] 38선 월경자 심문(1950.2.11.)
11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⑥] 나진, 청진, 웅기, 성진의 소련 잠수함들(1949.12.5.)
12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⑤] 채병덕과 백선엽의 생각 (1949.7.7.)
13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④] 1949년 현재 북한 거주 중국인은 4만여 명(1949.6.3.)
14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③] 김두봉의 반(反)김일성 정치 투쟁(1949.1.5.)
15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②] 남한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전략 광물, 텅스텐 (1948.11.22.)
16	[CIA 주요 문서 해제 - 한국전쟁 이전 시기 ①] 해주와 신의주의 간첩 훈련소 (1947.4.)

4.2.3.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에 독립국가연합(CIS)에 소재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려인 이주사와 독립운동, 고려인 문화 관련 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함

★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 구소련이 해체된 뒤 창설된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1개국의 국가연합체

[표 2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이용 안내	- 독립국가연합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소개
문서 검색	- 한국어문헌 - 사진자료(1902-1959) - 육필원고(1935-1945) - 러시아어 문헌
카드뉴스	- 29개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제공

2) 원문 서비스 제공 현황

- (소장자료)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1858년부터 1959년까지 생산되거나 발간된 한국어 서적 및 한국(한인) 관련 러시아어 문헌과 고려인이 생산한 육필원고와 사진 등임
 - (사진자료) 1902년부터 1959년까지 각기 다른 부류의 고려인들이 생산한 것으로, 고려인의 초기 연해주 이주, 항일운동, 문화 운동, 교육, 일상생활, 모국어 신문사, 모국어극장, 통과의례 등 다방면에 걸친 고려인 역사와 생활사를 볼 수 있음
 - (육필원고) 1935년부터 1945년 사이에 고려인이 생산한 8편의 희곡작품과 2편의 창가집으로, 수록된 희곡작품 8편은 극작가 김해운(1909-1981)이 1935년부터 1958년 무렵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고려극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 사할린 조선극장에서 극작가로 일하면서 쓴 육필희곡으로 구소련에서 짧은 기간 존재했던 몇몇 고려인 극장들의 역사와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임

[표 22]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현황

한국어 문헌	사진자료	육필원고	러시아어 문헌
34건	1건	10건	10건

구분	이름	년도
한국어 문헌	두브롭스끼	1937
	웨.이.레닌 저작선집 : 전2권. 제1권(제2분책)	1952
	별 : 소설	1952
	차빠예브	1953
	조기천 선집. 하	1953
	조선 봉건 말기의 선진 학자들	1954
	조아와 수라	1954
	朝鮮中世史. 上編	1954
	만수천산 : (6막8장)	1955
	조선 식물 명집	1955
	자본론 : 정치 경제학 비판. 제1권, 자본의 생산 과정	1955
	임진 조국 전쟁 : (1592-1958)	1955
	열하일기. 상	1955
	중국민족해방운동사. 제1권(하)	1955
	세계사 개요 : 고대사 편	1956
	열하일기. 중	1956
	리가장의 변천	1956
	조선 중세사. 하	1956
	조선어 철자법	1956
	돌쇠의 날창 : 야담집	1956
	브레스트 요새의 용사	1957
	귀향 : 한설야 작품선집	1957
	단편소설집	1957
	행주산성의 싸움 : 1593년	1957
	우리 선조들의 자랑 :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 2	1957
	클림 뎬킨의 생애. 제2부(상)	1957
	공산당 선언	1957
	영어 : 대학용	1957
	월남일기	1957
	의로운 벼 두터운 사랑	1958
	춘향전	1958
	아버지와 아들	1958
	배우수업:체현과정	1959
	포석 조명희 선집	1959
사진자료	고려인 관련 사진	1902
육필원고	동북선	1935
	리 알렉산드르 창가집	1945
	전명진 창가집	1945

	생활	1948
	향촌 : (전일막)	1953
	기후조 : (전일막)	1954
	장화와 흥련 : 고전극	1956
	동북선 : 개정본	194-
	토끼전	null
	무죄인들의 노래 : 죄없는 사람들의 노래	null
러시아어 문헌	Амур и 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1885
	Корея и корейцы	1900
	Корея : заретная страна	1904
	Корея : История, география, политика, религия, нравы, обычаи, земледел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торговля, последние события и т.п и т.п.	1904
	Страна утреннего спокойствия корей и ее обитатели	1904
	Корея : Страна и ее история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1904
	Материалы суд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делу быв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ющих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обвиняемых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именении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1950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951
	Очерки нов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1952
	Очерк Географии Кореи	1957

3) 카드뉴스 제공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 총 29개의 카드뉴스가 제작됨

[표 23]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기반 카드뉴스 제공현황

카드뉴스	
29개	
카드뉴스명	카드뉴스명
고려인들의 미울잔치 혼인예식과 환갑잔치	강제이주 후 고려인들의 일상
연해주 초기 고려인 가족들	원호들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정금손 가족 & 신 게오르기
고려인 노동계의 영웅, 벼농사꾼들의 아버지 김만삼	중앙아시아 고려인 유일의 모국어신문 <레닌기치>
하바롭스크 학교 고려인들	러시아 학교 속 고려인들
고려인 모국어학교 학생들	러시아 대학의 교수들 강우홍 · 보이찌크
카자흐스탄 고려사범대학교	고려인들의 항일 활동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한민족 공동체 중 가장 오래된 공연단체 <고려극장>
최초의 고려인 영화배우 최봉도를 아시나요?	극장 조수에서 인민배우가 된 배우 리장송
고려극장의 이름을 널리 알린 스타 탄생의 관문 「춘향전」	소설이 된 실화 15만원 탈취 사건
고려인 구전가요 171곡 필사본 「리 알렉산드르 창가집」	고려인 노래 기록 유산 「전명진 창가집」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한 명작 김해운 희곡 「토끼전」	시대를 반영한 탁월한 각색 김해운 희곡 「장화와 홍련」
북한 인민군 연인의 사랑 이야기 김해운 희곡 「향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빛난 풍자와 해학 김해운 희곡 「무죄인들의 노래」
노동의 신성함을 역설한 김해운 희곡 「기후조」	강제이주 고려인의 삶을 생생히 그린 김해운 희곡 「생활」
고려인 연극 개화기의 서막 김해운 희곡 「동북선」	
독학으로 시작해 공훈 · 인민 배우 칭호까지 받은 배우 리합덕	다재다능한 천재 희극인 김해운

4.3. 시사점

1) 한정적인 수집 기관으로 수집기관 확대 필요

- **(현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중앙정보국(CIA), CIS 지역 생산 자료, 러시아국립도서관 4개의 기관과 연계되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그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자료가 2004년부터 수집되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과 CIS 지역 생산 자료는 2021년부터 수집 · 서비스되고 있음

- 러시아국립도서관의 경우, 2020년 협약 체결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수집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023년 이후로 예상
- (문제점) 수집기관이 4곳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가 95%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국가 및 기관 발굴이 필요함
- (시사점)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운 국가 및 기관을 발굴하여 다양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2020) 연구에 따르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타 국가 및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단, 유관기관과의 중복 수집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표 24] 해외 각 나라별 한국 고문헌 자료 발간 현황

지역	국가	목록서	해제서	연구서	총계
북미	미국	8	1	1	10
유럽	덴마크	1	-	-	1
	독일	2	-	-	2
	러시아	2	2(목록포함)	-	2
	스웨덴	1	-	-	1
	영국	2	-	1	3
	오스트리아	1	-	-	1
	프랑스	6	-	-	6
아시아	대만	1	-	3	4
	중국	6	1	5	12
	카자흐스탄	1	-	-	1
	일본	108	-	5	115
총계		139	4	15	15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2020)

2) 문서 위주의 자료 수집으로 향후 다양한 매체의 자료 수집 방안 모색

- (현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 유형은 문서자료 위주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에 사진자료 일부를 수집하였으나 2014년 예산감액 등으로 이후 문서 위주로 계속 수집하고 있음
- (문제점) 문서자료의 경우 한국학 관련 연구를 위한 기본 사료로 가치가 높으나 언어 등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적임
- (시사점)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수집 시 문서 자료와 더불어 사진, 영상 등 다양

한 매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청각자료는 비교적 이해가 용이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제공한다면 해외기록물 컬렉션의 수준 향상 및 자료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NARA 관련 참고 사례

- NARA는 문서자료 이외에 지도, 마이크로필름,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훼손이 심한 자료는 원본 이용을 제한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동영상의 경우 자료 복제 요청 시 외부제작업체를 통해 DVD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3) 원문 제공 위주의 서비스로 보다 활용적인 서비스 모색

-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수집된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크게 ① 자료목록 및 원문DB 웹서비스와 ② 블로그 '해외기록으로 보는 한국' 운영으로 볼 수 있음

[표 25]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종합 현황

구분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	NARA	원문자료 제공 서비스
		문서군가이드
		문서소개
		문서활용하기
		수집자료 기반 자료집 발간
		전시회 개최
		강연회 개최
	CIA	원문자료 제공 서비스
		주요 문서 번역 및 해제 서비스
	CIS	원문자료 제공 서비스
카드뉴스		
블로그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 내 '해외기록으로 보는 한국' 메뉴 운영	

- (문제점) 현재 자료수집 후의 활용방법은 목록 발간, 열람 제공, 원문서비스, 온라인 목록서비스 등으로, 자료의 성격 및 특징을 고려한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블로그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중복으로 게시하고 있어서 차별성이 없음
- (시사점)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용자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 유용성, 다양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이 필요

5. 국내외 기관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 분석

5.1. 해외 국가도서관 유사 사례 조사 분석

- 장서 개발 관리는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존된 정보자원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서 전반을 다루는 것임
- 이에 따라 담당 사서는 정보매체, 접근방법, 출판 및 유통 등을 고려하여 장서의 수집, 보존, 유지 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하게 됨
- 장서 개발 및 해외 사료 수집 정책에 관련한 해외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유형의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선정함
- 영어권인 미국, 영국 국가도서관 및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독일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5.1.1.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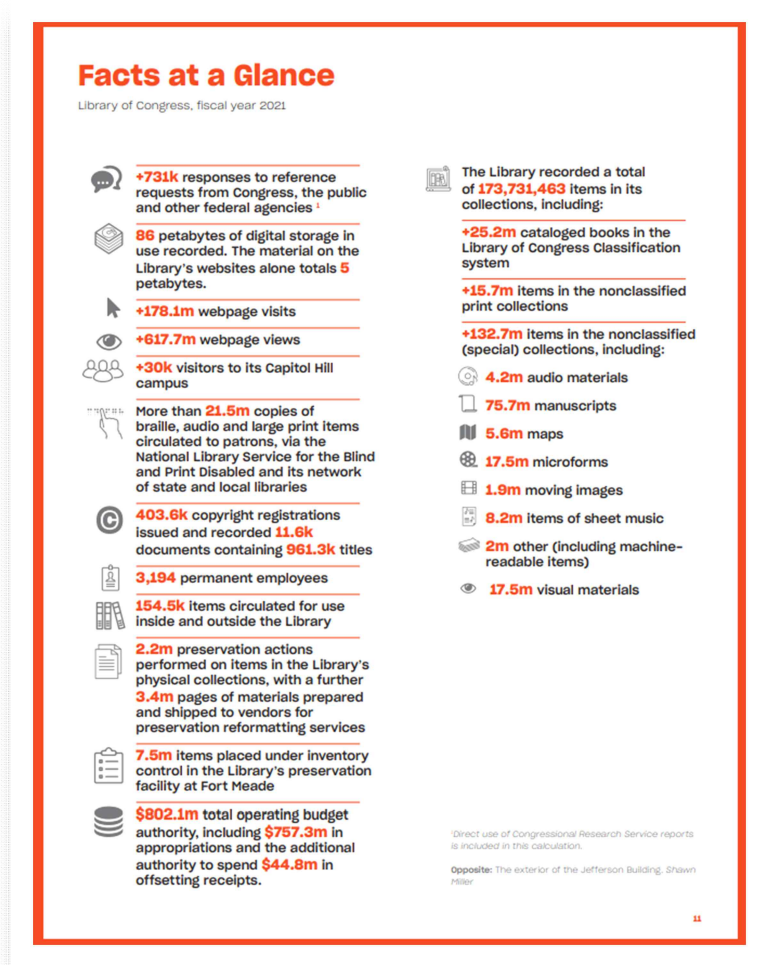
- LC(Library of Congress, 미국 의회도서관)는 의회 및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 1800년 4월 24일 개관하였음
- LC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는 『US Code』의 'Title 2 : The Congress'인데, 제5장(LC) 제132조에서 LC는 '일반도서관과 법률도서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의 LC는 본관에 해당하는 토마스 제퍼슨 빌딩(Thomas Jefferson Building, 1897년 개관)과 2개의 별관인 존 아담스 빌딩(John Adams Building, 1938년 개관) 및 매디슨 빌딩(The James Madison Memorial Building, 1980년 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계 연도 2021년 기준²⁾, 의회 연구 서비스 보고서의 직접 사용을 포함하여 의회, 공공 및 기타 연방 기관의 731,000개 이상의 참조 요청에 응답함
- 국회의사당 힐 캠퍼스에 약 30,000명의 현장 방문자가 있었고, 도서관의 웹 페이지 방문은 178,100만이며 약 617,700만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함

2) 회계연도 2021년(2020년 10월 ~ 2021년 9월) 미국 국회도서관 연간 보고서

<https://www.loc.gov/static/portals/about/reports-and-budgets/documents/annual-reports/fy2021.pdf>

- 보존 재포맷 서비스를 위해 340만 페이지의 자료를 준비하고 공급 업체에 배송했으며 포트 마드(Fort Meade)의 보존 시설에서 재고 관리하에 750만 건 이상의 품목을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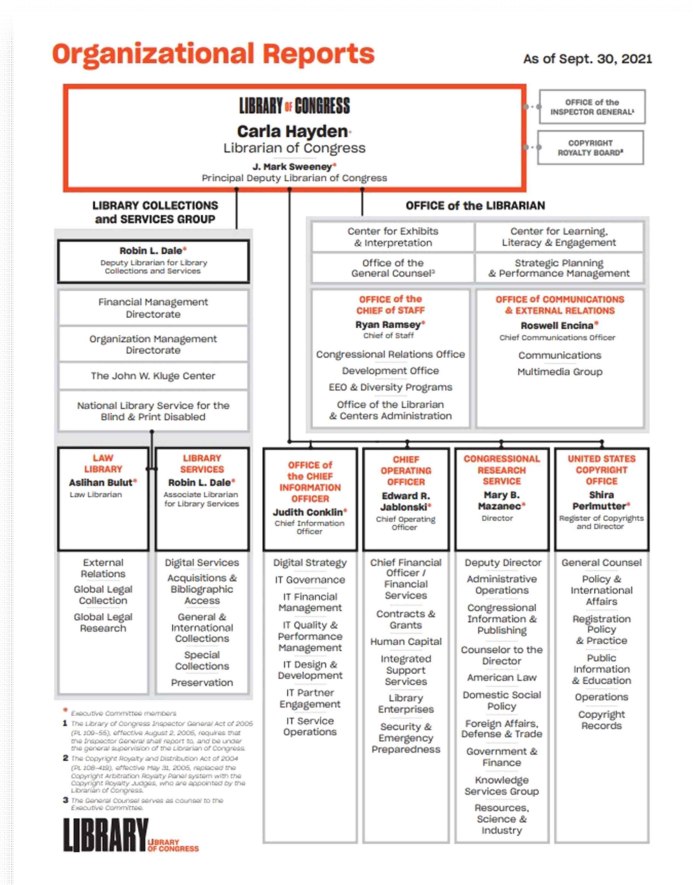
[그림 4] 회계연도 2021년 기준 미국 LC 현황



-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컬렉션에는 총 173,731,463건의 항목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여 분류되지 않은 (특별한)컬렉션의 13,270만 건 이상의 자료가 있음
 - 오디오 자료 (디스크, 테이프, 오디오 북, 기타 녹음된 형식) 420만 건
 - 원고 7,570만 건
 - 지도 560만 건
 - 마이크로폼 1,750만 건
 - 영상 자료 190만 건

- 약보 항목 820만 건
- 시각 자료 1,750만 건
- 200만 건의 기타 항목 (기계 가독 항목 포함)
- 영구 고용직원은 3,194명임
- 예산 권한은 약 802,100,000달러(\$)로 운영됨

[그림 5] 미국 의회도서관 조직도



- 위의 조직도(그림 5)에서 보듯, LC의 조직 구성은 202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서국(Office of Librarian), 운영지원국(Office of Chief Operating Office), 도서관장서/서비스본부(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Group) 산하에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법률도서관(Library Services), 장애인서비스국(National Library Service for Blind & Print Disabled)을 두고,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등을 포함하여, 전체 3,44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도서관으로서 LC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는 사서국, 도서관장서/서

비스국, 관리국, 정보국 등과 세계 최대 법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서관 조직상에 포함되어 있는 감찰국 등 2,278명의 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2020년에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국, 법률도서관, 장애인서비스국을 도서관장서/서비스본부로 묶어 서비스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 외 의회조사국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데이터와 연구자료 제공 및 자료 분석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며, 저작권국은 저작 및 창작자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의회, 법원 및 행정기관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장서 개발 현황

- LC의 장서개발정책의 공식 명칭은 '장서정책선언(Collections Policy Statements)'이며,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세부 개정된 현황은 서론, 6개의 주제, 매체 및 자료유형과 9개의 추가지침 등 총 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은 CPS의 용도, 목적,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 6개 영역(예술/인문과학, 법률/지역연구, 인문학, 법률/국제기구/정부간행물, 과학/기술/공학/수학, 사회과학, 특수자료 및 포맷)의 총 75개(본문의 주제 및 매체별 지침 65개 + 부록지침 6개)로 구분하고 있음
- LC CPS는 자료의 영역별(또는 주제나 매체) 수집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y Group)이 제시한 컨스펙터스(Conspectus)를 준용하여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을 LCC에 근거한 각 주제별 분류기호에 표기하여 수집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5년에 장서개발국(Collection Development Office)이 LC의 장서개발정책을 개정할 때 장기 프로젝트로 RLG 컨스펙터스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계속 유지하기로 함
- 2021년에는 8개의 문서가 리뷰 및 업데이트 되었으며, 2개의 새로운 문서가 생성 및 승인되었음. General collections assessment를 실행하였음
- 또한 2021년에 2022-2026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컬렉션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LC의 칼라 헤이든(Carla Hayden)이 9월에 승인하였음. 이는 2017년에 시행되었던 이전 디지털 수집 전략의 연장선이며, 획득에서 보존 및 이용자 접근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자료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통합하고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중 우선시 되는 목표와 일치함

3) 외국 자료 수집 및 정책

- LC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 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현재의 정책은 2000년과 동일하며 이후 변동사항 없음
- LC의 1993년 버전(2008년 일부 개정) CPS의 경우는 총 7개 영역(미국 연구, 지역 연구, 인문학, 법률과 정부간행물, 과학기술, 사회과학, 특수자료 및 포맷) 61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2. 지역연구 관련 지침'은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 개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LC의 국제 컬렉션(International Collections)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자료실(reading room)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각 지역별 자료실은 지역 연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해당 지역 및 국가, 언어, 문화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브리핑 제공, 특정 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안내서의 제작을 비롯한 심도 있는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장품 개발과 보존, 협력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리 및 지도, 필사본, 영화, 방송 및 녹음자료, 음악, 사진, 귀중본 등 상당수의 비영어권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특히 한국학과 관련된 컬렉션으로는 1950년대 초반 동양자료부 소속 일본자료팀에서 수집한 한국자료가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어로 제작된 자료였음
- 다수의 19세기 자료를 포함하여 1920년 신문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2500릴 정도 소장하고 있음
- 한국의 고전, 역사, 문학, 예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주제자료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 이민자 및 한국경제 기술 및 교류 증가로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연평균 약 5,000권 이상의 단행본과 4,200종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음
- 한국 초기 기독교 컬렉션, 민주화운동 컬렉션을 포함해서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북한 자료도 소장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소실된 희귀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5.1.2.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1) 일반 현황

-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BL)은 1972년 영국국가도서관법 제정으로 개관한 이후 영국왕실문고, 대영박물관도서관, 국립과학기술참고도서관, 영국신문도서관 등이 기능적으로 흡수·통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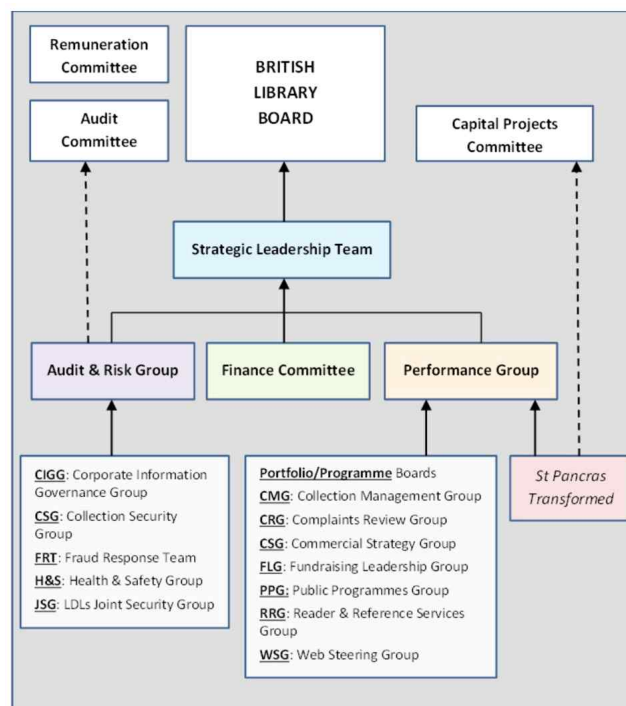
[그림 6] 영국 국립도서관 현황(2021년 기준)



- 현재 고대 예술품을 포함한 매뉴스크립트, 지도, 신문, 저널, 악보, 그림, 특허 등 약 1억 7천만 점의 자료를 소장 중임
- 회계 연도 2021년 기준, 8,600만 개의 컬렉션 항목이 열람실, 온라인, 언택트로 의뢰, 225만 자료를 납본으로 수집하였다고 기록
- 도서관의 웹 페이지 방문은 2,630만이며 약 61,770만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함
- Endangered Archives Programme으로 1,000만 이상의 이미지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고 기록
-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납본으로 총 294,000건의 물리적 항목(신문, 모노그래프, 연속간행물)을, 196만 건의 디지털 항목(e-저널, e-book, 연속간행물)을 수집하였음
- UK 웹 아카이브는 UK 웹 도메인에서 약 237테라바이트 콘텐츠를 수집하였음
- 납본을 제외하고 184,000건의 물리적 아이템 및 7,000건의 디지털 항목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기증 및 교환의 방법으로 수집하였음
- 예산 권한은 약 108,980만 파운드(£)로 운영됨

- 4개 영역으로 컬렉션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대 영국 컬렉션
 - 유럽/미국 컬렉션
 - 서양 고전 컬렉션
 - 아시아/아프리카 컬렉션
- 조직은 사서국과 운영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조직은 아래와 같음

[그림 7] 영국 국립도서관(BL) 조직도



2) 장서 개발 현황

- 장서개발정책은 일반 정책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국가별 · 지역별 정책과 자료유형별 · 주제별 정책으로 나누어 그 아래에 20개의 특수 컬렉션 분과 정책으로 구성하고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목표는 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자원을 완전하게 수집하는 것임
- 수집 방법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을 통해서 하며 법적 납본과 구입이 수집 방법의 가장 큰 부분임. 특히 구입에 따른 수집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신간 외국어 자료 및 연구 수준의 국외 출판 영어 자료
 - 기 장서의 수준 및 장점을 유지, 보완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역사적 기록
 - ILL, DDS 납본 자료는 중복 입수
-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의학 영역의 영어 자료를 연구 수준으로 수집하는 것이 목표이며, 외국어 자료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도서관그룹의 지문을 받아 선택적 구입 중

3) 외국 자료 수집 및 정책

- 특수 컬렉션 개발 정책에 따르면 국가, 지역, 유형, 주제별 기준을 두고 지역적으로는 유럽의 비중이 크고, 유형별로는 매뉴스크립트와 초기 인쇄본을 중심으로 망라적 혹은 선택적 수집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 자료는 다음의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제 및 형태별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음
 - 네덜란드
 - 프랑스
 - 독일
 - (현대)그리스
 - 스페인
 - 이탈리아
 - 스칸디나비아

- 동유럽
- 아시아/아프리카
- 외국 자료 중 2022년 기준 동아시아 수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크게는 국가, 작게는 세부 주제 및 수집가로 분류된 총 17개의 동아시아 컬렉션이 존재함(아시아 정부 출판물, 중국 프로파간다 포스터, 인도 오피스 기록 및 개인적 문서 등)
 - 국가별 동아시아 컬렉션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몽골이 있음
 - 특히 한국학과 관련한 컬렉션은 총 15,000건의 모노그래프, 50건의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500건의 정기간행물, 정식 출판물 및 신문으로 구성됨
 - 이 컬렉션의 주요 문서들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다양한 버전을 포함한 매뉴스크립트 지도, 15-19세기의 125건의 목판인쇄본, 35건의 19세기 중반 한글 소설 등이 있음
- 북한 자료로는 책, 정기간행물 및 일간지 ‘로동신문’을 수집한다고 함
- 한국 정부의 출판물, 지도 및 음성 기록물도 수집함
- 한국과 관련된 영어 및 타 언어 자료도 다량 보유함
- 1246년부터 1900년대까지 다양한 폭의 역사적 자료들을 소장 중
- 1910년 이후의 정기간행물은 “메인 카탈로그”(Explore the library)³⁾에서 확인 가능
- 매뉴스크립트 원고(manuscript)의 경우는 “아카이브 및 매뉴스크립트”(Explore Archives and Manuscripts)⁴⁾ 메뉴에서 서비스 중
- 1900년대 이전의 한국 자료는 아래의 파일⁵⁾과 같이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해서 제공되며, 열람실에서도 일부 서비스하고 있음

5.1.3. 독일 국립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

1) 일반 현황

- 독일 국립도서관은 “적극적인 과거와 미래 문화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자 아카이브, 박물관 역할을 하는 것을 기관의 성격으로 표방하고 있음
- 독일도서저술박물관(German Museum of Books and Writing)과 1933-1945년 독일

3) https://explore.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VU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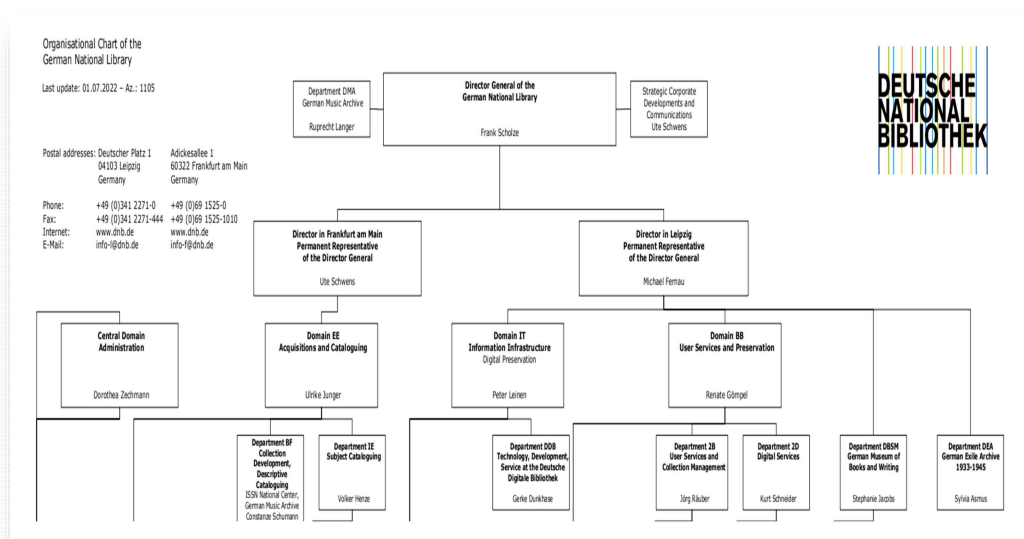
4) https://searcharchives.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

5) https://www.bl.uk/collection-guides/britishlibrary/~/_media/51c69e0b0c874964ba07bee38f76ab2d.ashx

망명자아카이브(German Exile Archive 1933–1945)를 함께 운영함

- “문화 기록 기관”을 모토로 하는 독일 국립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은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데 있음
- 다수의 건설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방대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문화와 과학을 연결하면서 “발전하는 학습 기관”이 되는 것을 기관의 사명으로 함
- 독일 국립도서관 총괄 관장 산하에 도서관 관장 지원 업무 및 위원회 운영, 대외협력, 언론 및 홍보활동,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본부가 있음
- 또한 독일 국립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지만, 독립적 조직을 운영하는 ‘독일음악아카이브’가 있음
- 독일 국립도서관 총괄 관장 하위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국립도서관장 1명과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 국립도서관장 1명을 두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국립도서관에는 ‘행정부’와 ‘획득과 기술(디스크립션)부’가 있음. 라이프치히에는 ‘IT부’와 ‘활용과 보존부’가 속해 있고, ‘독일도서저술박물관부’와 ‘1933–1945 독일망명자아카이브부’가 있음

[그림 8] 독일 국립도서관 조직도 (2022. 11. 기준)



2) 독일도서저술박물관(German Museum of Books and Writing)

-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내에 위치한 독일도서저술박물관은 도서, 저술, 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증언 수집 및 전시, 문화 및 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1883년 Carl B. Lork의 “라이프치히 도서 무역의 미래” 글에서 시작해 이후 독일도서무역박물관으로 설립된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방대한 범위의 컬렉션을 보유한 책 문화 박물관임
- 2006년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률”(DNBG)이 개정되어 독일도서저술박물관은 독일 국립도서관의 임무로 포함됨
- 컬렉션은 크게 다음의 7개로 구성됨
 - 도서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 및 문서
 - 전문도서관
 - 그래픽 컬렉션
 - 문화사 컬렉션
 - 박물관 도서 컬렉션
 - 종이 역사 컬렉션
 - 부동산, 기록보관소, 소장품 컬렉션
- 도서저술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들은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운영 중임⁶⁾

3) 1933-1945년 독일망명자아카이브(German Exile Archive 1933-1945)

- 나치 시대의 망명 · 이주와 관련된 증언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으며, 주제 범위는 1933년~1945년임
- 초기 망명기록보관소의 설립은 이민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48년 Hanns Wilhelm Eppelsheimer와 “스위스 독일 작가보호협회”(“Schutz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 in der Schweiz”) 간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설립에 이름
- 망명자 간행물 컬렉션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이민자 작품의 초판, 재인쇄 및 번역
 - 이민자가 출판에 기여한 선집

6) https://www.dnb.de/EN/Ueber-uns/DBSM/DBSMAusstellungsarchiv/dbsmAusstellungsarchiv_node.html

- 이민자의 저작, 번역, 삽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책 또는 망명 출판사의 발행물
- 1933년 이후에 발행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이민 관련 간행물
- “살아있는 추모 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간행물 컬렉션은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쇼아 도서관 오픈 액세스 컬렉션에서도 보관 중
- 또한 위 컬렉션은 DNB 카탈로그⁷⁾와 AGGB(Arbeitsgemeinschaft der Gedenkstätten bibliotheken; Consortium of Memorial Libraries)⁸⁾에 별도의 컬렉션 검색 탭이 제공되고 있음

4) 장서 개발 정책⁹⁾

- 종이나 기타 매체, 디지털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외, 편견 없이 원본 형태로 도서, 정기간행물, 지도, 악보, 음반 등을 수집
- 1913년 이후 독일에서 발행된 텍스트와 이미지, 음향 형태로 된 모든 미디어 창작물과 더불어 독일에 관한 외국 출판물이나 독일어로 된 외국 출판물을 수집, 목록화, 기록, 배포, 보존하고자 하며,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장서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음
- 카탈로그(Katalog)¹⁰⁾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2013년 이후 납본 받은 모든 도서의 카탈로그를 스캔해왔고 현재 2백만 권이 넘는 도서가 관련 서지 데이터와 이미 연결되었으며 약 6백만 페이지를 포괄하는 270만 개의 카탈로그(Katalog)가 앞으로 디지털화될 예정(2021년 1월 기관 정책 보고서 www.dnb.de/EN/strategy 기준)
-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되는 출판물과 웹 아카이브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신간 자료가 기존 장서에 적절히 통합되고 웹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임. 인공지능,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색인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있음
- 목록화는 검색 과정과 장서 제공 및 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장서는 그 유형과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여기에는 목록화 데이터(cataloguing dat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함
- 장서에 있는 아날로그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가치를 낮추지 않고 디지털층을 구축하면 그러한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측면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음

7) <https://portal.dnb.de/opac.htm?query=catalog%3Ddnb.dea.hbxil&method=simpleSearch&cqlMode=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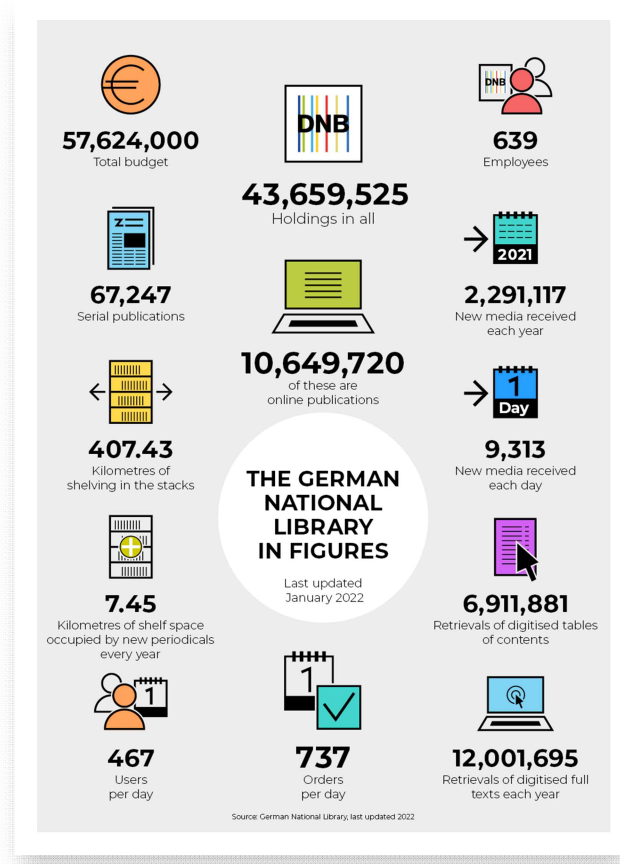
8) <https://portal.dnb.de/opac.htm?query=catalog%3Ddnb.dea.hbxil&method=simpleSearch&cqlMode=true>

9) www.dnb.de/EN/strategy 참고

10) <https://portal.dnb.de/opac.htm> 독일 국립도서관 카탈로그(Katalog)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machine-based learning)을 통해 새로운 하위장서(sub-collection)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얻은 결과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제공 및 연결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결과가 다시 장서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임
- ‘(종이)인쇄보다 디지털 먼저’(Digital before Print) 원칙에 따라 장서 내의 모든 자료에 대해 그 유형과 형태에 상관없이 디지털 탐색과 검색, 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관 목록, 데이터 서비스, DNB Lab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객체 파일, 전문(full tex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독일망명자아카이브1933-1945, 독일음악아카이브(German Music Archive), 독일도서저술박물관이 수행하는 교육사업도 가상 전시회 및 온라인 튜토리얼 등을 통해 디지털 유형으로 강화되는 중임
- 장기적으로 문화와 과학을 연결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정책화하고,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관리할 예정
- 따라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기억기관 및 기타 기관들의 정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디지털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과 통합전거파일(Integrated Authority File)은 개념적, 기술적, 조직적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독일 국립도서관은 네트워크의 강력한 허브로써 기능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일례로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문화계의 디지털 전략 개발을 관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과 함께 참여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현상을 규명하며, 향후 도서관과 아카이브, 박물관, 기억기관, 기타 문화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2022년 1월 보고서 기준, 현재 이용 현황 및 소장량은 다음과 같음
 - 직원 639명
 - 총 예산 57,624,000유로
 - 총 소장량 43,659,525점
 - 소장량 서가 길이 407.43km
 - 정기간행물 67,247종
 - 일일 이용자 평균 467명

[그림 9] 독일 국립도서관 이용 현황 및 소장량
(2022. 1. 보고서 기준)



3) 해외 자료 수집 및 정책

- (해외 자료 수집 범위) 기본적으로 1913년부터 해외에서 독일어로 발행된 자료, 독일어로 발행된 자료의 번역본이 해외에서 발간된 자료, 독일에 관한 외국어로 된 자료를 수집함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함
 - 독일 외교와 관련한 외국어로 된 자료
 - 독일 대학에서 인정한 독일어 또는 외국어로 된 해외에서 발간된 박사논문
 - 독일 해설이 들어간 해외 (원판)음반 자료
 - 독일 발행호수가 독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독일 원판으로 만들어진 해외 음성자료
 - 1933-1945년, 나치 시대에 독일어권 망명자들의 기록물들 중 사용 언어와 상관

없이 해외에서 발행된 기록물들(도서, 브로슈어, 잡지, 음성 등)

- 1945-1950년까지 독일로 돌아오지 않은 독일어권 망명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자료들

5.2. 국내 기관의 유사 사례 분석

- 국내 사례는 현재 매년 개최 중인 “자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2017년 이후 올해 2022년까지 진행된 회의 및 공유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음

5.2.1. 국내 자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1) 조직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협의회

2) 목적

- 국내외 한국사 관련 자료의 중복 수집 방지
- 각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의 공유 방안 논의

3) 진행 경과와 역사

- 2010년 시작되어 매년 1회 개최되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서는 자료 수집 성과 및 계획, 상호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함
- 협의회 조직화 당시에는 연 2회 운영(담당관 회의 1회 및 기관장 회의 1회)을 원칙으로 했으나 2010년 첫 해 이후에는 연 1회 운영 중임

[표 26] 사료수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연혁

연번	년도(회차)	개최 연월일	참석 인원
1	2010년(1차)	2010. 03. 23	10개 기관 24명
2	2010년(2차)	2010. 12. 02	12개 기관 29명
3	2011년	2011. 11. 30	12개 기관 26명
4	2012년	2012. 03. 21	12개 기관 29명
5	2013년	2013. 03. 27	11개 기관 27명
6	2014년	2014. 03. 19	12개 기관 25명
7	2015년	2015. 04. 22	7개 기관 17명
8	2016년	2016. 04. 05	10개 기관 21명
9	2017년	2017. 03. 28	10개 기관 28명
10	2018년	2018. 03. 26	10개 기관 21명
11	2019년	2019. 03. 26	10개 기관 20명
12	2020년	2020. 04. 03(자료제출 완료)	10개 기관 서면회의
13	2021년	2021. 03. 30(자료제출 완료)	10개 기관 서면회의

4) 참여 기관의 중점 수집 지역 및 시기

- 참여 기관은 10~12개소로,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협의회 초창기에는 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음
- 그중 주요 기관의 수집 지역 및 시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7] 사료수집보존 기관별 수집 지역 및 시기

연번	기관명	위원	수집 지역	대상 시기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전 지역	조선~1980년대
2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전 지역	근현대
3	국가기록원	원장	전 지역	근현대
4	국회도서관	관장	전 지역	1948년~현재
5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전 지역	근현대
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전 지역	조선~일제강점기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전 지역	전 시기
8	국가보훈처	처장	전 지역	1910년~현재
9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전 지역	고대 및 근현대
10	독립기념관	관장	전 지역	1860년~1950년

- 상기 기관은 모두 수집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각 기관의 사명에 기반한 특수성 및 특성별로 수집 대상 시기를 달리하고 있었음
- 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은 특히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근현대” 기록을 포함하여 수집하는 점에서 본 연구 대상의 유사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8] 자료수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의 중점 수집 분야

연번	기관명	구분	중점 수집 분야
1	국사편찬위원회	전 주제	- 한국사 전 분야
2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사 전 분야
3	국가기록원		- 한국사 전 분야
4	국회도서관		- 한국과 관련된 각국의 외교문서 - 개화기, 일제 강점기 등 한국현대사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한국학 관련 자료로 전근대사 전 영역 - 해방 직후 일본지역 조선인 귀화자료 - 미국 소장 5·16 관련 미국무부 및 국가안보 회의자료 - 식민지 지배정책 관련 자료
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특정 주제	- 한국사 전 분야
7	군사편찬연구소		- 군사 관련 자료
8	국가보훈처		- 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
9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 역사 및 영토관련 자료 - 위안부 자료 - 독도 및 동해표기 관련 자료
10	독립기념관		- 독립운동사 - 근현대사

5.2.2. 유관기관의 해외 자료 수집 통합 분석(2017~2022)

1) 자료 수집 범위

- 2017년 이후 협의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어느 기관이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순으로 해외 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있었음
- 러시아에서도 꾸준히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기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9] 러시아 기록물 수집 기관 및 연도별 수집 현황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러시아군사문서관
	러시아국립도서관		
2018년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러시아군사문서관
	러시아국립군사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도서관		
2019년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국립음성문서보관소	해군함대문서관
	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	국립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도서관		
2020년	러시아국립도서관	국립군사문서보존소	러시아국립역사문서관
		국립음성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군사문서보관소	이스베스피아신문사	
	기타		
2021년	러시아국립도서관	이스베스피아신문사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국립사할린주역사기록보존소	
	기타		

- 상기 기관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유사한 전 주제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의 2017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집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0]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2017~2020년 미국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2017년	NARA	RG 40, 56, 59, 84, 242, 286, 313, 469, 554 & 백자	국립인류학 기록보존소	구한말선교사 브루너 사진기록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모트페이퍼, 한미재단, 에반스, 피버디문서 등	인류학자 크네즈 박사	한국 생활사 등 사진기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윌리엄 윈 경제조정관 문서	주한미군 폴 블랙	1950년대 한국 생활사 사진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	레이몬드 모이어 경제조정관 문서	록펠러 재단	조선말 큰사전 편찬 및 남산드라마센터 건립 관련 사진·문서
	기타	장로교 아카이브 소장 한국 관련 자료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6.25전쟁 직후 사진 (개성휴전협정, 부산항 원산항 한미 해군전투 등)
2018년	NARA II	RG 59, 125, 127, 242, 286 등 한국 비행장 항공 사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미 평화협상위원회(1914~1931) 생산 기록물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극동사령부 심리전 자료, 쉘바커, 힌즈, 스튜라이스, 보트너, 밀러 문서 등	뉴욕 콜롬비아대	국제 엠네스티 미국지부(1973~1987) 생산 기록물
	정병준 교수 기증 자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윌리엄 시볼드 문서 등 독도 관련 자료	유엔 아카이브	UNKRA 관련 오디오(LP판)
	NARA II 소장 마이크로필름	Information Control and Propaganda: Records of the OWI Part 1, Records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회도서관	한국 관련 미군 노획 기록물
2019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 24, 38, 43, 59, 286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IWG-일본전범 군 재판 관련 기록, 미 해군 6.25전쟁 관련 기록,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체로키 파일 등)
	NARA(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 111-SC 한국전쟁 관련 사진 자료	루퍼트 벨슨	6.25참전군인 개인소장 기록(컬러 슬라이드 원본)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Frank Campton Papers 등	의회도서관(LC) 서재필기념재단	1900년대 한국체류 군인 및 외교관 매뉴스크립트, 2차 대전 당시 라디오 뉴스 등 음향/영상기록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2020년	고 이재현 기증자료 (재미한인 민주화 운동)	14박스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일본군 '위안부' 영상
				6.25 전쟁 전후 미군사진 및 영상
				베트남전쟁시 한국군 사진
				5.18민주화운동 비밀해제 기록 (외교부 인수 포함)
2021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동백림사건 관련 자료	카터 대통령 기록관	비밀해제 기록 (5.18 민주화운동 관련)
	Gale	선교사 서한 및 한국전쟁 관련 자료		비밀해제 기록 (카터 행정부 관련 기록)

5.2.3. 기관별 수집 영역 분석(2017~2022)

1) 미국 자료 수집 범위

- 유관 기관의 시기별 미국 자료 수집 기관을 살펴보아도 각 기관마다 매년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가장 많이 수집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중 2017년 이후 최근(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국방부 편사연구소, 국가보훈처이며 구체적 수집 기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1] 유관기관의 미국 소재 한국 자료 수집 대상 기관(2017~2021)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국정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회도서관
2017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국립인류학 기록보존소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연구자 서대속 소장 자료	X	X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인류학자 크네즈 박사	이덕희 선생 소장 자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주한미군 폴 블랙	UCLA 진학섭 컬렉션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	록펠러재단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기타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대한인구민회 자료 수집 이관		
2018년	NARA II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X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II Microfilm	뉴욕 콜롬비아대						하와이 주립 아카이브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유엔 아카이브						LC크로니클링 아메리카
	정병준 교수 기증 자료	의회도서관						The Evening World, April 14, 1919, Final Edition
2019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NARA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Library of Congress	?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루퍼트 닐슨	UCLA대학교		ASCOM 관련 자료	정한경 관련 자료	NARA I (Washington D.C.)	
	스탠포드대학	의회도서관	하버드대학교		NARA Records	신한민보 편집자	NARA II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회도서관
	후버연구소		연청연구소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출신 김운하 선생 소장 자료	(College Park)	
		서재필기념재단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미국 신규기관 자료목록 조사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020년	고 이재현 기증 자료 (재미한인 민주화운동)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	
				CIA 문서 (CREST를 통해 수집)				
2021년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카터 대통령 기록관	하와이대학교	NARA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코로나로 수집 제한(대신 공개)	-	-	-
	Gale		하와이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CIA 문서				

2) 미국 국립기록청 NARA자료 수집 비교

- 앞선 표(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기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음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정리체계인 레코드 그룹(RG) 번호만 표기한 기관을 포함해서 NARA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2] 유관기관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자료 현황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회도서관
2017년	RG 40, 56, 59, 84, 242, 286, 313, 469, 554 & 백자	6.25전쟁 직후 사진(개성휴전협정, 부산항 원산항 한미 해군전투 등)	RG 242, 338, 407, 554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사 문건	RG 59, 84, 127, 165, 319, 330, 331, 334, 338, 407, 457, 550, 554			
2018년	RG 59, 125, 127, 242, 286 등 한국 비행장 항공 사진, Information Control and Propaganda: Records of the OMI Part	미 평화협상위원회 (1914~1931) 생산 기록물	RG 338, 407		RG 554, 319, 550, 38, 156, 287, 43, 218, 226, 306, 313, 331, 353, 기타 자료(우기 관련), Miscellaneous Lot Files			RG 59, 165, 208, 226, 457, 496
2019년	RG 24, 38, 43, 59, 286, RG 111-SC 한국전쟁 관련 사진 자료	IWG-일본전범 군 재판 관련 기록, 미 해군 6.25전쟁 관련 기록,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체로키 파일 등)	RG 338, 407, 554		RG 111, 112, 226, 263, 306, 319, 407, 554, ASCOM 관련 자료	정한경 관련 자료, 신한민보 편집자 출신 김운하 선생 소장 자료		
2020년		일본군 '위안부' 영상 6.25 전쟁 전후 미군 사진/영상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 사진 5.18민주화운동 비밀해제 기록(외교부 인수 포함)	RG 338, 407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주 한인 등록증 및 참전 한인 인사카드	RG 256, 59, 554			
2021년	동백림사건 관련 자료		RG 84, 242					

- 앞의 표(표 32)에서 따로 붉게 표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특정 레코드 그룹(RG)은 기관마다 중복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표 33] 수집된 동일 RG(Record Group)번호와 해당 기관 정리

	RG 번호	수집 기관
1	242	국사편찬위원회(2017, 2018), 국립중앙도서관(2017, 2021)
2	268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3	33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4	226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5	331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6	407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7	554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8	59	동북아역사재단,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9	127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0	84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 그러나 다수의 예와 같이 동일 RG에서 수집했다고 해서 중복 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RG가 한국과 관련된 주제의 기록을 다수 포괄하고 있어 한국의 기관마다 필요하고 유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RG242¹¹⁾는 “해외 노획 문서 컬렉션”으로 특히 242.23 항목이 “북한 노획 문서” 파트임. RG 242 수집을 시기별, 기관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4] 각 기관별 RG242 내 수집 자료 내용

RG 242		
2016	국립중앙도서관	노획 북한 문서
2017	국사편찬위원회	노획 북한 문서
	국립중앙도서관	노획 북한 문서
2021	국립중앙도서관	(기 수집) 중국인민지원군 노획 문서 자료집 발간
2022(예정)	국사편찬위원회	미군 노획 북한 문서

11) RG 242 구체적 목록은 아래의 링크 참조

<https://www.archives.gov/research/guide-fed-records/groups/242.html#242.23>

[그림 10] 국사편찬위원회 RG 242 설명 화면



- 다만 일부 주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RG 242에 대한 위의 국사편찬위원회 설명과 같이 장기 수집의 대상의 경우가 있음

5.3. 국내 유관기관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현황

- 2022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이 실무협의회에 참석 중이며, 기존에 조사 분석을 완료한 기관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자원 및 정책 확보, 적극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4개 기관을 집중 조사 분석하는 대상으로 선정함

[표 35] 집중 조사 분석 대상 기관

- ①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소재) : 20여 년간 해외 사료 수집, 활용, 보존, 서비스 중
- ② 국가기록원 (대전광역시 소재) : 전 지역, 전 주제의 아카이브 수집 보존
- ③ 국가보훈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특정 주제(독립운동 등)의 아카이브 수집 서비스
- ④ 동북아역사재단 (서울특별시 소재) : 동북아역사넷을 통해 해외 수집 근·현대 사료 콘텐츠 제공

5.3.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수집 범위

- 2000년부터 국외 한국 관련 사료를 수집 · 서비스하고 있음

- 수집 범위는 크게 미국/캐나다, 중국/대만, 일본, 유럽/러시아, 호주 포함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수집 기관은 아래와 같음

- 출처별 수집 기관

① **미국 사료 수집 기관**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뉴욕 분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ew York),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라구나 니구엘 분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Laguna Niguel), 공군역사연구소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닉슨도서관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루즈벨트도서관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마셜도서관 (George C. Marshall Library), 맥아더도서관 (MacArthur Memorial), 메릴랜드대학 맥켈딘도서관 (McKeldin Library), 미시간대학 벤틀리역사도서관 (Bentley Historical Library),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도서관 (Korean Heritage Library),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도서관 (Hoover Institution Library and Archives), 아이젠하워도서관 (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아칸소대학 멀린도서관 (David W. Mullins Library), 예모리대학교 피츠신학도서관 (Pitts Theology Library), 예일대학 (Yale University), 육군대학 도서관 (Library of Army War College), 육군역사연구소 (United State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장로교 역사연구소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조지워싱턴대학 국가안보문서관(National Security Archives), 존슨도서관 (Lyndon B. Johns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카터도서관 (Jimmy Cart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케네디도서관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텍사스대학 페리카사네다도서관 (The Perry-Castañeda Library), 트루만도서관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퍼시픽대학 홀트어서튼특별컬렉션 (Holt-Atherton Special Collections), 포드도서관 (Gerald R. Ford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포모나대학 호널드-머드도서관 (Honold-Mudd Library), 프린스턴대학 동아시아도서관 (East Asian Library), 프린스턴대학 파이어스톤도서관 (Firestone Library), 하버드대학 하버드-옌칭도서관 (Harvard-Yenching Library),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 (Korea Institute),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 (Hamilton Library), 해군부 기록보존소 (Naval Operational Archives of the Department of Navy), UCLA대학 동아시아도서관 (East Asian Library), UC버클리대학 뱅크로프트도서관 (Bancroft Library)

② **캐나다 사료 수집 기관** : 캐나다 도서관-문서보관소(Library and Archives Canada), 토론토대학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 토론토대학 희귀자료도서관(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 ③ **중국 사료 수집 기관** : 길림성 당안관(吉林省 檔案館), 남경시 당안관(南京市 檔案館), 상해시 당안관(上海市 檔案館), 상해시 도서관(上海市 圖書館),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안관(延邊朝鮮族自治州 檔案館), 요녕성 당안관(遼寧省 檔案館), 중경시 당안관(重慶市 檔案館), 중국 국가도서관(中國 國家圖書館), 천진시 당안관(天津市 檔案館), 흑룡강성 당안관(黑龍江省 檔案館), 흑룡강성 사회과학원(黑龍江省 社會科學院 地方黨史研究所)
- ④ **대만 사료 수집 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도서관(國立故宮博物院 圖書館), 국사관(國史館),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중화민국 국방부 사정국(中華民國 國防部 史政局), 중화민국 외교부 당안고(中華民國 外交部 檔案庫)
- ⑤ **일본 사료 수집 기관** :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神奈川縣立公文書館),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川崎市 ふれあい館, 青丘社),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고베대학(神戸大學), 교토대학(京都大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 국문학연구자료관(國文學研究資料館), 궁내청 서릉부(宮內廳 書陵部), 규슈대학(九州大學), 금병동 소장 자료(琴秉洞所藏資料), 나가사키현립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日本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도요문고(東洋文庫), 도쿄대학(東京大學), 도쿠토미소호기념시오자키재단 도쿠토미소호기념관(徳富蘇峰記念鹽崎財団 徳富蘇峰記念館), 방위성 방위연구소(防衛省防衛研究所), 사가대학(佐賀大學), 시가대학(滋賀大學), 시가현립대학(滋賀縣立大學), 시부사와에이치기념재단 시부사와사료관(渋沢栄一記念財団 渋沢史料館), 신아이주쿠 재일외국인교육생활상담센터(信愛塾 在日外國人教育生活相談センター), 쓰쿠바대학(筑波大學), 아이치현 안조시 역사박물관(愛知県 安城市 歷史博物館), 아마구치현 문서관(山口縣文書館),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외무성 외교사료관(外務省 外交史料館), 요코하마개항자료관(横浜開港資料館), 이와테현 오슈시립사이토마코토기념관(岩手縣 奥州市立齋藤實記念館), 일한인역사자료관(在日韓人歴史資料館), 재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日本基督教教會協議會, JNCC), 재일한인문제연구소(在日韓國人問題研究所, RAIK), 호세대학(法政大學), 홋카이도개척기념관(北海道開拓記念館),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등의 주요 한국 관계 자료와 이외에도 대일(對日) 과거사 정리 소송 자료, 요코하마시사료실(横浜市史資料室) 소장 일본강관(日本鋼管) 관련 자료, 일본 소재 한국사료 관련 간행 자료집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소장 자료, 개인 제공자료 등
- ⑥ **러시아 사료 수집 기관** : 러시아 국립경제문서보관소(РГЭА), 러시아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러시아 국립도서관(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러시아 국립역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러시아 국립역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러시아 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러시아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о

бороны России),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 러시아 민족도서관(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소련과학아카데미 아시아민족연구소(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Народов Азии), 이르쿠츠크 국립문서보관소(ГАИО),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하바로프스크 국립문서보관소(ГАХК) 등의 러시아 소재 한국 관련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문서보관소(ЦГА УССР), 타쉬켄트 국립문서보관소(ТГА, Узбекистан), 카자흐스탄의 딸디꾸르간 국립문서보관소(ТГА,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중앙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문서보관소(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⑦ 유럽 사료 수집 기관 :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버밍엄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서자료실(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Main Library), 독일연방 문서보관소(Bundesarchiv), 독일연방 문서보관소-코블렌츠(Bundesarchiv-Koblenz), 독일연방 문서보관소-프라이부르크(Bundesarchiv-Freiburg), 독일연방 외무성 정치문서보관소(Archives des Auswärtigen Amts), 뮌스터대학 도서관(Universität Münster), 이탈리아 국방부 육군역사기록보존소(Archivio Storico dell'Esercito Italiano), 외무부 역사외교기록보존소(Archivio Storico Diplomatico -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해군부 해군역사기록보존소(Ufficio Storico della Marina),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파리(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 Paris)
- ⑧ 기타 사료 수집 기관 : NAI(인도 국립공문서관) 소장 외무부 문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호주 전쟁기념관(AWM)

2) 최근 자료수집 현황

- 2020년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이미지 105,427장, 도서 667권, CD 63장, 14박스 수집
- 2021년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이미지, MF, 도서 수집

[표 36] 국사편찬위원회 2021년 사료 수집 결과

지역	소장처	수집 자료	수량
일본	기타	県史誌内容総覧, 全国地方史誌総目録,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 南洋庁公報, 植民地帝国人物叢書, 外事警察報, 外事月報, 外事警察資料, 特高警察関係資料集成, 特審月報, 南洋群島, 満洲開拓関係雑誌集成	도서 14종 283책
	소계		도서 14종 283책
중국 · 대만	기타	延邊文史資料匯編, 吉林省朝鮮族社會歷史調査, 黑龍江省滿族朝鮮族回族蒙古族柯爾克孜族社會歷史調査, 日本侵华殖民教育史料, 日本侵华史料丛刊《写真周报汇编》, 档案中的中国抗战-(上.下册)-附光盘 등	도서 183종 240책
	소계		도서 183종 240책
미국	NARA	동백림사건 관련 자료	357장
	Gale	선교사 서한 및 한국전쟁 관련 자료	59,230장 / MF44릴
	소계		59,587장 / MF44릴
러시아 유럽	러시아 국립 도서관 (РГБ)	1950~60년대 북한 출판물	4,104장
	러시아 국립 문서보관소 (ГАРФ)	1940~70년대 소련 내각회의 북한 관련 자료	2,279장
	기타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소장 『레닌의 길로』	17,212장
	소계		23,595장
총계	이미지자료 83,182장, MF44릴, 도서 523책		

5.3.2. 국가기록원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 수집 범위

- 국가를 가리지 않고 해외 소장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또한 6.25전쟁, 관동대지진,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기획 수집하고 있음
- 특히 2022년에는 기존의 수집 대상에 이어 미국, 러시아, 헝가리에 이어 일본,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신규 기록 수집 계획이 있음
 - 미국 콜롬비아대학, 하버드대학, 뉴욕 MoMA, 필름아카이브, 뉴욕공공도서관 등지에서 6.25전쟁, 민주화운동, 1900~1960년대 사진 수집 계획
 - 일본 봉선화(관동대지진 추모 시민단체),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사이타마(埼玉)현 쿠마가야시(熊谷市) 도서관 소장 재판기록, 증언록, 세키하라 마사히로(關原正裕) 소장 관동대지진 관련 기록 중점 수집 계획
 - 대만 국사관 소장 대만총독부 기록 사본 수집 계획
 - 프랑스 국립기록관리청, 외교부 기록보존소, 국방부 문서 시청각보관소, 국립도서관 소장 고지도 및 6.25전쟁, 외교, 예술 관련 기록 수집 계획
 - 호주 맥쿼리대학, 안작데이기념위원회, 전쟁기념관 소장 6.25전쟁 및 외교, 한인 관련 기록 수집 계획
 -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브라브다신문사, 그라나예즈나마야신문사, 새고려신문사, 사할린주역사지역기록보존소 소장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기록 수집 계획
 - 헝가리 국가기록원 소장 고지도 및 해방 이후 남북한-헝가리 외교 기록 수집 계획
 -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 소장 한국기업(대우 등) 진출 관련 기록 수집 계획

2) 최근 자료수집 현황

- 2020년 : 미국, 일본, 러시아, 헝가리 등에서 일제강점기, 6.25 관련 기록 등 수집
- 2021년 : 일본, 러시아, 미국에서 강제동원 관련, 대통령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기록 등 문서 22,629매 수집

[표 37] 국가기록원 자료 수집 현황(2021)

지역	소장처	수집자료	수량(단위: 매)
일본	국립공문서관 (초쿠바분관)	일제강점기 폐쇄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25-26차) 문서	10,306
	국립공문서관	산미증식계획 관련 문서	518

지역	소장처	수집자료	수량(단위: 매)
	재일한국인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회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원운동 기록	3,585
	소계		14,409
러시아	이스베스찌야	이스베스찌야신문(1958~1960년)	4,800
	국립사할린주역사기록보존소(GIASO)	강제동원 관련 기록	3,000
	소계		7,800
미국	카터 대통령 기록관	비밀해제 기록 (5.18 민주화운동 관련)	123
		비밀해제 기록 (카터 행정부 관련 기록)	297
	소계		420
총계	문서 22,629매		

5.3.3. 국가보훈처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 수집 범위

- 독립운동 관련,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공적 검증을 지원하는 자료 등 국가적 보훈 주제 위주 수집
- 2022년에는 미주 한인, 여성 독립운동가 신규 발굴을 위한 사료와 명단 수집 계획이 있음
-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 자료 위탁 수집 및 분석 강화를 통해 사료를 활용할 계획임

2) 최근 자료수집 현황

- 2020년 :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주한인 등록증, 상해 신보 색인집,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 등 관련 자료 134,047점 수집
- 2021년 : 중국, 일본, 미국에서 독립운동 관련 100,161점 수집

5.3.4. 동북아역사재단 자료 수집 현황

1) 자료 수집 범위

-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 범위를 아우르며, 아카이브, 도서, 지도, 영상, 음성자료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원을 수집하고 있음
- 특히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로는 근대한국외교문서,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한일회담 관련 미국무부문서, 한일회담 관련 일본문서, 한일회담외교문서로 구분해서 수집한 후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2022년에는 한국의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고지도 디지털 자원 수집 계획이 있음

[표 38] 국가보훈처 2021년 국외 사료 수집 결과

구분	소장처	수집 자료	분량(단위: 매)
중국	연변 길림 장춘	만주방면 독립운동 관련 지역 지방지 (현지, 시지, 조선족지)	22,400
	중국 관내	만주철도주식회사자료연합목록(PDF)	20,558
		상하이도서관 독립운동 관련 중국간행물(상하이 총영사관 협조수집)	3,000
일본	일본 외교사료관	1915~1920년 일본 전역행상(戰役行賞) 자료	5,855
		일본공산당 관계잡건(關係雜件) 중 조선공산당 자료(11권)	4,085
	일본 국립공문서관	외사경찰보(外事警察報) 1~209	38,752
	일본 국회도서관	조선인 사상범죄 자료, 만주국 경찰 개요 등	2,861
미국	하와이 대학교	조지 맥아피 맥큐(McCune) 컬렉션 *미주 한인 독립운동과 OSS 자료	2,650
	하와이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미주 독립운동 의연금 증서, 독립운동가 사진	154
합계			100,161

2) 최근 자료수집 현황

- 2020년 : 러시아국립역사문서관(RGIA)에서 재무상 극동시찰 여행 관련자료 수집
- 2021년 :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지에서 해외 도서관 소장 동해, 독도 관련 고지도 디지털 이미지 7,394점 수집

[표 39] 동북아역사재단 2021년 국외 사료 수집 결과

구분	소장처	수집 자료	수량(점)
미국	스탠포드 대학도서관	데이비드 럼지 컬렉션: Tabula Superioris Indiae et Tartariae maioris 등	2,374
		베리로렌스루더만 컬렉션: Il Disegno Della Terza Parte Dell' Asia [Gastaldi's Wall Map of SE Asia with extra panels!] 등	1,281
	미의회도서관	Hua yi tu 등	518
	위스컨신주립대학 도서관	미국 지리학회 컬렉션: China 1660 등	539
	보스턴 공립도서관	North Korea 등	132
	하버드대학 도서관	Hansöng chōndo 등	131
	브라운대학 도서관	Imperii Sinarum Nova Descriptio 등	47
	버클리대학 도서관	Sekaizu narabini Nihonzu byobu	96
프랑스	국립도서관	China Veteribus Sinarum Regio nunc Incolis Tame dicta 등	1,138
호주	국립도서관	Exacta & accurata delinatio cūm orarum maritimarum tūm etjam locorum terrestrium quæ in regionibum China, Cauchinchina, Camboja, sive Champa, Syao, Malacca, Arracan & Pegu. 등	814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 도서관	萬國圖等	38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Chart of the world on Mercators projection 등	75
	국립공문서관	淸國沿海諸省 등	4
	도쿄국립박물관	地球図 등	14
	요코하마시립대학 도서관	天下九邊萬國人跡路程全圖 등	190
	류코쿠대학 도서관	支那本部地圖 등	2
	이바라키 현립도서관	蘭新訳地球全図(オランダ新訳地球全図)	1
합계			7,394

5.4. 국내 유관기관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서비스 현황

5.4.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사편찬위원회는 수집된 기록을 기관 홈페이지 내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에서 국내/국외/주제별로 나누어 사료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에서 수집한 사료는 ‘국외사료’(http://archive.history.go.kr/catalog/list.do?arrangement_cd=ARRANGEMENT-0-A)메뉴에서 별도로 정리하고 목록 및 검색을 지원하고 있음

2) 원문 검색 서비스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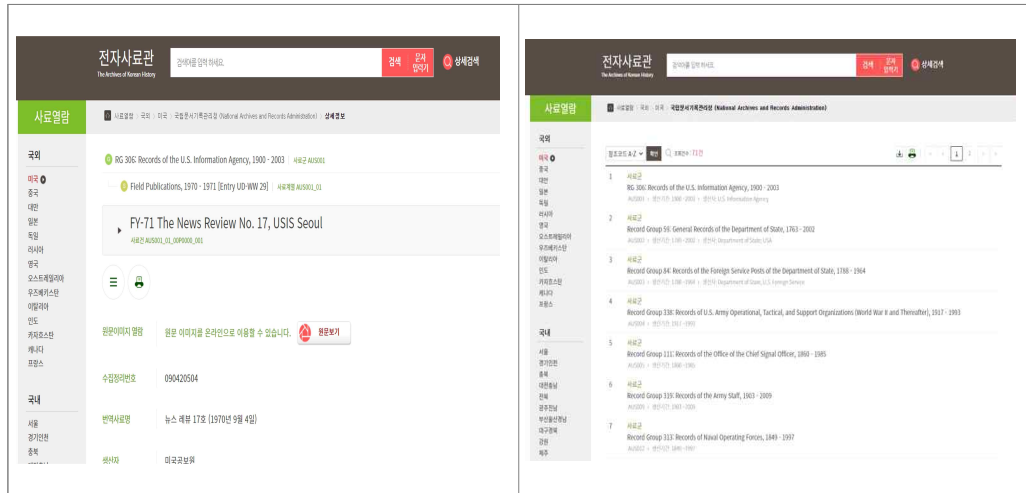
- 해외 수집 자료를 국가 - 수집 기관별로 정리해서 출처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으며 건단위 디지털화를 완료하였음
- 이용자 검색과 해석,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한 미군 자료 전문 독해법” 등을 별도 설명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 주한미군 자료 전문 독해법 화면



- 분류는 RG(혹은 컬렉션) - Series - I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출처에 기반한 맥락을 구조화하고 기록학적 관점의 계층성을 잘 표현하고 있음
- 기술 요소로 생산자, 수집 출처를 포함하여 사료 이력 및 해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자료 검색 및 결과 화면



- 특히 미국 NARA 수집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NARA 자원 소장 연혁 및 관리 단위인 레코드그룹(RG)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근·현대 한국과 관련된 NARA 자원은 아래와 같음

- RG 59 국무부 일반문서(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882년 이후 한미관계를 기록한 중요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사관 영사관 보고, 외교서한, 메모, 여타 다양한 인쇄 · 타이핑 · 필전 문건의 형식으로 구성
- RG 43 국제회의, 위원회 및 박람회 문서(RG 43, 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ission, and Exposition):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의 기록 등
- RG 84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 RG 111 미 육군 통신대 사령관실 문서 (RG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미 육군의 군사활동 관련 영상자료들이 포함
- RG 165 전쟁부 일반 특별·참모문서 (RG 165, Record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1952):
- RG 218 미 합동참모부 문서(RG 218,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주한미군정에 관한 문헌, 전투작전 보고서 및 비군사 보고서 일부가 소장
- RG 226, 전략첩보국 문서 (RG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1941-46년 시기 문서로 OSS는 1942년 6월 합동참모부 예하에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위해 특수작전을 계획·실행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한국을 포함 다양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들이 소장

- RG 242 해외 노획문서(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한국전쟁 시 노획한 북한문서가 이 문서군에 소장
- RG 306 미국 해외공보처 문서 (RG 30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RG 319 육군 참모부 문서(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 RG 323 국제군사기구 문서(RG 323, Records of International Military Agencies) :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부 문서 및 군사정전위원회 문서가 포함
- RG 331 제2차세계대전 연합군사령부문서(RG 331, Records of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1907 - 1966)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전쟁 직후 연합군의 작전과 점령에 관한 문서
- RG 332 제2차 세계대전기 미전구 문서 (RG 332, Records of U.S. Teaters of War, World War II): 미군정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서군. 군사실 문서철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Historical Files, 1945~1948)은 이 문서군에 소장
- RG 334 군간기구(軍間機構)문서(RG 334, Records of Interservice Agencies): 주한미군사고문단 문서가 이 문서군에 포함
- RG 3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육군 작전, 전술, 군수 조직 문서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미군정시기 하지장군 공식서한철, 24군단 문서 등이,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시기 주한미군사고문단 부관부 문서, 미8군문서, 유엔민간원 조관련 문서 등이 포함
- RG 342 미공군 지휘, 활동 및 조직 문서(RG342, Records of United States Air Force Commands,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한국전쟁기 미 제5공군의 지휘 보고서, 작전폭격기록들이 수록
- RG 349 합동사령부 문서 (RG 349, Records of the Joint Commands): 1951~1953년간 한국휴전회담과 관련된 기록이 수록
- RG 353 국무부 부간위원회 및 부내위원회 문서 (RG 353, Records of Interdepartmental and Intradepartmental Committees(State Department): 국무부 특별 수집자료인 1944~1949년간 삼부조정위원회 문서(Records of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1944~1949)가 포함

- RG 407 부관부 문서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 Office): 1917년 이후 미 육군 부관감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한 문서군
- RG 469 해외원조기관문서 (RG 469, Record of the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53~1961): 미국의 대한원조계획, 한국재건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망록과 미국의 대한원조기관 및 사절단의 보고서, 서한 및 각종 통계자료 등으로 구성. 한미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대외 원조기관의 보고서, 현지 원조 담당자들의 계획 보고서 및 서신들이 소장
- RG 554 극동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사령부 문서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에 관한 문서들이 수록

3) 자료 활용 서비스 제공 현황

- 수집 사료 해제집을 출처나 주제별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주제별 콘텐츠 제작, 수집 결과물을 가공, 출판하여 홍보의 대상으로 삼고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2016년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미국 NARA 자료 편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중국 대만자료 편람 파일
 - (2017년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러시아 자료 편람 파일
 - (2019년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미국 소재 기관 및 대학 도서관 자료 편람 파일
- 해외 수집 사료를 포함하여 주제별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록은 아래와 같음(그림 13)

[그림 13] 국사편찬위원회 주제별 사료 콘텐츠 목록

1	1950년대 안화로 본 미국의 사상심리전 a City)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1_06_00B0003 The Red Takes a City (Korean) 1953-07-27 이 자료는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 - 2003 (사료군 AUS001), General Legal Subject File, 1950 - 1954 [Entry UD-WW...
2	냉전시대 미국의 대내안보 인식과 한국경찰의 시위진압 혼란 AUS056_01]을 직접 한 번 훑어보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미국 대사관 문서고인 RG84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반란전을 고려한 경찰원조는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1960년대 미국 정부는 경찰원조의 방향성을 두고...
3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의 두 얼굴 : 긴급구호와 심리전 사이에서 기간 중 케어(CARE) 구호물품 박스를 둘러싸고 있는 부산 경남보육원 고아들 사진 (1952. 03. 06.)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5_06_04V0000_661 Youngsters of the Kyong Nam Bo Yuk Won Orphanage, Pusan. Crowd around 1952-03-06 1952년 3월 6일 미국...
4	1960년대 초반 미국의 한국경제 전망과 원조협정 개정 개정안 관련 주한 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1960. 1. 27.)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3_06_02C0126_056 Mansfield Amendment- Section 503(c) MSA 1959 1960-01-27 이 자료는 주한 미 대사인 매카나기가 1960년 1월 27일 미...
5	대일강화조약 이후 발생한 독도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1952, Box 1, 320, Japan-Korea, Liancourt Rocks, 1952 [사료철 AUS003_05_00C0001] 2) I-5.10, Liancourt Rocks (Takeshima or Dok-do Island), 1952 [사료철 AUS002_01_00C0294] 3) I-5.10, Liancourt Rocks (Takeshima or Dok-to Island) [사료철...
6	1950년대 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위생과 방역 Activity, 1754-1954 [111-SC] (사료계열 AUS005_06)에 포함되었다. 이 사진은 미 25보병사단 의무대대 감독 하에 마르티네즈(Martinez) 일병이 마을사람들에게 DDT를 뿌리는 사진이다. 미군의 DDT 대민 살포는 일차적으로 전염병 예방의 목적과 함께 미군이 직접...
7	4·19혁명 시기 한국의 '혁명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참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AUS002_24_07C0001_036 Telegram from Gree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960-03-12 ※ 위의 문서 원문은 전자자료관에서 해당 사료권에 연결된 사료철[사료참조코드: AUS002_24_07C0001] 목록에서 보실...
8	인구 통제 : 미국 국제개발처 자료로 본 가족계획사업 03 (사료군 AUS056), Central Subject Files [Entry P 583] (사료계열 AUS056_09) 3) RG 286 : Record Group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48 - 2003(사료군 AUS056), Subject Files, 1956 - 1975 [Entry AI 31] (사료계열 AUS056_01)...
9	'전후처리'로 이루어진 귀환의 과정: 해방이후 해외 한인의 귀환관련 자료 한다. 참조코드 AUS005_06_03V0000_629 한국인 귀환자를 조사하는 모습이다. 인천항에서 만주 다롄에서부터 온 귀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1945.2.28.) 참조코드 제목 생산기간 AUS002_42_01C0001_005 K-3 Preliminary, Korea: Political Problems :...
10	또 하나의 전쟁, 포로수용소의 전쟁포로들 있는데, 1950년대 사진들 가운데 일부 포로 관련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코드 제목 생산기간 AUS005_01_00C0001 Korea - Prisons Koje-Do 1952-07-18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경(1952.7.18.), 수용소 뒤편에서 경비병이 보초...

5.4.2. 국가기록원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기록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전 자료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로 해외 사료만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함
- 홈페이지 특수기록물 소개 화면(<https://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에서 해외 수집 기록의 유형별, 국가별, 연도별 수집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록은 제공하지 않음

2) 원문 검색 서비스 제공 현황

- 2022년 현재 해외 수집 사료는 독립운동 및 일본전범 기록, 한인재외동포사, 6.25전쟁 및 구호·원조, 남북관계, 한국경제사 관련 문서 등 문서 2,578,752점,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전후 및 6.25전쟁기 등 한국 관련 생활사 및 풍경, 6.25전쟁, 재외동포사 사진·영상 등 시청각류 132,656점을 해외로부터 수집하였고 일부 소장 자료는 통합검색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함

3) 사료 활용 서비스 제공 현황

- 해외에서 수집한 사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시, 강연회 등을 서비스하지는 않음
- 국가기록원으로서 해외에서 사료, 특히 공기록을 수집해 오는 것은 기관의 주요 사명을 중심으로 보면 다소 보완적인 역할이므로 향후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함

[그림 14] 국가기록원 국가별 해외 사료 수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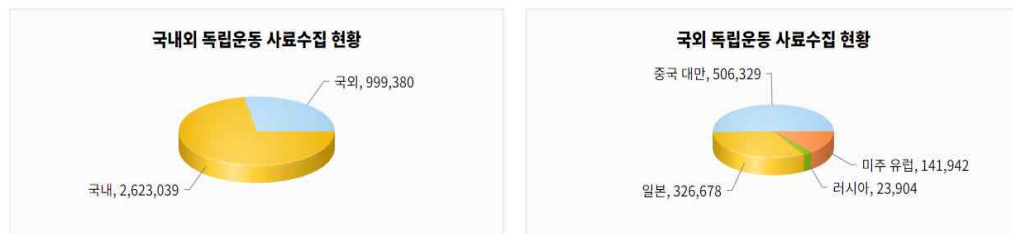
수집국가	내용	문서량	시청각	
			사진	음성·영상
미 국	일본전법, 1950년대 한미경제 및 6.25전쟁 관련 기록 등	383,307	20,453	553
브 라 질	브라질 한인회 등 소장 한인 관련 기록 등	65	308	-
아르헨티나	6.25전쟁 및 한인아주사 관련 기록 등	2,181	-	-
호 주	6.25전쟁 등	-	277	-
러 시 아	일제강점기 기록, 6.25전쟁 남북한 관련 기록 등	240,277	634	59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고려인 관련 기록 등	5,612	51	18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고려인 관련 기록 등	-	64	8
불가리아	남북한 관련 기록 등	7,346	772	57
헝 가 리	헝가리 및 남북한 관련 기록 등	71,714	-	-
스 위 스	중입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측 대표단 활동 기록	15,064	-	-
세르비아	광복 후 남북한 정치·외교·경제 등 정세 관련 기록 등	9,889	-	-
영 국	6.25전쟁 및 주한영국영사관 관련 기록 등	312,005	99	-
독 일	한독 관련 외무부 기록,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록 등	44,727	716	1
일 본	일제수탈, 조선총독부, 재일한인운동사 관련 기록 등	1,186,175	101,651	1
중 국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기록, 한인 집지 등	228,553	-	-
대 만	외무부 이승만·박정희대통령 및 한국정세 기록 등	337	-	-
몽 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및 6.25전쟁 관련 기록 등	933	283	-
베 트 남	한·베 외교 및 경제 관련 문서 및 베트남전쟁 관련 기록 등	3,385	-	-
유 엔	광복 후 한국 긴급원조 및 6.25전쟁 관련 기록 등	27,978	5,394	349
유네스코	한국 교육원조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립 관련 기록	100	157	2
국제적십자위원회	제네바협정, 6.25전쟁, 적십자구호, 재일동포 복송 기록 등	39,124	749	-
합계	총 2,715,785매/점	2,582,862	131,608	1,315

5.4.3. 국가보훈처 자료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소개

- 국가보훈처는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에서 사료 수집 및 정보를 서비스함
-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적 내용 확인 및 독립운동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 포상업무의 사실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로, 독립운동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및 관련 연구자 학회, 사료수집위원, 지방향토사학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방관서 등을 통해 수집
- 국가보훈처에서 전년도(2021년)까지 수집한 사료는 총 3,622,419면

[그림 15]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사료수집 현황(전체, 2021년까지)



- 연도별 국내 및 국외 사료 수집 현황과 통계 제공하며, 공개 수집된 기록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전 자료의 통합검색 서비스로 제공

[그림 16] 국가보훈처 사료생산지역별 독립운동 사료수집 비율 현황(전체, 2021년까지)



2) 원문 검색 서비스 제공 현황

- 수집된 사료 원문을 건 단위로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원문자료실’(<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DataList.do>)메뉴에서 해외 수집 자료의 출처별 원문 검색 가능
- 이 중 프랑스 외무부 사료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 사료 36권 있음
- 검색 결과로 메타데이터 공개하고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그림 17] 국가보훈처 원문 검색 결과 화면

해외의한국독립운동사료

HOME > 원문자료실 > 해외의한국독립운동사료

제목 [] 발행일 [] 목록개수 10

초기화 검색

TOTAL 113건 [1/12]

제목	메타데이터	뷰어	파일다운
파리위원부에서 로이드 수상에게 보낸 서한	메타데이터 보기	뷰어 보기	파일다운
파리위원부에서 각국 원수에게 보낸 서한	메타데이터 보기	뷰어 보기	파일다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청원서	메타데이터 보기	뷰어 보기	파일다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별첨 메모란덤	메타데이터 보기	뷰어 보기	파일다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된 부록	메타데이터 보기	뷰어 보기	파일다운

3) 사료 활용 서비스 제공 현황

- 수집한 사료는 사료적 가치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거쳐 활용 방법을 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 제공
- 특히 해외의 한국독립운동 사료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5.4.4. 동북아역사재단 자료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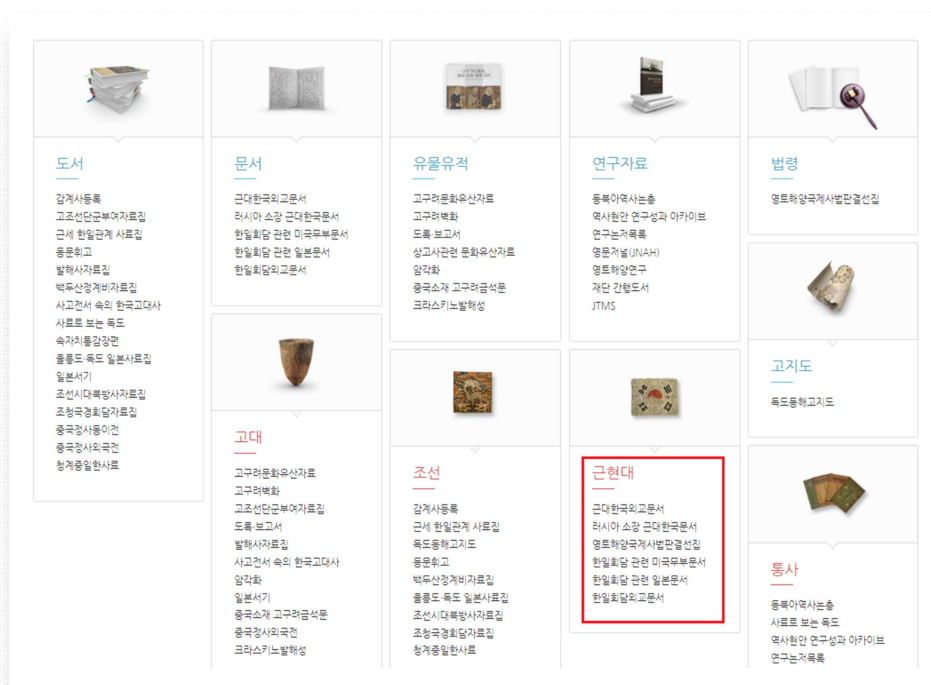
1) 서비스 소개

-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등의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다양한 주제별로 사료 수집하고 자원화
- 동북아역사넷 ‘사료라이브러리’(<http://contents.nahf.or.kr/library/main.do>)메뉴에서 출처별 수집 사료 원문 서비스 및 수집 컬렉션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북아역사자료센터’(<https://hflib.kr/#/>)에서도 수집 자료 제공 서비스

2) 원문 검색 서비스 제공 현황

- 통합검색 화면에서 검색 가능하며 특히 근·현대 해외 수집 자료를 주제별, 출처별로 나누어 별도의 메뉴로 제공(하단 그림 적색 박스 참고)

[그림 18]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사료라이브러리 메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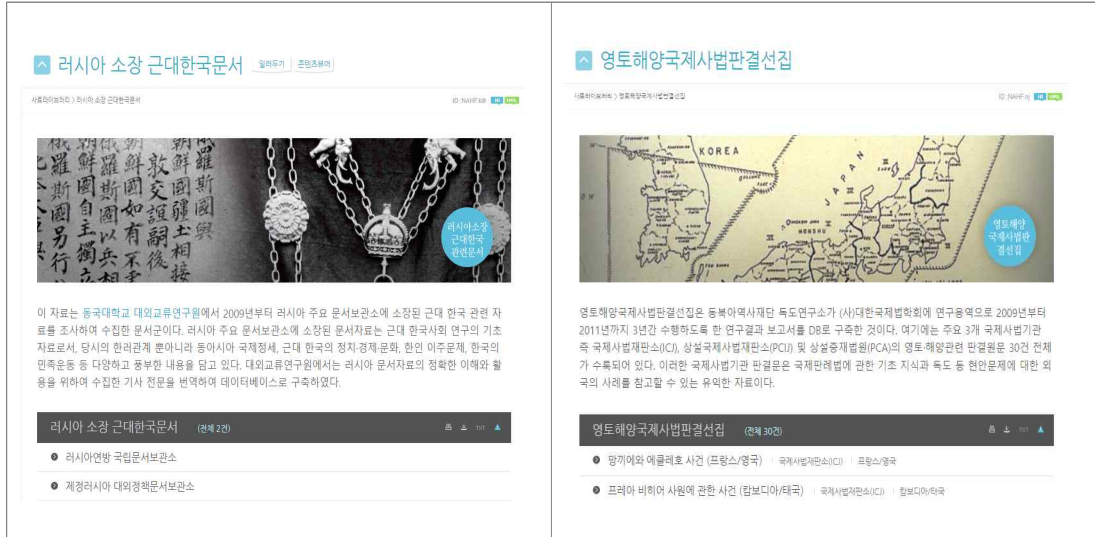


3) 사료 활용 서비스 제공 현황

- 간행물 자료집 등의 형태로 수집 자료 발간하며 현안별로 언론에 공개, 배포하면서 홍보 도구화

■ 수집한 자료를 수집기관별로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 콘텐츠 제공

[그림 19]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서비스 화면



5.5.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및 분석

- 앞선 분석의 대상이었던 유관기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보존처, 동북아역사재단의 해외 자료 수집 담당자와 설문 및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음
- 해외 자료 수집 관련, 서비스 관련, 향후 과제 관련으로 나누어 결과를 정리함

5.5.1. 해외 자료 수집 관련

- 기관의 사명 및 목적에 따라 수집 목적을 상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기록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전 주제, 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공기관 생산 기록물의 결락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소재 근현대사 관련 주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한 바, “공공기록물”로 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 또한 독립유공자 포상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1) 국사편찬위원회

- 사료 수집 정리 서비스 업무는 ‘사료조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료의 수집과 정리는 ‘국외사료수집팀’이 담당하고, 열람 및 서비스 업무는 ‘사료관리팀’에서 담당
- 국외사료팀은 현재 6인(편사연구관 2인, 편사연구사 3인, 사료연구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총예산액은 18,832,000,000원이었으며 이 중 해외자료 수집예산안은 614,000,000원이었음
- 사료 수집의 근거 규정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별도의 해외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전 사업 업무 편람을 통해 업무 추진 및 진행 중임
- 해외 자료 수집 기준은 한국 근현대사 전반으로 그 시기나 연대는 1870년대~1990년대에 집중함
- 사료 목록 및 발굴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 국외사료조사위원 등 해외전문가의 사료 소재 정보 제공
 - 전문연구자의 사료 조사 해제 연구용역
 - 직원의 출장 및 파견 활동 등을 통해 사료 발굴

- 수집 대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내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집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수집 자료군 검토
 - 핵심 수집 자료군에 대해서는 중기계획(5년) 및 세부시행계획(1년)에 반영
 - 세부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내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평가회의를 통해 수집 여부 결정함
- 수집 집행은 국외 현지 용역자를 통한 수집(계약 및 집행), 직원의 출장 및 파견 등을 통한 직접 수집 등의 방법을 이용함
- 수집 시 내부 직원의 참여는 단기 출장의 경우 연 5회 내외로 직원들이 국외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장기 파견의 경우는 1년에 1명이 파견되어 6~9개월 동안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함
- 독일 자료의 경우 ‘독일연방문서보관소(코블렌츠,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독일연방외무청문서보관소, 뮌스터대학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
- 수집은 (1)직원 파견을 통한 수집과 (2)현지 전문가의 용역 수집 두 가지였으며, 직원 파견 시에도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임
- 특히 독일 현지 아카이브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의 협업이 자료 수집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함
- 저작권 협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자료 소장기관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료에 한해 대국민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있음
- 현재 수집 시 애로사항으로는,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원 소장처의 분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층 분류를 적용하는 목록 기술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등이 있음

2) 국가기록원

- 해외 기록물 수집 및 정리를 위해 특수기록과 민간해외기록팀(연구관 1, 연구사 2)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해외 기록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공공기록물 활용 내에서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총 예산은 518억원이었으며, 이 중 해외기록물 수집에 따른 비용은 1억6천만원이었음

- 수집 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음
- 별도의 수집업무를 위한 편람이 있음
- 해외 자료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수집대상 지역: 미국, 일본 및 호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되, 시의성에 따라 수집대상 국가 변경
 - 주요 수집 주제: 구한말 선교기록, 일제강점기 식민정책 및 항일 독립운동, 6.25 전쟁, 베트남전쟁, 해방이후 한국의 외교, 문화·예술, 경제·산업 등
 - 주요 자료 유형: 문서, 사진, 동영상 및 MF, 디지털자료 등
 - 시기 또는 연대: 근대부터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해외 자료 목록 및 발굴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소재 정보 조사(문헌 및 언론사항 등에서 리드정보 구축, 해외기록 조사위원 위촉) - 가치 평가(내부검토, 수집자문위원회)
 - 절차 : 소재 정보 조사 → 수집평가 → 수집계획 수립 → 수집 요청 → 수집비 지급 → 수집 결과 보고
- 수집 방법은 주로 단기 출장을 통한 현장 점검을 주로 이용함
- 독일, 베트남, 중남미 기록물 수집 이력이 있으며, 그 내용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베트남 전쟁 등의 주제로 수집이 진행됨
- 저작권 협의와 관련해서는 기록물 소장 기관 간 수집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함
- 해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해외기록 조사위원 위촉 및 운영 곤란 등이 있음

3) 국가보훈처

- 해외 사료 수집에 있어서 지역별로 담당 연구원이 정해져 있고 총 인원은 학예사 포함 5명 내외로 조직되어 있음
- 사료 수집의 근거 규정은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25호, 22.6.2)”에 따름
-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수집대상 지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 (주요 수집 주제)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료, 신상 자료, 개인 기록
- (주요 자료 유형) 당대 공문서 위주로 사본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범위를 민간 기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시기 또는 연대) 1910-1945년 일제강점기 전후 자료
- 해외 자료 발굴 및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지역 사료 수집 대상 선별
 - 선별 사료 목록 확인
 - 익년 수집 총 계획에 반영
 - 계획에 따른 해외 사료 순차적 수집(수집위원 위탁 또는 직접 출장 수집)
 - 내규 및 훈령에 따른 수집 사료 평가, 보상 비용 지급
 - 수집사료 분석 및 내부 시스템 탑재
- 자료 수집 시 내부 직원은 단기 출장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독일이나 베트남, 중남미와 관련해서 수집한 이력은 없음
- 저작권 협의와 관련해서는, 수집 목적이 내부 활용을 위한 사본 수집이 대부분이며, 전시와 외부 공개를 위한 원문 사료 수집과 그와 관련한 저작권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사본 수집과 관련해서는 평가에 따라 활동비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현재 기관의 수집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해외 사료 수집을 위한 연구원의 장기적인 조사 및 파견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음

4)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 및 영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수집 전담 조직은 각 연구소 연구위원별 연구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현재 연구위원은 총 46명이지만, 한 해 동안 수집하는 인원은 약 1~2명)이며 정리 담당 사서 1명, 서비스 담당 사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총예산액은 20,725,000천원이었고 이 중 연구사업비는 3,550,000천원이었음
- 해외자료 수집에 별도의 예산 및 세부 항목은 없으나 총 연구 사업비 내에 포함됨
- 사료 수집의 근거는 별도의 내부 규칙에 따르며 별도의 자료관리 매뉴얼을 활용함

〈내부 규칙〉

6-8.동북아역사재단 자료관리 및 운영규칙(규칙 제190호)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제4조(자료의 수집)

①재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직원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아시아 역사, 영토·영유권 등 관련 국내외 자료를 구입·수증·교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개정 2016.5.23, 2018.4.18.〉

- 수집 시 내부 직원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단기 출장 혹은 장기 파견 유형을 모두 택하고 있음

5.5.2. 수집 후 서비스 및 관리 관련

1) 국사편찬위원회

- 수집한 자료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자료집 등 편찬 및 해제 서비스	□ 목록집 발간
■ 열람 제공	□ 사본 제공
■ 온라인 목록서비스	■ 파일 제공
	■ 원문 서비스

- 자료의 주된 이용자는 연구자, 학생 등으로 주로 학술적 이용에 있음
- 수집된 자료의 역사 자료 서비스 비율은 97% 정도이며 서비스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임
- 서비스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사료수집보존유관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목록 공유 및 DB 공유를 하고 있으며, 공동자료집 발간 등 업무 협조 사례들이 있음
- 수집 자료 “해제” 관련 내부 지침은 없지만, 장·단기 계획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별 수집(국제회의와 한반도, 한국경제와 국제지원, 한국의 사회운동과 국제네트워크, 일본군 전쟁범죄) 자료군에 대한 자료조사 및 해제를 진행·계획하고 있음
- 해제 공모 사업의 주제 선정을 비롯한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정과제 수립 계획, 심의를 통해 해마다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공모하고, 심의위원회의의 심의평가를 거쳐 신청 주제 중 우수한 지원자에 대해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종료 후 최종보고서로 평가를 실시함
- 자료 해제, 콘텐츠 개발, 플랫폼 구축 등 수집 자료 활용과 관련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제별 수집(국제회의와 한반도, 한국경제와 국제지원, 한국의 사회운동과 국제네트워크, 일본군 전쟁범죄 등)과 관련된 자료 해제 및 컬렉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 수집자료의 주제별 컬렉션 구축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수집 및 서비스 관련 내부 판단으로는 한국근현대사 관련 국외 소재 중요 사료들을 20여년 이상 수집해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자료에의 접근, 연구자의 수집자료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이용을 위한 품질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2) 국가기록원

- 수집한 자료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자료집 등 편찬 및 해제 서비스	■ 목록집 발간
■ 열람 제공	■ 사본 제공
■ 온라인 목록서비스	■ 파일 제공
	■ 원문 서비스 - 일부

- 자료의 주된 이용자는 연구자, 학생 등으로 주로 학술적 이용에 있음
- 수집된 자료의 역사 자료 서비스 비율은 91% 정도이며 서비스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년 정도임
- 서비스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사료수집보존유관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목록 공유 등에 있음
- 자료 “해제” 관련 내부 지침으로는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수집 자료 해제 관련 장기 및 단기 계획은 따로 없으며 해제 공모 사업의 주제 선정 을 비롯한 진행은 주로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하며 향후 서비스 관련해서도 주제별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사업 추진함
- 내부 판단으로는 기록물 수집 및 활용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함

3) 국가보훈처

- 수집 자료의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자료집 등 편찬 및 해제 서비스	□ 목록집 발간
□ 열람 제공	□ 사본 제공
□ 온라인 목록서비스	■ 원문 서비스

- 수집된 자료의 주된 이용자는 내부 직원들임
-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나 협력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사료수집 유관기관 협의회 참여 (연간 1회), 국가보훈처 주관 독립운동 사료 수집 기관 협의회에(반기 1회) 참여함
- 내부 판단으로는 해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관련한 업무의 완성도는 높아 보인다고 함

4) 동북아역사재단

- 수집 자료의 주된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자료집 등 편찬 및 해제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목록집 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 제공	<input type="checkbox"/> 사본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목록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원문 서비스

- 수집 자료의 주된 이용자는 내부 직원 및 연구자, 학생들이며 학술적 이용도가 높음
- 수집된 자료의 역사 자료 서비스 중 온라인 목록 제공 비율은 100% 이며 서비스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정도임
- 서비스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사료수집보존유관기관협의회 참여 등에 있음
- 자료 “해제” 관련 내부 지침이 없음

5.5.3. 향후 협의회 운영 및 방향성 관련

- 사료수집 유관기관 협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임
- 사료수집 유관기관 협의회는 사료 수집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각 기관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중복 수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협의회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협의회가 대단히 중복 수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임
-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라는 바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동안 미국 NARA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
- 향후에는 다른 지역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 특히 국사편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하여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자료 수집 및 관리,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5.6. 관계자 면담을 통한 향후 수집 방향성 제안

5.6.1. 유관기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수집 자료 활용 및 서비스 관련

- **(현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이 자료 수집 후 목록, 원문 검색 서비스, 해제, 자료집 발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문제점)**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수집한 귀한 자료들의 서비스 방법은 열람, 전시, 강연 등의 평면적인 유형이거나 일방적 방식으로 운영 중임
- **(시사점)** 잠재적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해외 소장 한국 자료를 이해, 이용, 활용하면서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서비스 방안이 요구됨
 -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용자들이 수집 자료를 독해하고 이해하게 하는 적극적 설명과 적극적 서비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임
 - 디지털 환경과 기술 매체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매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친화적 대국민 서비스 유형 도입이 필요함
 - 수집 자료의 기관별 개별 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정책과 관심이 필요함
 - 특히 기관별로 유사 자료를 수집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자원 공유, 대국민 협력 프로그램 개발, 유사 수집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동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등의 노력도 요구됨

2) 자료 해외 수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 **(현황)** 현재 매년 1회 개최되는 자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문제점)** 현재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가 장기적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단지 매년 각 기관별 해외 자료 수집 결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지, 역할과 범위 분담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보임
 - 국회도서관은 의정 활동 관련 기록을 집중 수집, 집중 분석 대상 기관이었던 국가보훈처는 독립 운동 관련 자료 집중,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이라는 확실한 목적과 주제가 가능한 기관들임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은 크게 주제와 상관없이 가능한 지역, 주제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매해 계획을 공유하지만 어떤 거시적 비전이나 연속성,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님
- (시사점)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 대상 국가나 기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 수집 계획과 공유, 분담이 필요함
 - 이제는 해외에서 사료를 수집해 오는 다수 기관들의 역할과 매체, 시대, 주제, 등의 범위 분담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관기관 협의회를 단순 계획 공유와 중복 수집 방지를 넘어서는, 중복 역할을 정리하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6.2. 향후 수집 방향성 및 전략

1) 수집 인력 및 담당 조직의 강화

- 유관 기관의 해외 자료 수집을 위한 담당 인력 확보 및 배치의 사례를 보듯 내실 있는 수집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도서관의 아카이브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행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전문 조직과 인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 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공유, 분담, 네트워크를 위한 창구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아카이브 역할 및 역량 강화

-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그간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노력, 특히 미국 국립도서관에서의 수집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 사례에서 보듯 국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특히 국립도서관이자 국가의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정보 자원 수집과 서비스에 있어 컨트롤타워이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타 기관에 비해 안정된 예산과 조직의 관심, 높은 서비스 수준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다양한 (민간)기록 및 아카이브 수집과 서비스를 위해 현실적 방법, 거시적 방안, 전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이 중요함

3)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수집 계획 및 활용

- 현재의 해외 사료 수집 계획과 실행은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전 주제, 전 시대를 아우르는 수집 범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수집 맥락을 설정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양적으로 수집 대상 및 기관을 늘이거나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 맥락과 필요성에 따라 일종의 설계도를 만들고 장기적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6.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6.1.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방법론

6.1.1. 과업의 목적과 정의

■ 세부 과업의 목적

- 이 과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제 기록 수집에 바탕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 수립 연구와 과업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최상위 주제이자 목적을 고려했을 때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 조사의 시작점은 수집 정책임

- 아카이브 수집 정책이란 일관성과 방향을 확인하는 기본 틀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집기관의 성격(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 모기관의 주관 영역)
- 현재 기관의 상황과 의지 수집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 지향)
- 기관 인프라(조직과 인력, 자원)
- 조직 외의 여건(수집 대상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관계)

- 이러한 수집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집할 영역별 세부 주제, 대상기관, 방법을 포함한 세부 수집계획이 필요함. 이러한 사전 준비단계의 중요성은 실제 수집 활동이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료 조사 과업은 세부 수집계획의 일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라는 대목표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세부 과업의 정의

- ‘해외 자료 소재 파악 및 수집 희망 자료 조사 업무’란 한국 관련 자료 목록 조사 방법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수집 대상이 될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6.1.2. 과업의 수행 방법

- 본 과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과업을 수행
 - 지역(국가) 결정
 - 국가별 소재파악 전략 수립
 - 국가별 문헌 연구 및 사전 조사 (국가별로 상이)
 - 국가별 한국 관련 자료 소장기관 조사
 - 소장처별 한국 관련 기록 목록 조사
- 자료 조사 방법
 - 해외 국가별 아카이브 역량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대상 국가의 특성과 연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본 과업은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관계자 면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조사 방법으로 활용

[표 40] 조사 방법별 특징

	장점	단점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는 필수적 단계 - 전 세계적으로 아카이브 검색도구 활성화 - 소장 기록 전반을 체계화해서 제공하며 소장기관의 기능, 활동 측면에서 기록 예상 가능 -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의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조사 필요 - 아카이브 기록 내용 및 기관과 검색도구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소장기록 전반을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지 않음 -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 확보이며 구체적인 수집은 현지 조사가 동반되어야 함
관계자 면담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를 알만한 사람을 섭외하여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구체적인 소재 확인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섭외 자체가 어려움 - 개인별, 포괄적, 망라적 수집을 지향하고 있다면 다양한 정보원이 될 인물을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수집 주제 전체를 조망하는 수집계획 구성 능력이 중요함

-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 해외 국가별로 한국과의 관계사가 소재 조사 작업의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헌 조사는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
 -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기관의 성격(이관형, 수집형), 정부기관 등을 위한 이관형 아카이브의 소장기록은 모기관의 기능, 활동을 분석한다면 “남아있을지도

모를” 기록 범주를 예상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아카이브 소장기록에 관한 개별 기관 차원의 검색도구(finding aids)뿐 아니라 국가별, 초국가적 통합 서비스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있음
- 많은 아카이브에서 소장기록 전반을 출처별, 주제별, 유형별 등 다양한 분류 체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원을 조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집 대상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음¹²⁾
- 온라인 정보원 조사는 광범위한 조사영역 및 데이터가 존재하고 조사자의 역량이 중요함. 조사자는 기록 내용에 정통함은 물론 아카이브 기관 및 기록과 검색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수임¹³⁾
- 국가에 따라 아카이브 문화, IT 인프라가 다르고 온라인 서비스 목록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집할 기록을 선별하기 쉽지 않음

● 관계자 면담 및 자문 조사

- 구체적으로 수집할만한 기록을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집할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에 있어서 정보원이 될 만한 인물을 섭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개인 연구자라면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에, 기관 종사자라면 기관의 소장기록에 관해서만 정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집 주체는 이것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연구 수행 방법의 한계와 가능성

- 수집 방법으로서 자료목록 조사는 수집을 실행하기 전 단계의 사전 조사에 속하며 실제 현지조사가 병행되어야만 실효를 갖출 수 있을 것임

12) 아카이브에서 검색도구는 이용자를 위한 기본 목록 기능을 수행함. 온라인 검색도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슈가 되는 기록은 해외 아카이브의 검색도구, 기록을 수집한 국내 기관 아카이브의 검색도구 모두에서 서비스되기도 함. 예를 들어 서울대 전진성 연구팀이 미국 NARA에서 발굴한 ‘위안부’기록은 서울기록원으로 기증되었고, 서울기록원에서는 이를 일본군 ‘위안부’기록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연구가이드를 발행하였음. 조사연구 가이드란 기록컬렉션의 구성과 검색 방법, 기록 추적 맥락 등을 기록과 함께 제공하는 검색도구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음
<https://archives.seoul.go.kr/research-guide/438>

13) 게다가 문서, 사진, 영상 등 기록 유형에 따라 찾는 방법도 다른데 ‘위안부’ 연구팀이 미국 NARA에서 위안부 기록을 발굴했던 경험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음.
박은하, 2017. 7. 16. “공감 이뤄내는 진실의 힘”... 위안부 연구팀 3인이 전하는 영상 발굴 풀 스토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715161300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수집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정책의 현실적인 구현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업임

6.1.3. 대상 지역(국가) 선정

- 지역(국가) 선정의 기본 방침
 -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국가
 -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 국가
 -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가
 - 우리 국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가
- 국립중앙도서관 요구사항
 - 타 기관 수집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지역
 - 현지 방문이 용이한 근거리 지역(아시아, 유럽)과 원거리 지역(중남미) 안배
 - 자료 수집 요원이 체류 중인 지역
 - 현재 논의 중인 지역은 제외 (헝가리, 중동)

6.1.4. 중남미 지역 관련 사항

- 착속보고회에서 시범 조사 지역이었던 독일을 필두로 근거리 국가(베트남), 장거리 국가(중남미)를 두루 포함하는 안으로 협의(2022. 6. 14)
- 중남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2가지 경로를 통해 전화 인터뷰 진행
 - 중남미 연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 중남미 한인들은 1902년 하와이(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주해 쿠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로 이주해 간 비율이 높음
 - 이들에 관한 자료는 공식적 기록(국가 아카이브)보다는 개인·가족의 기록과 한인 단체 기록들이 다수임
 - 재외동포재단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97.3.27)에 의해 설립된 재외동포 재단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진행

-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21년 8월 “재외동포 디지털아카이브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 용역”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유관기관-한인단체 소장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단계에 있음
- 또한 용역사업을 통해 자료 소재 조사를 진행하였음. 『재외한인학회』가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중남미 한인사에 관한 소장정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대외비 자료)
- 올해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국내외 기록물 시범 수집사업(22년 6월)’과 ‘관련 기록물 중장기 수집 정책수립연구(22년 7월)’을 진행하고 있음¹⁴⁾

■ 중남미 지역 조사 결과

- 중남미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수집 대상이 사(私)적 기록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집 사안별로 심도 있는 연구와 현지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아울러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주관이 되어 재외 한인사 관련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진행의 우려가 있다고 파악됨(2022. 7. 30. 연구 팀 내부 회의록)

6.1.5. 중간보고 이후 경과

- 중간보고회에서 중남미 대신에 유럽 국가를 조사하기로 협의(2022. 8. 26.)
- 이후 이탈리아 연구자를 섭외하여 이탈리아 소재 한국 관련 자료 현황을 분담
- 베트남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조사는 베트남사 연구자를 통해 현지 조사를 진행함. 베트남은 웹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베트남 현지의 “제2자료보관소”와 “제3자료보관소”를 방문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함

14)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입찰공고 <https://www.okf.or.kr/homepage/index.do>

[표 41] 조사대상 국가별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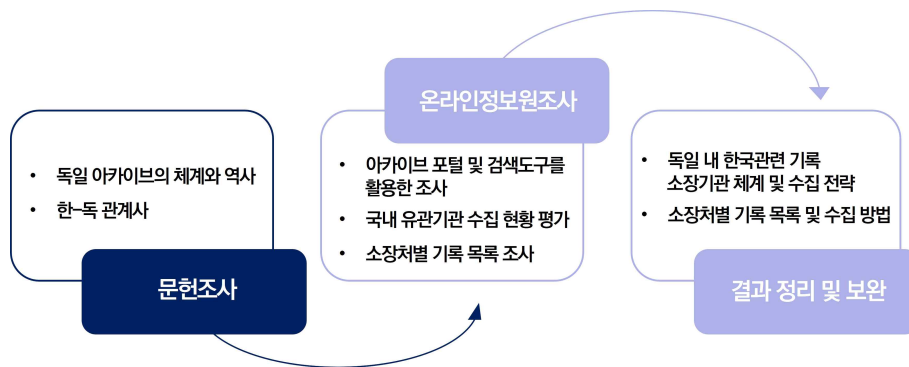
	조사 방식	주요 내용
독일	-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필요시 이메일 조사 진행)	- 한독관계사 문헌연구 - 독일 내 아카이브 포털과 아카이브 기관 검색도구를 토대로 한국 관련 기록 소장현황 조사
베트남	- 관계자 면담 및 자문	- 베트남사 연구자를 매개로 베트남 현지에서 국립아카이브 기관 내 한국 관련 기록 조사
이탈리아	- 관계자 면담 및 자문	- 이탈리아 연구자를 통해 이탈리아 소재 아카이브 기관 내 한국 관련 기록 조사

6.2. 독일

6.2.1.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소재 파악 전략

-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소재 파악 전략은 다음의 [그림 20]과 같이 요약되며, 문헌조사와 온라인 정보원 조사를 긴밀하게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방대한 아카이브 포털 및 검색도구를 대상으로 포괄적 검색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에 구체적인 소장처별 기록목록 산출을 위한 세부 대상을 선정할 계획임

[그림 20] 독일 자료 소재 파악 전략 개요



- 문헌조사
 - 독일의 아카이브 역사와 체계 분석
 - 한독 관계사 및 독일 아카이브 관련 문헌 분석
-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 아카이브 포털 및 개별 아카이브 검색도구 현황 분석
- 조사대상 소장처 선정
- 국내 유관기관 수집 내용과 비교 분석(국가별 수집 노하우 포함)
- 소장처별 한국 관련 기록 및 자료(모든 유형의) 목록 조사
- 결과 정리 및 보완

6.2.2. 독일 아카이브의 역사와 체계

1) 연방과 주정부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하며 형성

- 독일 아카이브의 시초는 영주, 가문, 귀족 아카이브임. 중세시대부터 18세기 이전 독일 기록 관리는 중요한 통치수단이었으며, 봉건 통치자들의 법률적,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증명서, 문서를 선별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러한 아카이브 형태는 최소 18세기 중엽까지 지속되고, 19세기 초반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
- 또한 독일의 중세 영방(領邦) 국가적 행정체계 역사가 현재 행정구조와 기록 관리에 많은 영향을 끼침. 나치 전제주의체제 지배시기인 1933~1945년을 제외하고는 본래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지방분권성이 강한 연방국가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연방정부는 국가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주 정부 역시 연방정부와 같은 국가적 모습의 형태이며,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정가구를 운영함
- 이러한 분권적인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독일 기록관리체계는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함

2)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기록보존소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합

- 연방(Bund), 주(Bundesland), 시(Stadt), 군(Kreis),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처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이고 다양한 기록보존소가 운영되고 있음
- 독일 기록 관리의 현대적 이론을 정립시키는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임. 전쟁 중 생산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기록보존소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되어 독일 포츠담에 제국기록보존소(Reichsarchiv)가 설립되고 당시

문서를 수집, 정리하기 시작함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고, 소련 점령지역인 포츠담에 위치한 제국기록보존소(Reichsarchiv)의 기록들은 온전히 동독의 소유가 됨
- 서독은 1952년 연방의 수도 본(Bonn)에서 가까운 코블렌츠(Koblenz)에 독일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를 설립
- 동독과 서독 통일 후, 양 체제에서 운영되던 기록보존소들의 통합은 행정체계의 통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독의 기록보존소들이 서독의 기록보존소로 편입되는 형식으로 진행됨

3) 국립, 지방, 종교, 가문, 경제, 정당, 미디어, 대학 등 8개의 전문 그룹으로 분류

- 서독 코블렌츠의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는 동독 포츠담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Staatsarchiv der DDE)와 군가기록보존소(Staatliches Militärarchiv), 동독 베를린 국립 필름기록보존소(Staatliches Filmarchiv)의 기록들을 인수하고,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에 ‘동독기록국(Abteilung DDR)’을 새롭게 구성
- 현재 독일의 영구기록보존소는 독일 아키비스트 협회에 의해 8개의 전문 그룹으로 나뉨
 - ① 국립 영구기록보존소, ②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보존소, ③ 기독교 영구기록보존소, ④ 영주, 가문 영구기록보존소, ⑤ 경제 영구기록보존소, ⑥ 의회, 정당, 재단 및 협회 영구기록보존소, ⑦ 미디어 영구기록보존소, ⑧ 대학 및 학문기관 영구기록보존소
- 국립 영구기록보존소에는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와 16개 주별로 존재하는 주립 영구기록보존소(Landesarchiv)와 그 외 국립 영구기록보존소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보존소에는 시(Stadt), 군(Kreis)과 게마인데(Gemeinde) 영구기록보존소가 해당됨
- 독일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에 따르면(기준일자: 2022.07.31.) 독일 국립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42곳,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982곳, 기독교 영구기록보존소는 117곳, 영주, 가문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76곳, 경제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250곳, 의회, 정당, 재단 및 협회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35곳, 미디어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145곳, 대학 및 학문기관 영구기록보존소는 총 258곳이 있음

6.2.3. 한독 관계사 및 독일 아카이브 관련 문헌 분석

- 한국과 독일 양국간 초기 접촉은 조선 16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가 청국에 머무는 동안, 1644년 독일인 신부 아담 샬(Adam Schall)과 친교를 맺게 된 것이 양 국민 간 접촉의 효시

- 한국과 독일은 1884년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1884. 11. 18. 서울에서 비준서 교환)하여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으며, 이후 근현대 역사의 파란 속에서 관계를 이어왔음¹⁵⁾
-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의 주요 부분은 다음의 [표 42]를 참고할 것

[표 42] 한독 관계 주요 연표

- 1883. 11. 26.(음 10.27) 한독조약 조인
- 1884. 11. 18. 한독조약 비준 교환
- 1949. 11. 동독과 북한 외교 관계 수립
- 1955. 서독정부가 파리조약(1954년)으로 주권 회복한 이후 서독과 남한 외교 관계 수립
- 1956. 총영사관 설치
- 1958. 대사관 설치
- 1964.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
- 1964, 1967. 서독 대통령 한국 방문
- 1962-1964. 서독으로부터 공공차관. 공공차관의 17.5%에 달하며 초기 경제 발전에 기여
- 1964-1977.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광부(7,936명)와 간호사(10,564명) 파독
- 196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 외교문서 정리, 『덕안왕복문서』정리하여 출간, 한독관계 기초자료 확보
- 1967-1979. '동베를린 사건', 서독과의 냉각기
- 1983. 수교 100주년
- 1989. 노태우 대통령, 한국의 북방정책
- 2000.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햇빛 정책
- 2005. 한국의 해
- 2013. 수교 130주년

- 본 과업에서는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 맥락을 확인하고자 한독 관계사와 독일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봄

1) 한독 관계사

- 한국에서 진행된 한독 관계를 개관하는 대표적인 연구와 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음

15) 이상의 내용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서 2021년 온라인으로 배포한 『독일개황』 중 12장 우리나라와의 관계 부문에서 한독 외교 역사 부분을 인용한 것임.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2021, 독일개황,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구한국외교문서』 15-16권
 - ‘구한국 외교문서정리 사업’의 하나로, 구한말 한독 외교문서인 ‘德案’을 정리하여 출간하였으며 한독관계 기초자료로 평가됨
- 최종고, 2005, 『한강에서 라인강까지:한독관계사』 유로서적, 서울
 -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한 저자가 쓴 한독관계 연구서로 1984년에 쓴 『한독교섭사』를 수정·보완해 펴낸 책
- 정현백, 2014, “한독 관계사, 회고와 성찰”, 『독일연구』 제 28호, 3-34
 - 독일사학회가 개최한 한독수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
 - 한독관계사 연구가 “역사를 기념하는 어느 시점에서 필요에 부응하는 일시적인 연구나 정리로 그쳤다(정현백 2014, 9)”고 하여 그간 독일 관련 전공자, 서양사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
 - 또한 다음의 [표 43]과 같이 한독 관계를 시대로 구분하고 함께 다루어볼 만한 주요 논점들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으며, 조직적·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표 43] 한독관계 시기별 주요 키워드

시대구분	주요 키워드
개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사, 상인 등 한국방문 독일인들(오페르트, 뮐렌도르프) - 마이어 무역회사, 세창양행 - 독일교회의 선교, 봉사, 근대화 프로젝트
일제 지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딕토 교단 선교사와 수녀들(베버) - 독일로 유학을 떠난 조선인들(김중세, 이미륵, 안호상, 이강국, 이극로) - 독일 땅에서의 조선 독립운동 전개(1924년 11월 24일 베를린 인민일보, 유독학우회)
남북한과 두 개의 독일 (1945-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정부와 동서독 - 동독의 경제원조, 전후 복구사업 - 서독의 부산 적십자 병원 건립(1954-1959) - 정상 방문 - 한독 경제협력, 공공차관과 기술지원, 무역관계 - 한국 광부와 간호사의 서독 파견 - 1970년대 독일교회를 통한 민주화, 여성운동 지원 - 문화적 관계(독일문화 수용)
1990년 통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정책과 북방정책, 햇빛정책 - 독일의 한국학과 발전

2)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한 연구¹⁶⁾는 다수이나, 그중에서 본 과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김면, 2006, “구동독의 대북한 기밀보고서 분석”, 『평화학연구』 제 7권 제 1호, 211-232
 - 독일국립문서보존소가 소장한 북한 관련 기밀문서를 통해 구동독과 북한 간 외교 수립부터 1960년대까지 관계사를 연구한 논문
 - 독일 내 북한 관련 기록을 소장한 기관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방법에 따라 독일 내 북한 관련 1차자료를 소장한 기관¹⁷⁾을 한정해 진행하였고 각 기관의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 저자의 경우 통일연구원 독일지역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기록들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에서는 이 팀이 독일 외무정보관소 소장 북한관련 자료 전체를 이전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수집(2003. 5)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음(김면 2006, 213)
- 김점숙, 2013. 10,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현황-미주유럽구소련 자료를 중심으로-”,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10호
 - 사료수집기관(국사편찬위원회) 입장에서 쓴 글로, 현재 전자사료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독일 관련 수집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각 사료수집 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개별 기관 차원에서 이용될 뿐 아니라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특정 주제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해 서비스 기관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상환, 2020, “동베를린 사건¹⁸⁾을 중심으로 살펴본 냉전시기 한국-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정치외교관계 분석”, 『독어교육』 제 79집, 169-189
 - 이 연구는 독일의 정부 아카이브가 기밀 해제한 한국 관련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16) 주로 독일 아카이브가 비밀 해제 자료를 활용해 한국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고 분단체제를 영위했으며 구동독 관련해 북한관련 자료, 동백림 사건, 파독 간호사와 광부 등 주요 사건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로 파악됨

17) 독일외무성문서보관소, 구동독 당과 대중단체 문서보관기관, 구동독 국가공안국 문서보관소, 연방공문 군사서관, 코블렌츠 문헌관, 데사우 건축공예학교, 외무성 소장기록으로는 외교문서, 조약문과 협정서, 최고위층간의 서신, 방문기, 정당의 공식 및 비밀문서, 보고문, 연설 및 담화문 등

18) 동베를린 사건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국제 간첩공작사건으로 1967년 7월 8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형욱의 기자회견으로 공식화되었는데 “교수학생 등 194명 관련, 소-중공-평양 등 왕래하며 접선해 107명이 입건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음(1967. 7, 9. 조선일보) 이후 4년간 지속되었으며 1970년 12월 관련자 모두 석방되면서 종결됨

동베를린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1차 자료인 아카이브 기록을 활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줌

- 동베를린(동백림)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외교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었던 사건”이자 “1960년대 동서냉전과 남북한 간의 냉전이 치열할 당시에 일어난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에 일어난 외교적으로 불행한 스캔들”
- 이 사건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적자 17명이 갑자기 사라진 “외국(한국)정부 정보기관원들로부터 주권을 침해당한 사건”으로 이해되어 사건 발생 후 독일 연방정부 내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여러 부서들이 총동원되었음
- 따라서 동베를린 사건 관련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비교 분석해야 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기록 생산 기관들의 범주¹⁹⁾를 살펴보면 연방기관뿐 아니라 주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자는 기밀 해제된 기록들이 이 사건의 배후와 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대응, 여러 관련 주체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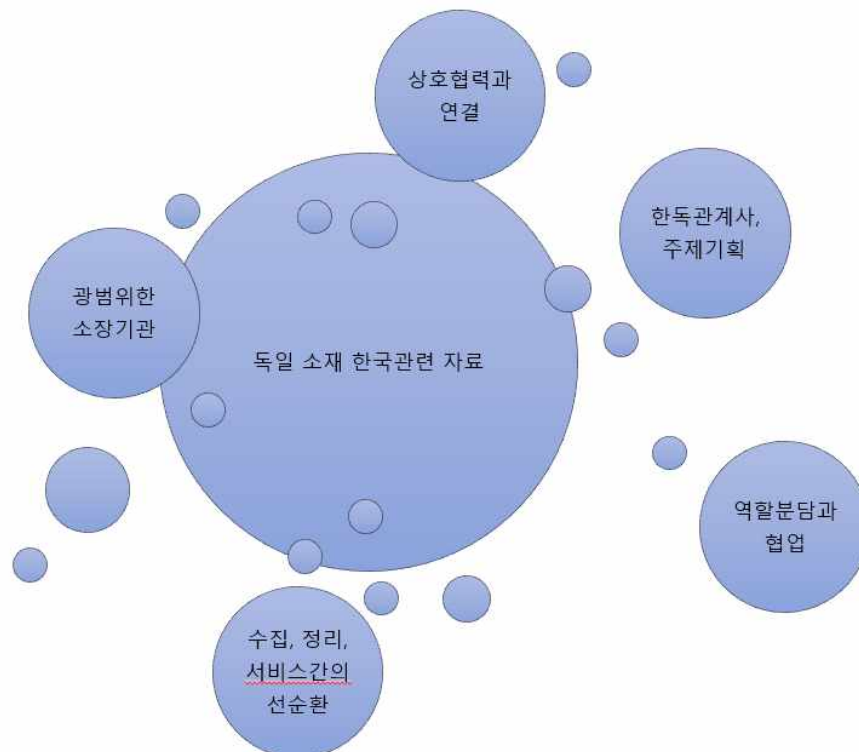
19) 관련 문건들을 보면, 비스바덴(Wiesbaden)의 독일연방범죄수사국(Bundeskriminalamt), 본(Bonn)의 연방법무성, 내무성, 외무성, 칼스루에(Karlsruhe)의 연방검찰청(Generalbundesanwalt), 본의 연방총리실, 연방대통령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경찰청 등이 긴밀히 사안의 조사와 처리에 대해 협조하고 있음(성상환 2020, 172)

3) 종합 및 시사점

- 수집대상 범주를 확인하기에는 기존 연구 성과가 개별적이고 파편적임
 -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현황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한독 관계사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개별적 ·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 내 한국 관련 소장기관은 몇 개의 연구주제로 한정해보아도 분산적으로 존재하므로 종합화된 접근이 필요함
 - 한정적이나 북한관련 비밀해제 사료, 동베를린 사건 관련 사료 현황을 검토하였을 때 독일 내 한국 관련 기록들은 연방-주-시 및 기타 등 다양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아카이브에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됨
- 수집단계에서부터 내용 전문가, 아키비스트 등 역할 분담과 협업이 필수적임
 - 수집할 자료를 선정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독일 관련 전공자, 서양사학자 등 기록 수집 · 정리 및 서비스에 있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협업이 필수임
 - 장차 한독관계사 연구범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집 주제를 개발하고 관련 기록을 생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기관 아카이브에 대한 계획적인 조사 및 수집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수집은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지를 고려해 진행하고, 수집 이후 정리 및 서비스(특히 주제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함
 - 수집 시 독일 아카이브 기관별 관리 맥락, 동질성을 갖는 기록집합 고유의 질서와 특징을 이해해야만 의미 있는 선별이 가능하고, 이러한 맥락정보를 기록화해서 정리 작업에 활용해야 함
 - 독일의 경우 두 개의 독일로 분리되었다가 통일된 역사를 갖고 있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아카이브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통합되면서 기록들의 이관이 이루어져 소장기관명, 번호체계 등의 질서가 복잡함
 - 수집 시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해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맥락정보화하고, 동질성 있는 기록집합들의 내용적, 유형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 내용은 수집된 이후 기록의 정리와 서비스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며, 장차 유관 기관 통합 서비스, 주제서비스 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국내 기 수집된 사례는 생각보다 광범위할 수 있고 상호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료 수집 유관기관 외에도 중 사업화된 수집 사례(고려대 아세아연구소, 통일연구원)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집 이후 체계적인 정리와 지속적인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한 기록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협력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도 필요함

[그림 21] 문헌 분석으로 살펴본 독일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의 이슈들



6.2.4.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아카이브 검색 포털 조사 결과

1) 독일 주요 아카이브 포털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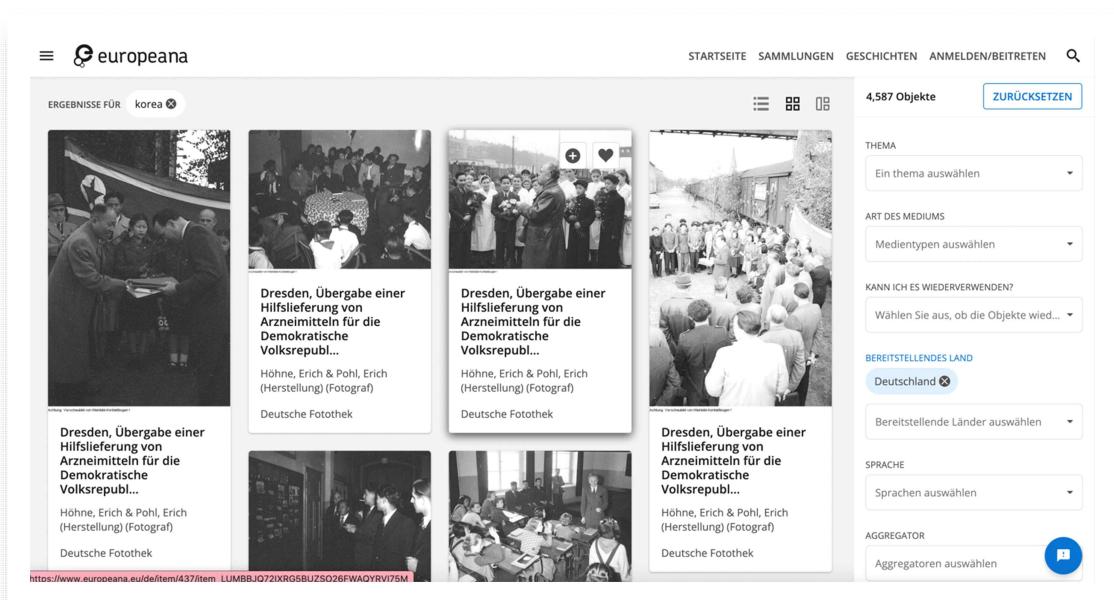
■ 유로피아나 (<https://www.europeana.eu/de>)

-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 기관 소유)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 예술, 정기간행물, 고고학, 패션, 학문, 스포츠 등에 대한 예술작품, 도서, 음악, 영상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사진, 텍스트, 음성, 비디오, 3D 형태를 다룸
- 각 유럽 국가 언어나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나 기록 메타데이터는 해당 자료의 국가 언어로 기술되어 있음

- 유로피아나에서 'Korea'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사진, 박물관, 문서류 등 확인 가능
- 'Korea' 검색 시 11,667건이 확인됨
- 테마, 매체유형, 사용가능성, 나라별 출처, 언어, Aggregator 기관, 기관, 색상, 세로, 가로형, 사진크기, 파일포맷, Copyright에 따라 선별 가능
- 테마로는 고고학, 1차 세계대전, 사진, 상업, 도면과 지리학, 예술, 매뉴스크립트, 이주, 패션, 음악, 자연역사, 스포츠, 신문이 있음
- 나라별 출처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유럽, 체코,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미국,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세르비아, 스위스, 아일랜드, 루마니아로 다양함
- Aggregator 기관은 German Digital Library, Swedish Open Cultural Heritage, Openup!, Archives Portal Europe, MUSEU, EUscreen, Heritage of the People's Europe, European Fashion Heritage Association, Dutch Collections for Europe, CARARE, Europeana Sounds, The European Film Gateway, Digital Libraries Federation, The European Library, MIMO-Musical Instrument Museums Online, eSbirky, Culture Institute of Barcelona, Hispana, Jewish Heritage Network, Rijksmuseum, EUInsideDA, National Library of France, Digitale Collectie, Estonian e-Repository and Conservation of Collections, PHOTOCONSORTIUM, Greek Aggregator SearchCulture.gr, EuropeanaPhotography, Kulturpool, Heritage plus.be, Czech Digital Library, Linked Heritage, Forum Hungaricum Non-profit Ltd., Europeana Food and Drink, Public Library Pencho Slaveykov, CulturalItalia, Wellcome Collection, Formula Aggreg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Open Access Publishing in European Networks Foundation, AthenaPlus LT-Aggregator Service National Library of Lithuania, DK-National Aggregation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bour History Institutions, Arts Council Norway, CultureGrid, MuseuMap, ESbirky, LoCloud, Cyprus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Catalonica, Europeana Foundation 으로 각 나라별 다양함
- 유로피아나는 유럽국가 위주의 문화유산을 이용자들이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화유산의 내용적 면으로는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는 그들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전세계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독일 디지털 도서관은 국가적 Aggregator를 제시함. 독일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독일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및 다른 문화 학문 기관들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유로피아나로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스탠다드와 필수요건들을 확정함
- 유럽은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유로피아나를 통한 전 세계적 문화유산의 통합과 접근성을 높임
- 디지털화와 컴퓨터 기술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이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포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향후 전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선두를 달릴 것으로 전망함

[그림 22] '유로피아나'에서 'Korea'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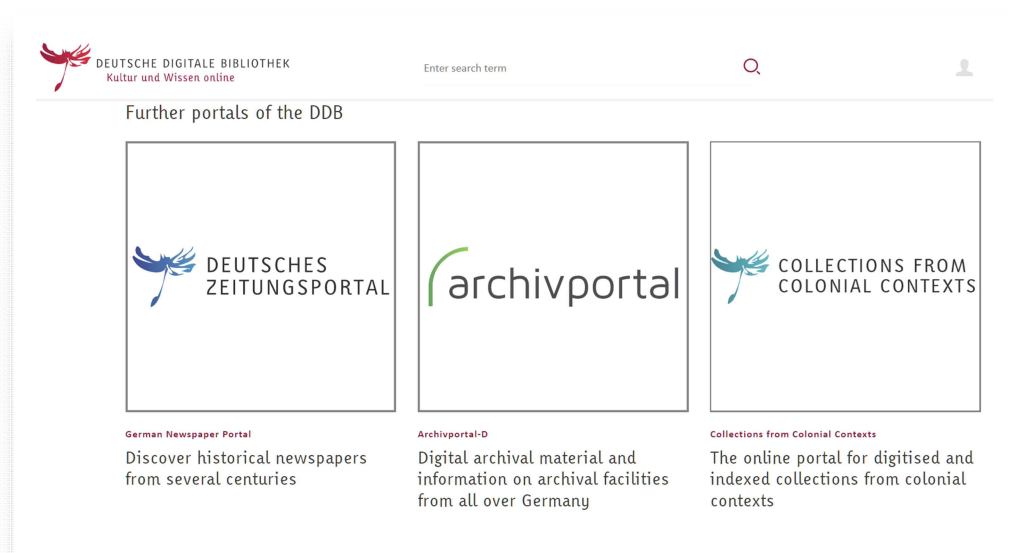


■ 독일 디지털 도서관(<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

- 독일 디지털 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 DDB)은 독일 내 디지털화된 문화 및 학문적 유산(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 보호, 연구기관 보유)들이 소장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시작된 '독일 연방, 주, 지방정부의 공동 프로젝트'임
- 2009년 설립을 결정한 이후 2012년 포털을 오픈했으며 560만 개체로 시작해, 2021년 5월 기준으로 500개 이상의 문화기관이 3,700만 개체에 대한 정보 혹은 디지털화된 원본 확인 가능(2022년 5월 기준 41,391,061개체 검색 가능)

- DDB는 독일 최대 문화시설 운영재단인 베를린의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금융, 법률,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문)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독일국립도서관(기술, 개발 및 서비스 센터 부문)에 있으며, 13개 문화 및 지식기관 네트워크(competence network)를 형성해 프로젝트 지원
- 독일 디지털 도서관에서 독일국립도서관은 기술 부문에서 URN, GND(Gemeinsame Normdatei, 공동 전거파일, 독일국립도서관이 운영하는 전거파일),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수행함. 또한 독일 국립도서관은 독일 디지털 도서관과 함께 Aggregator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GND를 모든 문화 분야로 확대하고, 분야와 자료유형에 종속되지 않는 PI서비스를 구축함
- 독일국립도서관은 DDBlabs 플랫폼을 제공함. 이 플랫폼을 통해 독일 디지털 도서관 중앙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외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웹호스팅을 할 수 있으며, 독일국립도서관 가상 서버인 Docker에서 운영됨
- 독일 디지털 도서관, 독일 국립도서관과 가상전시회 구축에 일조함
- 현재 국립 아카이브 및 신문 포털과 테마 포털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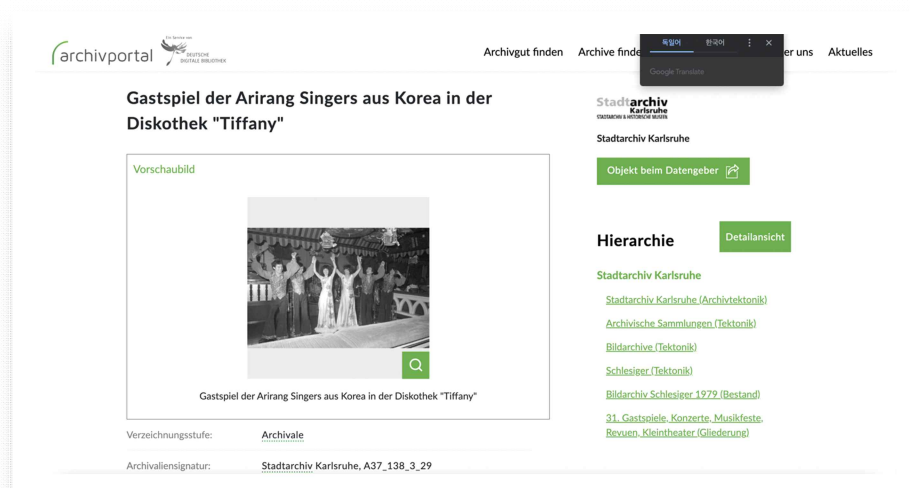
[그림 23] 독일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 독일아카이브포털 (<https://www.archivportal-d.de/>)

- 독일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은 독일내 220개 이상의 아카이브 기관의 기록 (144,000 기록군, 2,500만 개체)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 2012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독일 연구협회에서 진행된 독일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음
- 아카이브포털에서는 공공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브, 교회 아카이브, 영주 아카이브, 경제 아카이브, 의회 · 정당 · 재단 · 협회 아카이브, 미디어 아카이브, 대학 및 연구원 아카이브 및 기타 아카이브의 기록 검색 가능
- 'Korea'로 검색 시 3,074건이 확인됨
- '개신교 아카이브', '예술 아카데미', '여성을 위한 시간, 교육, 정보,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협회', 'MAX-PLANCK 협회 아카이브', '라이프니츠 현대동양, 도서관 수집', '여성 연구, 교육정보센터 협회', '독일여성운동 아카이브', '함부르크 여성도서관', '국제적 예술무역 중앙아카이브', '라이프니츠 지역 사회연구 학문 수집 연구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경제아카이브', '독일 베를린기술박물관 역사 아카이브' '프로이센 문화유산 비밀 국가아카이브' 등 연방 및 연방주 기록물을 제외하고 375건이 파악됨
- 예를 들어, 1979년 한국 아리랑 가수가 초청되어 독일 클럽 '티파니'에서 공연한 사진의 원본 소장처는 칼스루에 시립기록원이지만 독일아카이브포털 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함(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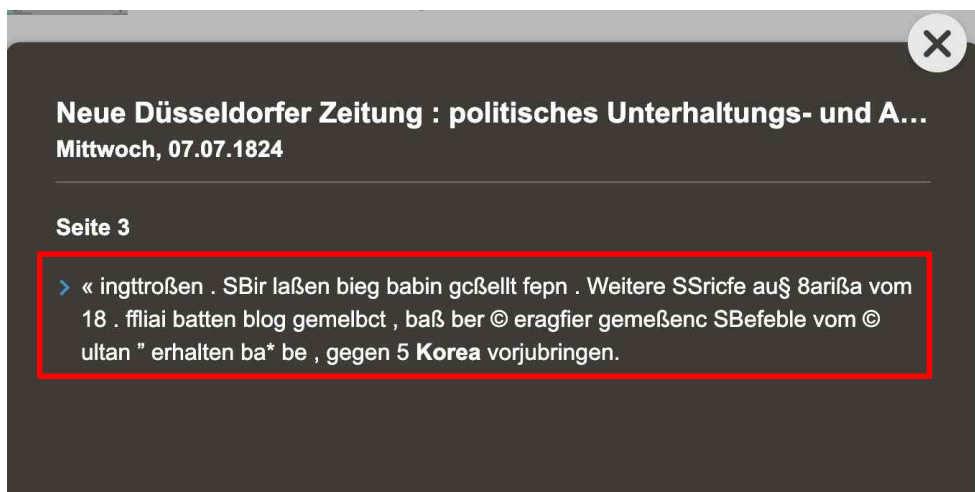
[그림 24] '독일아카이브포털' 검색 - 칼스루에 시립기록원 소장 한국 관련 기록



■ 독일 신문 포털 (<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newspaper>)

- ‘독일 디지털 도서관’에서 제작한 신문 포털로, 1671년부터 1950년대 신문을 디지털로 확인 가능
- 독일 신문 포털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총 34,360건의 신문기사가 결과로 나옴
- 한국 관련 신문기사를 발행한 신문사는 총 166곳으로 파악됨
- 독일신문포털 한국 검색 결과, 첫 신문기사는 1824년 7월 7일 신문기사임. 당시 신문기사가 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헌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옛 독일어와 역사를 제대로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임(참조: 그림25, 빨간 사각형 내 독일어는 고어로, 일반인은 해석이 어려움)
- 이러한 사유로 모든 신문기사에 나온 한국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려움

[그림 25] 독일신문포털에서 한국 관련 기록물 해제본



- 내용 면으로는 1800년대 중반에서 약 1900년까지는 한국에 대한 독일의 발견과, 한국에 대한 소개 정도의 신문기사가 있음
- 1900년 초반부터는 일제의 한국 탄압과 강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실림. 외중에 독일 수도사의 한국 예술에 대한 조사를 한 것에 대한 기사가 있음

[표 44] 독일신문포털 한국 관련 기사 정리(부록 11. 독일신문포털 한국 관련 기사 목록 참조)

신문사	내용	연도	신문기사 수	디지털화
새로운 뒤셀도르프 신문: 정치적	조선의 일본과의 거리, 조선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	1824-1837	5	○

담화와 고시				
칼스루에 신문		1830	913	○
출판 및 서점 관련 잡지		1835-1838	1	○
라이프치히 신문		1838-1841	1	○
국왕 신문: 경제 및 무역	조선과 조선 국민,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중 하나...(후략)	1839-1840	2986	○
Eibenstock과 그 주변의 관청 일간신문	일본을 통한 한국군의 강화/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한국...(후략)	1890-1914	238	○
제안된 그리고 찾고 있는 책 신문		1929-1931	5	○
노동자의 목소리: 독일 사회주의당, 사회주의국	컨퍼런스에서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후략)	1925-1932	63	○
베를린 경제신문: 일간/조간지	한국 영화관 화재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한국에서의 공산...(후략)	1872-1930	3969	○
하노버 특사, 하노버 주간신문			2696	○

■ 독일연방아카이브-필름아카이브

- 독일연방필름아카이브는 Transit Film과 Stibo DX회사에 위임하여 1945년부터 독
일연방아카이브 소장 필름기록물, 특히 언론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필름기
록물들이 대상임
- Transit Film은 약 600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이에 대한 기술(디스
크립션)을 하는 업무를 맡음. Stibo DX는 전세계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이용가능
하게 하고, 필름을 보존하는데 기여함
- 독일연방필름아카이브에서는 1945년부터의 영상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으로 검
색 시 207건이 확인됨
- 대부분의 영상이 독일 뉴스에서 보도한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26] 독일연방아카이브 필름아카이브 목록
(부록 8. 독일 연방 아카이브 한국 관련 기록물 목록 중 '독일 필름아카이브' 시트 참조)

연번	제목	부제목	내용	연도
1	불완전한 파라다이스		1950년 한국전쟁	1968
2	평화를 확실히 만들기	1969년부터의 독일 오	한국전쟁	1971
3	연방총리의 84번째 생일		한국 대사의 축하	1961
4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3/1955			1955-1994
5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96/1962			
6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34/1957			
7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124/1965			
8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213/1972			
9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230/1973			
10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236/1974			
11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285/1978			
12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300/1979			
13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350/1983			
14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341/1983			
15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409/1988			
16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434/1990			
17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457/1992			
18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483/1994			
19	도이치란트슈피겔 (Deutschlandspiegel) 483/1994			
20	조사한 시간(Die Zeit unter der Lupe) 788/1965		독일에서 활동중인 가타레 한국인, 베트남에 한국인을 보낸	1964-1965
21	조사한 시간(Die Zeit unter der Lupe) 789/1965			

2)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아카이브 포털 검색 방법

- 독일 전반에 걸친 한국 관련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과 독일 디지털 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에서 1차적으로 'Korea' 및 주제 키워드로 검색함
 - 독일의 다양한 아카이브(8개의 전문분야) 중 한국 관련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기관 아카이브 개별 검색도구를 활용해 세부적으로 검색하고자 함
 - 주제 키워드는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한독관계사 중 근·현대 기간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추출하였고, 국내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수집을 위해 기 수집된 기록 관련 키워드는 제외함

[표 45] 1차 검색에 사용한 주제 키워드

김중세 박사, 안봉근, 이미륵, 입양, 5.18 민주화운동, 김대중 구명 운동, 황석영 작가, 임수경 통일운동가, 베네딕트 수도원, 안호상, 유독학우회,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한국 유학생 장학금 수여 관련)

3) 검색 결과 및 시사점

- 해당 두 포털에 주제 키워드로 검색 시 검색결과가 없음
 - (사유 1)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의 키워드가 독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음
 - (사유 2) 한국식 이름의 영문·독어 번역이 번역자별로 다른 경우가 있음
- 이 외 문제점
 - 기관에 따라 제목만 적는 경우도 있고, 기술(description)을 상세하게 적는 경우가 있는 등, 독일 아카이브 기관의 기술(description) 수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통일성이 부족함
 - 목록만으로는 기록 내용 파악이 어려움. 목록과 기술(description)에 한국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검색 시 검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 경우 원본 확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큼
 - 포털 검색 시, 해당 기록의 기관 내 계층 확인이 어려움
 - (정리) 아카이브 포털을 이용하여 검색할 경우, 기록건별 정보 확인만 가능하며, 이는 시간 소모가 크고 목록화 작업 시 효율성이 떨어짐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별 계층과 기록시리즈/군을 확인하여 시리즈별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록화와 수집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됨

6.2.5. 연방주와 시에 초점을 둔 아카이브 성격별 검색

1) 주(州)와 시(市)를 구분해 접근한 검색 방법

- 1차 검색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문제점을 반영하여 2차적으로 연방주와 시를 구분하여 검색
 - 연방주와 시를 구분하여 검색함으로써 연방주 아카이브와 시 아카이브의 기관별 성격 차이를 반영
 - 연방주와 시의 경우 행정기관으로서 기록 계층 확인이 상대적으로 쉽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 시 한국 관련 기록 계층을 수집 요청할 수 있음
 - 연방과 연방주, 시 아카이브는 해당 연구를 위해 조사되었지만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에서 기독교와 개신교는 국립 주립이며, 해당 연구에서는 통합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음
 - 추가 연구 시 기독교 관련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2) Archinsys 아카이브정보시스템

- 2015년부터 시작된 웹기반 시스템
- 헤센주와 니더작센주를 위해 개발되어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아카이브기관의 기록이 링크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
- 2016년에는 슐레비히 홀슈타인 주립 아카이브가 협력에 동참했는데, 이 세 주립 아카이브는 최소 2025년 말까지 협력할 계획임
- 전자화되지 않은 기록의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물 보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독일 아카이브포털과의 차이점임
- 독일아카이브포털의 경우 각 기록이 어떤 기록철, 시리즈/군에 속하는지 각 기록건을 클릭해야 확인 가능하지만, Archinsys의 경우 검색 결과의 생산기관, 생산부서, 단위 과제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부록 10. 독일 주립 아카이브즈 내 한국 관련 기록물’의 ‘Archinsys 통합 포털’ 시트 참조)

3) 주립 아카이브

- 16개의 연방주 아카이브는 개별 사이트에서 기록 검색이 가능함
- 16개 연방주 아카이브에서 ‘Korea’로 검색했을 때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6] 16개 연방주 아카이브의 ‘Korea’ 검색 결과 정리

연번	연방주 아카이브	총 기록건	근·현대 생산 기록건	비고
1	바덴 뉘템베르크 아카이브	97	95	
2	바이언 아카이브	848	848	
3	베를린 아카이브	371	371	
4	브란덴부르크 아카이브	52	52	
5	브레멘 아카이브	93	85	Archinsys 포털: 브레멘과 니더작센 통합 아카이브 포털로, 해당 지역의 시 아카이브와 이외 8개 분야 아카이브 검색 가능
6	함부르크 아카이브	46	45	
7	헤센 아카이브	168	149	헤센 Archinsys포털: 헤센주 내 시 아카이브, 8개 분야 아카이브 검색 가능
8	메클렌부르크-포메른 아카이브	28	28	
9	니더작센 아카이브	93	93	브레멘, 니더작센 Archinsys포털
10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아카이브	10	8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아카이브 포털에서 시

연번	연방주 아카이브	총 기록건	근·현대 생산 기록건	비고
				아카이브 및 8개 분야 아카이브 검색 가능
11	라인란트팔츠 아카이브	21	21	
12	자란트 아카이브	확인불가	확인불가	현재 홈페이지 내 기술적 문제로 포털 검색 불가(기준일자: 2022.08.03)
13	작센 아카이브	88	87	
14	작센안할트 아카이브	27	27	
15	슐레비히 홀슈타인 아카이브	6	6	슐레비히 홀슈타인 Archinsys포털에서 시 아카이브 및 8개 분야 아카이브 검색 가능
16	튀링겐 아카이브	18	18	튀링겐 아카이브 포털에서 시 아카이브 검색 가능

- 독일 주립아카이브는 16개로, 모두 개별 홈페이지가 있어 직접 해당 아카이브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이 가능함
- ‘독일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이 아카이브기관의 모든 기록을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아카이브기관에 접속하여 검색을 해야 기관내 한국 관련 기록 파악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음
- 주립 아카이브 검색 결과,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을 가지고 있는 주는 브레멘, 니더작센, 헤센, 슐레비히 홀슈타인이며, 해당 아카이브 포털에 검색을 하면 해당 시립 아카이브와 8개 전문분야 아카이브 기관에 통합검색이 가능함
-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아카이브 포털 또한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

4) 시립 아카이브

- 독일 시립 아카이브의 경우 총 133곳이 파악됨(기준일자: 2022. 08. 13.)²⁰⁾.

[표 47] 독일 시립 아카이브 133개 정리

연번	연방주	시립 아카이브
1	바덴 뉘템베르크	Aalen 시립 아카이브
2		Ditzingen 시립 아카이브
3		Ellwangen 시립 아카이브
4		Eppingen 시립 아카이브
5		Esslingen 시립 아카이브
6		Freiburg 시립 아카이브

20) 위키피디아, 시립아카이브,
[https://de.wikipedia.org/wiki/Kategorie:Stadtarchiv_\(Baden-W%C3%BCrttemberg\)](https://de.wikipedia.org/wiki/Kategorie:Stadtarchiv_(Baden-W%C3%BCrttemberg)),
 검색일자: 2022.08.10

연번	연방주	시립 아카이브
7		Freudenberg 시립 아카이브
8		Heidenheim an der Brenz 시립 아카이브
9		Heilbronn 시립 아카이브
10		Karlsruhe 시립 아카이브
11		Kehl 시립 아카이브
12		Külsheim 시립 아카이브
13		Lörrach 시립 아카이브
14		Marchivum 시립 아카이브
15		Pforzheim 시립 아카이브
16		Reutlingen 시립 아카이브
17		Kapuzinerkloster Riedlingen 시립 아카이브
18		Rottweil 시립 아카이브
19		Schwäbisch Gmünd 시립 아카이브
20		Stuttgart 시립 아카이브
21		Ulm 시립 아카이브
22		Große Kreisstadt Wertheim 시립 아카이브
23		Wertheim 시립 아카이브
24		Überlingen 시립 아카이브
25	바이언	Marktarchiv Abtswind 시립 아카이브
26		Aschaffenburg 시립 아카이브
27		Augsburg 시립 아카이브
28		Bad Kissingen 시립 아카이브
29		Bad Neustadt an der Saale 시립 아카이브
30		Coburg 시립 아카이브
31		Freising 시립 아카이브
32		Hof 시립 아카이브
33		Kitzingen 시립 아카이브
34		Mellrichstadt 시립 아카이브
35		München 시립 아카이브
36		Nürnberg 시립 아카이브
37		Regensburg 시립 아카이브
38		Wasserburg am Inn 시립 아카이브
39		Würzburg 시립 아카이브
40	브란덴부르크	Frankfurt (Oder) 시립 아카이브
41	헤센	Darmstadt 시립 아카이브
42		Frankfurt am Main 시립 아카이브
43		Hungen 시립 아카이브
44		Kassel 시립 아카이브
45		Offenbach am Main 시립 아카이브
46		Wetter 시립 아카이브
47		Wiesbaden 시립 아카이브
48	브레멘	Bremerhaven 시립 아카이브 ²¹⁾
49	함부르크	Hamm 시립 아카이브 ²²⁾
50	메클렌부르크-포메른	Malchow 시립 아카이브
51		Rostock 시립 아카이브
52		Großherzoglicher Jägerhof 시립 아카이브
53		Schwerin 시립 아카이브
54		Stralsund 시립 아카이브
55	니더작센	Bad Lauterberg 시립 아카이브
56		Bassum 시립 아카이브

연번	연방주	시립 아카이브
57		Braunschweig 시립 아카이브
58		Celle 시립 아카이브
59		Cuxhaven 시립 아카이브
60		Diepholz 시립 아카이브
61		Einbeck 시립 아카이브
62		Emden 시립 아카이브
63		Garbsen 시립 아카이브
64		Göttingen 시립 아카이브
65		Hannover 시립 아카이브
66		Hildesheim 시립 아카이브
67		Oldenburg 시립 아카이브
68		Sulingen 시립 아카이브
69		Syke 시립 아카이브
70		Twistringen 시립 아카이브
71		Uelzen 시립 아카이브
72		Münden 시립 아카이브
73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Aachen 시립 아카이브
74		Bergisch Gladbach 시립 아카이브
75		Bochumer Zentrum für Stadtgeschichte 시립 아카이브
76		Arnsberg 시립 아카이브
77		Brilon 시립 아카이브
78		Dortmund 시립 아카이브
79		Duisburg 시립 아카이브
80		Haus der Essener Geschichte 시립 아카이브
81		Historisches Centrum Hagen 시립 아카이브
82		Hattingen 시립 아카이브
83		Hamm 시립 아카이브
84		Haus zum Spiegel 시립 아카이브
85		Herne 시립 아카이브
86		Iserlohn 시립 아카이브
87		Köln 시립 아카이브
88		Krefeld 시립 아카이브
89		Lippstadt 시립 아카이브
90		Minden 시립 아카이브
91		Mülheim an der Ruhr 시립 아카이브
92		Haus der Stadtgeschichte 시립 아카이브
93		Münster 시립 아카이브
94		Neuss 시립 아카이브
95		Recklinghausen 시립 아카이브
96		Rees 시립 아카이브
97		Remscheid 시립 아카이브
98		Solingen 시립 아카이브
99		Unna 시립 아카이브
100		Wesel 시립 아카이브
101		Wetter 시립 아카이브
102		Witten 시립 아카이브
103		Wuppertal 시립 아카이브
104	라인란트팔츠	Frankenthal (Pfalz) 시립 아카이브

연번	연방주	시립 아카이브
105		Koblenz 시립 아카이브
106		Mainz 시립 아카이브
107		Speyer 시립 아카이브
108		Worms 시립 아카이브
109	자란트	Blieskastel 시립 아카이브
110		Homburg 시립 아카이브
111		Neunkirchen 시립 아카이브
112		Saarbrücken 시립 아카이브
113		Saarlouis 시립 아카이브
114		St. Wendel 시립 아카이브
115		Völklingen 시립 아카이브
116	작센	Bautzen 시립 아카이브
117		Chemnitz 시립 아카이브
118		Dresden 시립 아카이브
119		Eilenburg 시립 아카이브
120		Freiberg 시립 아카이브
121		Kamenz 시립 아카이브
122		Leipzig 시립 아카이브
123		Plauen 시립 아카이브
124		Radebeul 시립 아카이브
125	작센안할트	Halle (Saale) 시립 아카이브
126		Zerbst 시립 아카이브
127	슐레비히 홀슈타인	Kiel 시립 아카이브
128		Lübeck 시립 아카이브
129		Wedel 시립 아카이브
130	튀링겐	Eisenach 시립 아카이브
131		Erfurt 시립 아카이브
132		Nordhausen 시립 아카이브
133		Weimar 시립 아카이브

- 시립 아카이브 중 개별 홈페이지나 개별 검색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
- 이에 상기 주립아카이브에서 확인되는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 검색을 통해 시립아카이브의 한국 관련 기록을 파악하고자 함
-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시립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8개 전문분야 아카이브도 함께 검색되는 이점이 있음. 또한 주에서 만든 포털이므로 해당 기록의 계층 확인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과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아카이브 포털에서의 검색을 통해 60곳의 독일 시립아카이브 검색이 주립 아카이브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
- 포털 통합검색이 불가능한 시립 아카이브는 73곳임. 검색되지 않는 아카이브의 홈페이지

21) 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 브레멘 시립 아카이브(기준일자: 2022.08.13.)

https://www.archivportal-d.de/struktur?filterValues=sector_sec_10&filterValues=state_Bremen&query=&offset=0

22) 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 함부르크 시립 아카이브(기준일자: 2022.08.13.)

https://www.archivportal-d.de/struktur?filterValues=sector_sec_10&filterValues=state_Hamburg&query=&offset=0

지 유무 및 검색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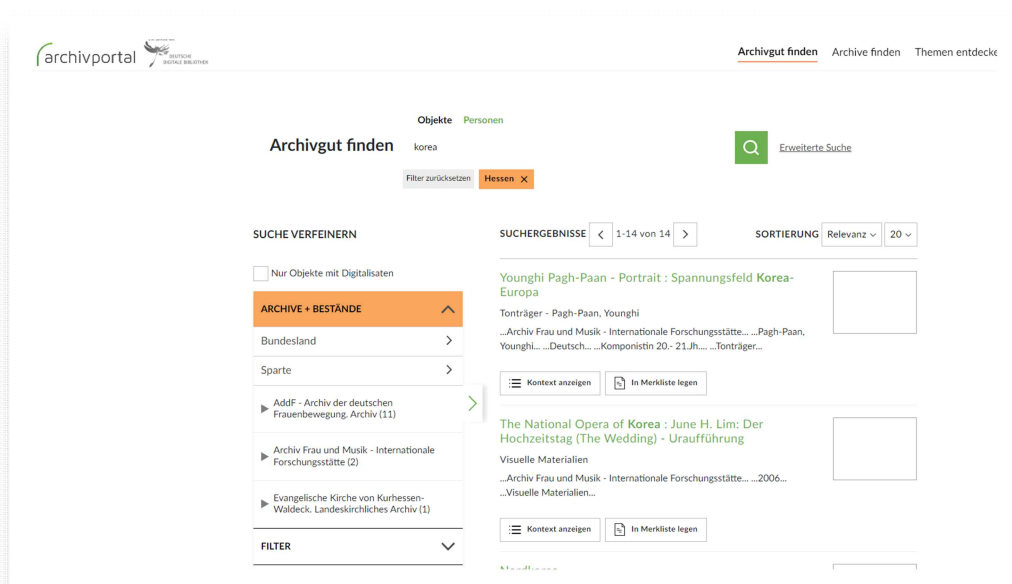
5) 한국 관련 자료 검색 결과 종합

- 다양한 독일 아카이브내 분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관련 자료들은 연방-주-시-기타 기관들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 유관기관들이 주력으로 수집한 연방기관에 관한 평가는 조사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할 예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수집이 미비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주 이하 기관 수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1차)** 주제 키워드를 활용해 아카이브 포털에서 검색하고, **(2차)** 그 결과를 통해 시사점 도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검색 방법을 정교화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 포털 통합검색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시립 아카이브 및 그 외 8개 전문분야 아카이브가 소장한 한국 관련 기록을 파악하는 방식이 기존 국내 유관기관이 취해온 수집 전략과의 차별점이며, 이러한 검색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기록의 파악과 수집이 가능함

6) 예시 : 헤센 주립 및 시립 아카이브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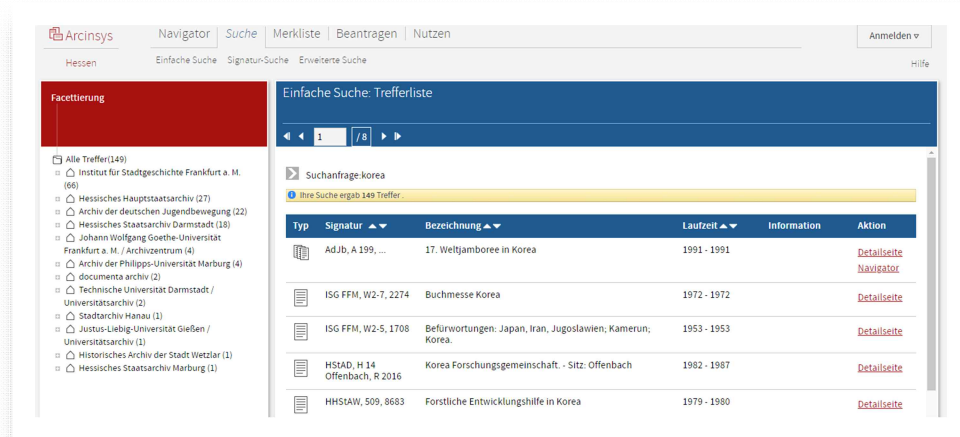
- 독일아카이브포털(Archivportal-D)에서 헤센주 선택 후, 'Korea' 검색 결과 14개의 기록이 확인됨(그림 27)

[그림 27] 독일아카이브포털에서 헤센주, 'Korea'검색 결과



- 헤센주 Archinsys 포털에서 'Korea' 검색 시 149건의 기록이 확인됨
- 화면 좌측에 헤센주립아카이브와 헤센주내 시립아카이브, 8개 전문 분야 아카이브별 한국 관련 기록의 건수와 각 기관 내 계층이 확인됨(그림 28)

[그림 28] 헤센주 Archinsys 포털에서 'Korea' 검색 결과



- 헤센주 Archinsys 아카이브 포털을 활용하여 ‘한국’을 검색한 결과, 12개의 아카이브 기관과 각 기관의 소장 기록 총 149건이 확인되며, 아래 예시로 이를 목록화하였음(표 48)
- 기록철별 내용 요약, 기록 유형, 연도, 기록건수 등을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설정하여 헤센주내 한국 관련 기록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표 48] 헤센주립아카이브, 시립아카이브 및 그 외 전문분야 아카이브 기관 한국 관련 소장기록 목록화(예시)
 (“부록 10. 독일 주립 아카이브즈 내 한국 관련 기록물”의 ‘Archinsys 통합 포털’ 시트 참조)

연번	소장기관	시리즈	기록철	철 내용	자료 유형	기록 건수	연도
1	헤센주립아카이브	509. 농업부	1.4.14 외국	한국 산림 개발원조, 한국과 독일의 산림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 참사관의 한국 방문, 독일과 한국의 산림경작 프로젝트 수행	문서	11	1979-1994
2	헤센주립아카이브	502. 주 정부 수상	2.2.2.1 외국 인사 방문	한국 대통령/장관 방문, 김대중 대통령 방문, 한국 원조를 위한 세계장로회 관련 문서	문서	4	1953-2000
3	헤센주립아카이브	3008. 일반 사진컬렉션	1.7.4.1.4.31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사진, 김대중 대통령 필라델피아에서의 표창 사진 등	사진	4	2000
4	헤센주립아카이브	128. 기록물	2.7.2.5 와인판매	유럽 외 지역 수출, Suntory Limited와 협력	문서	2	1981-1993
5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시 역사연구소	V18 프랑크푸르트 시민교육 연맹	4.2 아시아영화의 주	아시아영화주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 영화 대출, 질의와 답변 작성, 인쇄물 등	문서	14	1958-1967
6	독일 청년운동 아카이브			한국국제소년단대회, 해외 보이스카우트 간행물 컬렉션	문서, 박물관	22	1975-1991
7	헤센 다름슈타트 시립 아카이브	H1. 다름슈타트 시장		비자업무, 유럽 외 국가 외국인 교육 증명, 외국인법	문서	3	1989-2009

6.2.6. 독일 관련 국내 유관기관 기 수집 현황 분석

1)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는 베를린 소재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프라이부르크 분원, 코블렌츠 소재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독일 연방 외무성 정치기록보관소, 독일 뮌스터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기록과 개인 소장 자료를 수집함
 - 베를린 소재 독일 연방기록보존소에서 1945년 이후 동독 소장 북한 관련 기록(구동독 정부 내각평의회, 구동독 독일자유청년단,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자유독일노동총연맹 생산 기록)과 동독 전 총리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유고 중 북한 관련 기록들을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전후 북한 함흥시 재건 지원 사업, 외교조약, 경제, 학문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무역, 세계청년축전, 8월 종파사건, 중소 분쟁, 군사 및 문화적 교류, 친선 교류 등
 -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프라이부르크 분원에서 서독 정부 기록을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1972-73년도 서독과 남한의 관계, 경제원조, 협력, 파독 간호사, 광부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코블렌츠 소재 독일 연방기록보존소에서 소장되어 있는 구서독 기록 중 남한과 관련된 기록(구서독 연방대통령실, 연방총리실, 연방 경제부, 연방 노동부, 연방 경제협력부 생산 기록)을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동백림 사건, 파독 간호사, 광부, 남한과의 기술, 재정 지원, 경제교류협력 내용을 포함함
 - 독일 연방 외무성 정치기록보관소는 구서독, 구동독의 정치외교문서들을 소장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구서독 외무부 정치문서 중 독일 외교관인 콘라드 아담 레오폴드 폰 살데른(Conrad Adam Leopold von Saldern) 컬렉션에 남한 관련 기록이 존재하며, 특히 외교관계, 한국전쟁, 남한 정치와 경제, 동백림 사건, 직업 교육 관련 내용들을 포함함. 구동독 외무부 정치문서에는 극동국 한국과, 중국과, 몽골과, 장관국, 차관국, 본부국, 서독국, 소련국, 사회주의 제국과, 스웨덴과, 북유럽국 핀란드과, 동남부유럽국 조약국과, 라틴아메리카국, 대외 정보국, 국제기구국, 문화국, 대외 문화 관계국, 언론국, 언론 및 정보국, 의전국, 법률 및 조약국, 유네스코국, 사무국, 평양주재대사관, 북경주

재대사관, 모스크바 주재대사관, 바르샤바 주재 대사관 등에서 생산된 문서
중 북한 관련 기록을 선별·수집하였음

- 독일 뮌스터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단행본, 보고서, 여행기를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막스 폰 브란트(Max von Brandt)는 33년 동안의 동아시아에서의 외교관 생활을 3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중 세 번째 책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 이를 수집함. 이 외에도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들의 여행기록이나 보고서를 수집함
- 개인소장자료로는 유럽신문(구주신문) 제1호(1981.12.01.) ~ 유럽신문 제 56호(1998.07.15.) 수집

[표 49] 국사편찬위원회 - 독일 소재 한국 관련 기록 수집 현황

소장기관	수집 기록	생산 연도	생산기관	내용
독일연방기록보존소 (베를린 소재)	- 1945년 이후 동독 소장 북한 관련 기록 - 동독 전 총리들의 유고 중 북한 관련 기록	1950 ~ 1990	- 구동독 정부 내각평의회 - 구동독 독일자유청년단 - 구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 자유독일노동총연맹	- 전후 북한 함흥시 재건 지원 사업 - 외교조약 - 경제, 학문 및 기술 분야 협력사업 - 무역 - 세계청년축전 - 8월 종파사건 - 중소분쟁 - 군사 및 문화적 교류 - 친선 교류 등
독일연방기록보존소 (코블렌츠 소재)	구서독 기록 중 남한 관련 기록	1955 ~ 1967	- 구서독 연방대통령실 - 구서독 연방총리실 - 구서독 연방경제부 - 구서독 연방노동부 - 구서독 연방 경제협력부	- 동백림 사건 - 파독 간호사, 광부 - 남한과의 기술, 경제 지원 - 경제교류협력
독일연방기록보존소 (프라이부르크)	서독 정부 기록 중 남한 관련 기록	1972 ~ 1973	- 서독 국방부 - 서독 군 기관	- 서독과 남한 관계 - 경제원조 - 파독 간호사, 광부
독일연방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	- 구서독 외무부 기록 중 남한 관련 기록 - 구동독 외무부 기록 중 북한 관련 기록	1874 ~ 1979	- 구서독 외무부 - 구동독 외무부	- 구서독 외교관 컬렉션 - 구서독: 외교관계, 한국전쟁, 남한 정치와 경제, 동백림사건, 직업교육 구동독: 아시아 관련 과의 북한 관련 생산 문서, 공산주의 국가 주재 대사관 생산 문서
독일 뮌스터대학 도서관	한국 관련 단행본, 보고서, 여행기	1884 ~ 1995	개인	- 주중공사 독일 외교관의 한국 관련 단행본 - 한국 방문 독일인의 여행 기록, 보고서

소장기관	수집 기록	생산 연도	생산기관	내용
개인 소장 자료	월간정기간행물	1981 ~ 1998	유럽신문(구주신문)	원문은 기관내에서만 확인 가능

2)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은 독일 훔볼트대학교 기록보존소, 독일병원협회, 베를린 소재 독일 연방 기록보존소, 독일 연방 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에서 한국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독일 광산기록보존소, 독일 뉴스필름아카이브, 독일 사회운동기록보존소에서 기록을 수집하였지만, 상세한 기록물 목록은 온라인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분석 및 파악이 어려움
- 독일 훔볼트대학교 기록보존소에서 1924년에서 1928년까지 생산된 기록 중 수업 참가자 명단, 방학수업과정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독일병원협회에서 1961년도~1990년도에 생산된 기록 수집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뒤셀도르프 한인학교협회, 한국 간호인력, 내독근로자 가족결합 신청, 한국출신 간호원 요청, 독일병원협회와 한국해외개발공사간 양해각서 등으로 이루어짐
- 베를린 소재 독일 연방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기록은 구동독에서 1941~1980년에 생산된 문서로, 북한 관련 기록들로 이루어짐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북한 구호활동, 독일민주여성동맹의 북한 구호, 북한 사회안전부 사절단의 동독 체류, 동독과 북한간 물품 공급, 무역협정, 함흥독 일기술단, 함흥 복구 등
- 독일 연방 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에서 1951~1970년대에 생산된 기록을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한국내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 독일 선교사들의 원조 활동, 서독 거주 한국인들의 강제송환
- 독일 원 기록물건번호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구동독 기록물 군에서 관련 기록물중 국가기록원 수집 내용을 담은 기록물을 제외하고 수집함을 제안함(부록 8. 독일 연방 아카이브 한국 관련 기록물 목록 중 ‘독일 연방 아카이브’ 참조)

[표 50] 국가기록원 한국 관련 독일 기록 수집 현황

소장기관	수집 기록	생산연도	생산기관	내용
독일연방기록보존소 (베를린 소재)	구동독 생산 문서로 북한 관련 기록	1941 ~ 1980	확인불가	- 북한 구호활동 - 북한 사회안전부 사절단의 동독 체류 - 동독과 북한 간 물품 공급 - 무역협정 - 함흥독일기술단, 함흥복구
독일연방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	구서독 외무부 기록 중 남한 관련 기록	1951 ~ 1970	구서독 외무부	- 한국내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 - 독일 선교사 원조활동 - 서독 거주 한국인 강제송환
독일 훔볼트대학교 기록보존소	독일 훔볼트대학교 기록 중 한국 관련 기록	1924 ~ 1928	독일 훔볼트대학교	- 수업 참가자 명단 - 방학수업과정 관련 자료
독일병원협회	구서독 병원협회 기록 중 남한 관련 기록	1961 ~ 1990	독일병원협회	- 뒤셀도르프 한인학교협회 - 한국간호인력 - 내독근로자 가족결합신청 - 한국출신 간호원 요청 - 한국해외개발공공간 양해각서

3)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독일연방 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 소장 기록 중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1910년부터 1935년 생산된 기록을 수집함
 - (수집 기록 내용 요약) 일본식민지 시기 한일 관계, 한국 상황, 각국 영사와 대사들의 보고서, 일본 · 미국 · 독일 신문기사 중 한국과 관련된 신문기사, 일본에서의 한국인 대학살, 한인 만주 이주, 항일운동, 순종의 장례 등으로 이루어짐

[표 51] 국가보훈처 한국 관련 독일 기록 수집 현황

소장기관	수집 기록	생산연도	생산기관	내용
독일연방외무성 정치기록보존소	한국독립운동 관련 기록	1910~1935	독일 외무부	-일본식민지 시기 한국과 일본 관계 -각 나라 영사, 대사들의 보고서 -일본, 미국, 독일 신문기사 -일본에서의 한국인 대학살 -한인 만주 이주 -항일운동 -순종 장례

6.2.7.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한국 관련 기록물

- 독일 연방기록보존소 내 한국 관련 기록물은 ‘독일제국(1871~1945)’, 서유럽연합 점령지대 독일(1945~1947), ‘소련 점령 동독(1945~1990)’, ‘유고 및 수집’, ‘필름, 필름 관련 자료’ 컬렉션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에서 기수집된 독일의 한국 관련 목록과 비교 결과, ‘독일제국(1871~1945)’컬렉션에서 수집된 한국 기록물은 파악되지 않음
- ‘독일제국(1871~1945)’컬렉션 내 한국관련 기록물은 독일제국 외무부, 내무부, 공공규칙 감독을 위한 독일제국 위원회, 보안중앙청, 법무부, 특허청, 재무부, 독일제국은행, 경제부, 체신부, 프로이센 군, 해군, 독일 해외학문연구소, 기술과 시설, 나치당 구성과 관련 협회, 독일 외국연구소, 독일 학생회 기록군과 하위기록군에서 확인 가능함
- ‘서유럽연합 점령지대 독일’ 컬렉션 내 기록물 중 연방대통령실, 연방총리실, 연방경제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 독일연방국방부, 연방 노동사회질서부의 기록물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수집됨
- 서독연방대통령실 기록물 중 한국관련 기록물은 총 14건으로 확인되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8건의 기록물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됨
- 서독연방총리실 기록물 중 한국관련 기록물은 총 41건으로 파악되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2건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됨
- 서독연방경제부의 한국관련 기록물은 총 68건으로,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는 24건을 수집함
- 서독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경우 총 178건 한국관련 기록물을 보존되어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42건 기록물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됨
- 서독연방국방부의 한국관련 기록물은 총 38건으로 파악됨. 이 중 국사편찬위원회는 3건을 수집함
- 서독연방노동사회질서부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는 23건의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서독연방노동사회질서부의 한국 관련 기록물을 모두 수집한 것으로 파악됨
- 동독 기록물 중, 동독 내각 평의회,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독일 자유 청소년, 동독 국민친교 리그 기록군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였음
- 동독내각평의회 한국 관련 기록물 총 104건 중 79건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함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한국 관련 기록물 총 408건 중 104건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함
- 독일자유청소년 기록군의 경우 27건 중 11건을, 동독 국민친교리그의 경우 2건 중 모두 수집된 것으로 파악됨
-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의 경우 총 57건 중 3건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됨
- 유고 및 수집 컬렉션에서는 오토 그로테볼, 발터 울브리히트, 로테 울브리히트의 유고 중 한국 관련 기록물은 모두 수집된 것으로 파악됨
- 부록에 수록된 연방아카이브 소장 한국관련기록물 중 한국 타 기관에서 기 수집된 기록물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 하위기록군 혹은 시리즈 별로 작성되어 있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군/시리즈 번호를 토대로 수집할 것을 권장함

[그림 29] 독일연방아카이브내 한국 관련 기록물 현황

독일 연방아카이브내 한국 관련 기록물 목록						
연번	컬렉션	하위 컬렉션	기록군	하위기록군	시리즈	기록물건수
1	독일제국(1871-1945)(109건)	외교관련, 식민지와 점령지역 관리	R 901 외무부	6 R 901 외무부, 무역정책부(1869-1920)		14
2				15 R 901 외무부, 법무부(1885-1945)		1
3		내무부, 보건, 경찰, 나치, 민족성	R 1501 독일제국 내무부	9 외국과의 관계		2
4			R 1507 공공규칙 감독을 위한 독일자	24 외국		1
5			R 58 독일제국 보안중앙청	8 외국에서의 소식 입수		1
6		법	R 3001 법무부	일반문서		1
7			R 131 특허청	1 일반문서		7
8		재정, 건축 및 도시계획	R 2 재무부	9 R 2 재무부		1
9			R 2501 독일 제국 은행	1 경제 통계부		59
10		경제, 군비, 농업	R 3101 경제부	2 수입, 수출, 통항		1
11			R 907 업무보고	2 외국		1
12		체신, 교통	R 4701 체신부	1 베를린 부		1
13		군	프로이센 군 1867-1918/1919	중앙관청		1
14				산하기관		1
15			프로이센 해군 1849-1918/1919	중앙관청		4
16				Gouvernement Klautschou		1
17			국방군과 국방력 1919-1945/1946	해군과 전쟁해군		1
18		문화, 학문, 프로파간다	R 4902 독일 해외학문연구소	3 외국		1
19			R 1519 기술 시설	2 크기와 중량		1

6.3. 베트남

6.3.1. 베트남 주요 아카이브 개황

- 베트남 국립 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 (소재지) 31 Tràng Thi, Trần Hưng Đạo, Hoàn Kiếm, Hà Nội, 베트남
 -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도서, 잡지, 신문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음
 - (온라인) OPAC | Tra cứu tài liệu tại 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nlv.gov.vn)를 통해 도서관 내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음
 - Keyword를 제시하여 문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불가하며 자료의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0] 베트남 국립도서관 전자 자료 검색 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OPAC search interfa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Vietnam. The header includes the library's logo and the text "OPAC | TRA CỨU TÀI LIỆU" and "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The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Hàn Quốc" and a search button labeled "Q. Tìm kiếm". Below the search bar, it displays "Tìm thấy 13043 Kết quả" (Found 13043 results) and "Tổng số 918323" (Total 918323). The interface also shows a sidebar with "Số ấn phẩm" (Number of items) and "Hướng dẫn tra cứu" (Search guide).

- 호치민 종합 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
 - (소재지) 69 Lý Tự Trọng, Phường Bến Thành,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베트남
 - (온라인) 직접 방문하여 도서, 잡지, 신문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음
 - (오프라인) <https://phucvu.thuvientphcm.gov.vn/>를 통해 도서관 내 자료 검색 가능
 - 그러나 전자 검색은 현대의 도서류가 많고 자세한 자료 검색은 어려움이 있음. 검색은 도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볼 수는 없음
 - 주요 자료인 신문과 관련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며 열람이 쉽지 않음

[그림 31] 호치민 종합 도서관 전자 자료 검색 사이트



■ 베트남 국립 자료 보관소(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 베트남에는 제1, 2, 3, 4 국립자료보관소가 있으며 각각 시기별·지역별로 자료를 나누어 보관하고 있음
- 베트남은 아직 기록의 전산화/전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열람 역시 용이하지 않음(제2 보관소의 경우 전자 검색 가능)
- 하노이 소재 제3 베트남국립자료보관소(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는 1995년에 세워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보관소임
- 제3 베트남국립자료보관소의 기록계층은 문서군 > 폴더(Folder, 서류철)로 구성
- 전산화 미비로 자료목록집(Index Book)이 보편적으로 사용됨
 - 찾고자 하는 문서군의 목록집에서 폴더(Folder)의 제목으로 찾고 직접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열람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
 - 제3 보관소의 경우 베트남 내무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료 열람이 제한됨

[표 52] 베트남 국립자료보관소 개괄

	1자료보관소	2자료보관소	3자료보관소	4자료보관소
	베트남 북중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 북중부	베트남 중·남중부
자료가 포괄하는 지역	꽝 빙(Quảng Bình)성부터 북쪽 지역까지	동 나이(Đồng Nai)성부터 남쪽 지역까지	꽝 빙(Quảng Bình)성부터 북쪽 지역까지	꽝짜(Quảng Trị)성부터 빙투언(Bình Thuận)과 떠이응우옌(Tây Nguyên) 지역까지
시기	봉건왕조 ~ 1945년 이전 시기	봉건왕조 ~ 현재	1945년 이후 ~ 현재	고대 ~ 1945년 이전 시기
소재지	하노이	호치민	하노이	다랏

6.3.2. 한-베(韓-越) 관계사

1) 조선 - 베트남 떠이썬 왕조

- 박제가와 판후이익이 주고받은 한시 2편
 - 베트남 떠이썬(西山)왕조 시기, 당대 베트남 학자인 레꾸이돈과 판후이익이 청나라 사신으로 왔을 때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와 주고받았던 한시 2편이 판후이익의 문고에서 최근 발견됨
 - 한국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박제가의 『貞齋閣全集』, 『楚亭集』 등에서 베트남 사신과의 조우를 언급하는 등 자료가 남아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음
 - 이번 발견은 그간 한국에만 있던 내용의 기록이 베트남에서도 발견되어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양국간의 교류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사료의 발굴이라고 여겨짐

2) 떠이썬 왕조 이후의 한-베 관련 기록

- 박제가 - 판후이익이 주고받은 한시가 조선과 베트남의 왕조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마지막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후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 시기를 거쳐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시기가 나타나면서부터 베트남에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보이는 자료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음

3) 조선시대의 베트남 관련 기록

-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중 「외국조」를 통해 베트남을 접하게 되고, 이후 베트남과 관련된 다른 서적들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 또한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베트남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현존하지 않지만 『南交繹考』을 펴냈는데 이 책에는 한국과 베트남간의 접촉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전해짐
- 표류하여 베트남으로 갔다 제주도로 귀환한 21명의 행적과 귀향 여정에 대해 황윤석의 『頓齋亂藁』, 박지원의 『三韓叢書』, 정동유의 『晝永編』에서 기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당시 베트남의 레 왕조 남북 분열시기 중 응우옌 주가 다스리던 푸쑤언(지금의 후에)에 조선인들이 머물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황윤석의 저서에는 베트남의 언어(쯔놈)에 대한 기록이 있는 등 당시 베트남의 생활문화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전해짐

4) 19세기 조선의 베트남 연구

- 19세기에 들어서 이전의 연구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됨
- 최한기는 그의 저서 『推測錄』에서 베트남을 중국, 조선, 일본과 함께 유교를 신봉하는 국가로 인식하며, 베트남을 ‘동아시아’에 편입시키는 인식을 최초로 함
-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는 과정을 조선에서도 인식하였으며, 박규수가 1874년 6월 조정에서 洋夷, 즉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한 일을 들며 그 나라에 대해 병탄했다는 이야기가 『承政院日記』에 전해지고 있음
- 『承政院日記』에는 1885년 고종이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에게 베트남의 정세를 묻고, 당시 1885년 7월 있던 베트남의 프랑스에 대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점이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객중석이 올린 상소문에 “이제 폐하께서는 안남의 국왕과 같이 빈 호칭만 갖고 있게 된다”고 쓴 기록이 있음
- 당시 개항 전후의 조선에서는 베트남의 정세를 주시하고, 베트남의 사정을 조선의 미래와 동일시하며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음

5) 베트남내 한-베 관련 자료

-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떠이썬 왕조 이후 양국의 교류와 관련한 자료가 소략한 편임
- 특히 19세기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편임
 - 이후 베트남은 근대화 과정과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자료가 많이 소실되거나 기록들이 타국으로 유출되면서 당시의 기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임
 - 베트남의 식민지 과정에서 베트남인의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여겨지는 쯔놈(베트남의 고유 문자 표기법, 우리의 ‘이두’와 유사함)으로 된 기록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해석이 다소 어렵다는 점이 한계임
- 근현대 한-베 관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베트남의 국립자료보관소에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의 전산화/전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열람이 어려움

6.3.3. 베트남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분석

- 베트남전쟁 관련 기록은 제2, 3 자료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음
- 국립자료보관소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시기,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 시기,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개인 또는 기관의 활동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음
- 베트남전쟁 관련 자료들은 그 양이 상당하며,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됨

1) 제3 자료보관소(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3)

- 제3 자료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베트남전쟁 관련 기록 중에는 북한 관련 기록이 더 많은데, 베트남 정부와 북한정부의 합작 및 양국관계에 대한 자료는 약 500폴더가 있다고 전해짐
- 기록물의 구조는 ‘문서(hồ sơ)’와 ‘서류(văn bản)’로 나뉘며, 서류에는 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문서들로 구성됨
 - 각각의 문서군은 발행처, 주제별로 나뉨
 - (국가주석) 1997년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총리관저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된 자료 등
 -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①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과 관련된 교류 활동 문서, ② 여러 분야의 기술 협력 및 무역과 교류에 관한 문서(계획안, 협약 체결과 관련한 협정서 등) ③ 무역 관련, 계획서 및 체결 협정서 등 ④ 행정기록 관련 서류증, 각 단체의 시찰과 관련한 문서 및 보고, 공적이 있는 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관한 자료 등
 - (행정기록 부문) ① 북한 주민의 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그 연장 관련 문서, ② 북한과 북베트남의 지도, ③ 양국의 단체 및 조직들의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 ④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에게 도움을 준 북한인에 대한 훈장 수여 제의 및 그와 관련된 문서(1960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4년), ⑤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관련 지원금 및 상품 관련 보고서 등
 - (‘국회(Quốc hội)’ 및 산하기관 문서군) 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最高人民會議)와 북베트남 국회의원간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서, ② 북베트남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사이 교환한 문서, 편지 등과 한반도 통일 문제와 한반도에 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된 자료(한글 작성)

- 정치계 상호 방문 및 시찰과 관련한 문서, 정치와 연관되는 각종 사건(전쟁, 평화협정 등)과 관련한 자료 등
-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전쟁 당시 파견된 외국인 전문가(북한에서 파견된)의 활동 및 성과와 생활에 대한 자료
- (정부사무소 /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 각 분야(농업, 수산업, 과학 등)의 활동과 국가간 협약 등. 주로 1950년부터 1975년까지의 과학기술, 농업 부문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력 및 활동에 대한 자료
- 이외에 각각 지역별 행정 위원회와 함께 문화, 관광, 교육 관련 부서들이 있음

2) 제2 자료보관소(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2)

- 베트남공화국(전시 남베트남정부, 1955~1975년)의 활동 관련 자료보관소
- 제3국립자료보관소와 동일하게 자료는 서류(hồ sơ)와 문서(văn bản)로 나뉨
-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관계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 제2 베트남국립자료보관소 자료 구성도 제3 보관소와 유사하지만 이곳은 전자 검색이 가능하며, 북부에 비해 자료 열람 범위가 더 넓음
- 제2 자료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베트남전쟁기 남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경제-군사 관계에 대한 대표적 문서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약 300폴더가 있으며,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각각 배치됨
-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남베트남의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정치 자료를 포함함. 이 중 베트남전쟁기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① 1965~1973년 한국 군대의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군과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및 한국군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등, ② 행정 관련 1950년대 후반~1975년 한국인의 남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연장 보고서, ③ 경제 교류 관련 1950년대 후반~1975년 농업, 은행, 건설 분야 등에서 남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보고서 및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기술 협력 조약문, ④ 외교 및 정치 관련 1950년대 후반~1975년까지의 남베트남과 한국의 개인, 단체, 조직들 간 방문 및 시찰 현황 보고서, ⑤ 1964~ 1967년 한국과 남베트남이 참여한 아시아 반공연맹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한국 관련 자료들은 ① 1957년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 ②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 보고서, ③ 1956년부터 1960년까지 남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 대통령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 등이 포함됨
- (‘국가지도위원회(Uỷ ban lãnh đạo Quốc gia)’ 문서군) ① 1965~1967년 사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 군대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의 군대와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한국군에 대한 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임. ② 외교·정치 부문에서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에 대한 보고서, 1966년 한국 민주당 총재 박순천과 대변인 김대중의 남베트남 전선 방문에 대한 보고서
-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① 정치 외교 관련 1967~1975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보고서, 1969년 남베트남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 1968~1969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심리전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서, 1968~1974년 한국의 정치 상황 및 대외 정책 관련 보고서(한국의 정치상황, 반정부시위, 한미관계 문제, 남북한 관계 문제 등), ②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 관련, 1967~1973년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활동과 철수를 다룬 보고서 9편, ③ 경제 관련 1967~1975년 농업, 은행,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 문서 및 보고서
- 이외에도 영상/사진 자료와 Bộ cuộc Thực phẩm Quốc gia(1966-1975) : 1966~1975년 식품국(식량 운송 건), Nha sinh hoạt quốc tế(1953-1975) : 1953~1975년 문화 교류 관련 자료, Tổng Nha Quan thuế (1902-1975) ; 양국 간 세금 문제 관련 자료 등이 있음
- 자세한 문서군은 [부록 3] ‘베트남 제2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목록’ 내 ‘분류’ 시트 참조

6.3.4.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아카이브 포털 검색 방법

- (주요 키워드) Hàn Quốc(한국), Đại Hàn(대한민국), Triều Tiên(북한, 조선) 등 각 시기별 한국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집함
- Triều Tiên(조선)의 경우 북한과 남한의 의미를 가지므로 상세한 내용 조사가 바

탕이 되어야 함. 보통 Triều Tiên은 ‘북한’, Nam Triều Tiên이 ‘남한’을 뜻함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3] 베트남 아카이브 포털 검색 키워드

언어	원문	한글
베트남어	Hàn Quốc	한국
	Đại Hàn	한국, 대한민국
	Triều Tiên	한국, 조선, 북조선, 북한
	Nam Triều Tiên	한국, 남한
	Đại Hàn dân quốc	대한민국
	Bắc Triều tiên	북한
영어	Korea	한국

■ 하노이 국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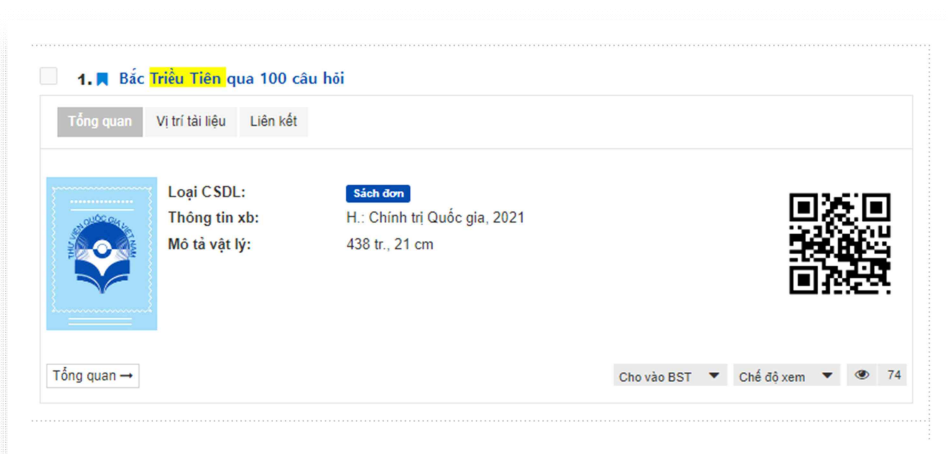
- 키워드별 검색 결과

[표 54] 하노이 국립도서관 키워드별 검색 결과

검색 키워드	Hàn Quốc	Đại Hàn	Triều Tiên
검색 결과(수)	13,043개	4,389개	1,338개
유형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류가 주로 검색됨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류가 주로 검색됨	사진이나 지도 자료가 2개 검색됨

- (소결) 자료 검색 시 키워드 인식이 잘 되지 않아 관련 없는 자료가 결과값에 포함되며,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전산 상으로 확인이 불가함

[그림 32] 하노이 국립 도서관에서 ‘Triều Tiên’으로 검색한 결과



■ 호치민 종합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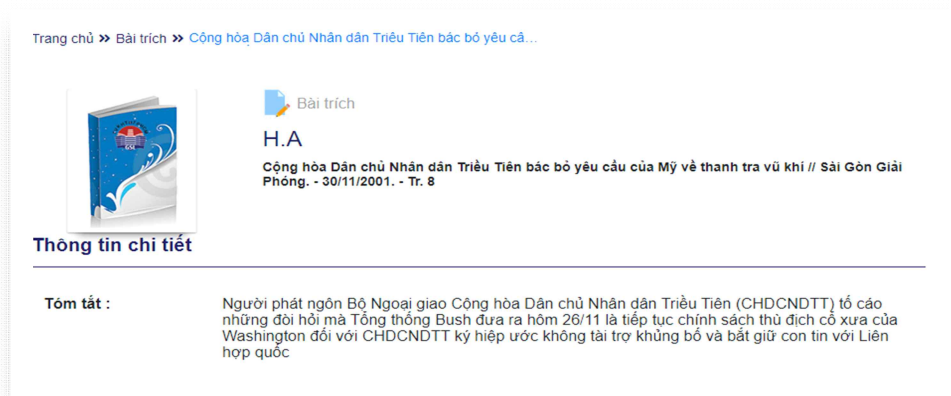
● 키워드별 검색 결과

[표 55] 호치민 종합 도서관 키워드별 검색 결과

검색 키워드	Hàn Quốc	Đại Hàn	Triều Tiên
검색 결과(수)	1,044개	44개	393개
분류	위치별/주제별/작가별 /시기별	위치별/주제별/작가별 /시기별	주제별/작가별/시기별

- (소결)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전산 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출처 등 간단한 기술(description)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33] 호치민 종합 도서관에서 'Triều Tiên'으로 검색한 결과



- 이에 따라 호치민 종합 도서관의 경우 전산으로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록별 기록 유형, 연도, 기록건수, 내용 요약 등을 파악할 수 있음

[표 56] 호치민 종합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소장기록 예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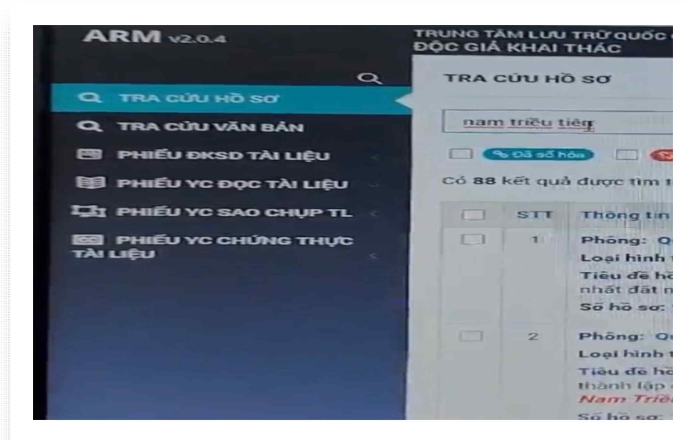
	소장기관	시리즈	내용	기록연도/쪽
1	호치민 종합 도서관	Sài Gòn Giải Phón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무기 시찰 요구를 거부	2001.11.30. /8 pages
2	호치민 종합 도서관	Khoa học và Công nghệ	조선(한국)의 재벌(삼성, 현대, Goldstar, 대우, 선경)의 경영 조직, 배치 등	1993.4.10. /15pages
3	호치민 종합 도서관	Thẻ dục thể thao	호치민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영 대표단과 찍은 사진	1964.7.3. /사진 번호 145
4	호치민 종합 도서관	The Nation	베트남에서 북조선에 10,000톤의 쌀을 지원	1997.8.20./A8
...				

■ 제3국립자료보관소

- 자료는 서류(hồ sơ)와 문서(văn bản)로 나누어 검색해야 함
- 키워드를 통해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가능

- 문서는 주제에 따라 각각의 문서군으로 분류: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정부사무소(Văn phòng Chính phủ),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등
- 문서군에서 목록 1,2,3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문서 번호와 장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찾은 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각각 문서를 신청하고 사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음
- 자료보관소내 USB 사용은 불가하며 리스트 작업 시 각각 작업을 통해 옮겨야 하는 제약이 있었음
- 검색은 가능하나 세부 자료 유출의 경우 제약이 있음

[그림 34] 제3국립자료보관소 검색 과정 화면



● 키워드별 검색 결과

[표 57] 제3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검색 키워드			
	문서군	Hàn Quốc ²³⁾	Đại Hàn ²⁴⁾	Triều Tiên ²⁵⁾	Nam Triều Tiên ²⁶⁾
검색 결과(수)	서류	1,463개	17개	799개	3개
	문서	93개	4개	814개	710개
기술(description)		문서군, 목록, 문서번호, 내용 확인 가능			
분류		위치별/주제별/작가별/시기별			

23) '[부록 4]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한국' 검색 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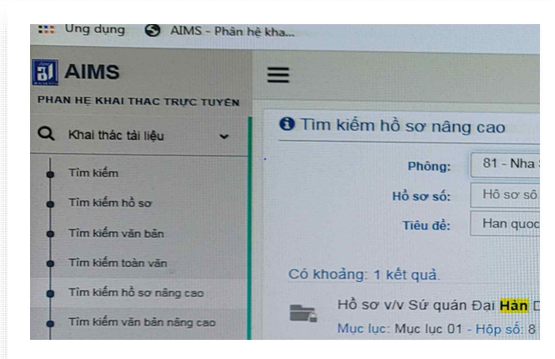
24) '[부록 5]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대한민국' 검색 결과' 참조

25) '[부록 6]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북한' 검색 결과' 참조

■ 제2국립자료보관소

- 제3국립자료보관소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서류(hồ sơ)와 문서(văn bản)로 나뉨
- 키워드를 통해 한국 관련 자료 검색 가능
- 문서는 주제에 따라 각각의 문서군으로 분류(Excel 파일 분류 부분 참조)
- 문서군에서 목록 1, 2, 3등으로 세분화 되며 각각의 문서 번호와 장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제2국립자료보관소는 시대별로 문서 정리가 더 잘되어 있음
- 전산상으로 명단 작성과 문서 송부가 가능하다고 나오나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며 추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편리한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직은 각각 개별 자료를 사서에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명단을 받을 수 없고 수작업으로 옮겨 적어야 함
 - 호치민의 경우, 자료 명부를 모두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각각 예시로서 작성했음. 각각의 검색어별, 서류 번호, 내용(번역), 문서군 번호, 문서군으로 작성됨

[그림 35] 제2국립자료보관소 검색 과정 화면



● 키워드별 검색 결과

[표 58] 제2국립자료보관소 키워드별 검색 결과

검색 키워드	Hàn Quốc	Đại Hàn dân quốc	Đại Hàn (Hàn Quốc)	Triều Tiên	Nam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Korea
검색 결과 (수)	549개	118개	201,826 개	56개	24개	3개	28개
분류	위치별/주제별/작가별/시기별						

26) '[부록 7] 베트남 제3국립자료보관소 '남조선', '조선공화국' 검색 결과' 참조

6.3.5. 자료보관소 외 기록 보유 예상 기관

- 베트남전쟁 자료는 당시 발간된 신문, 회고록, 저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북베트남 관련
 - (기관) 하노이 소재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베트남군대 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
 - (신문) ‘인민신문(Báo nhân dân)’,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
- 남베트남 관련
 - (기관) 호치민시 소재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
 - (신문) ‘두옥냐남(Đuốc nhà nam)’, ‘띤 상(Tin sáng)’, ‘띤히에우(Tìm hiểu)’, ‘쩐 흥깁떼(Chấn hưng kinh tế)’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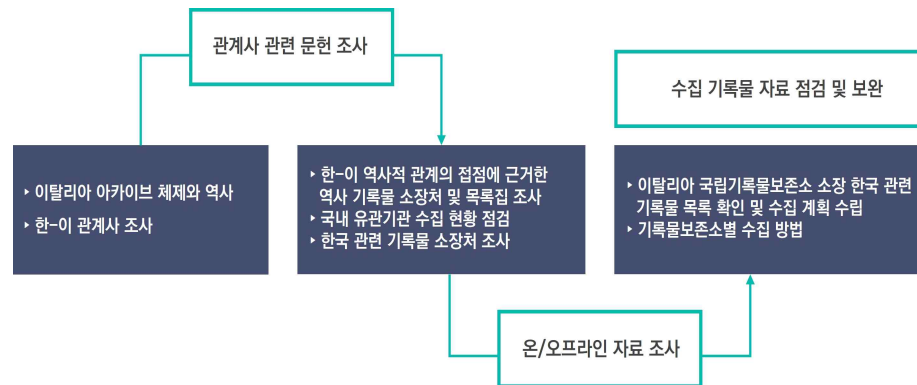
6.3.6. 향후 연구 제안사항

-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 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문서군과 폴더의 위치를 파악한 후 세부 자료들의 목록 작성이 필요함
- 기존의 연구가 베트남전쟁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봉건왕조시기(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까지의 한국과의 교류 관련 자료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짐작되나, 그 이후부터 베트남 전쟁 시기 이전까지(프랑스의 베트남 침략과 식민지 시기와 이후의 독립시기까지)의 자료들에 대한 기록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6.4. 이탈리아

6.4.1. 이탈리아 소재 한국 관련 역사 기록물 조사 및 수집 전략

[그림 36] 이탈리아 소재 한국 관련 역사 기록물 조사 · 수집 전략 도해



- 19세기 이탈리아 통치제도의 역사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조선 관련 역사기록물을 생산한 당시의 정부 기관이 외무성, 국방성, 해군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방문 당시 열람실에서 기록물목록집(General Guide)의 서론을 읽고 해당 기록물보존소의 기록물 정리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역사기록물 열람을 신청함
 - 역사기록물 접근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함
 - 19~20세기 초반 조-이(朝-伊) 외교 관계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역사기록물 판독을 통해 디지털 사본 제작 대상 문건들을 결정함
- 역사기록물 열람 및 판독작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사본 제작을 병행하였고,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역사기록물의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이탈리아는 다른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역사기록물보존소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언급된 이메일을 통해 열람을 신청하며, 방문 당일에는 이탈리아 연구기관 또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추천서를 신분증(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함. 기관별 연락처 및 이용 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9] 이탈리아 기록보존소 기관별 연락처 및 이용 관련 사항

외무성 역사기록물보존소

- 이메일: archiviostorico@esteri.it
- 이용 시간: 월-금 9:30-14:30
- 8월(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및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기간에는 이용 불가

외무성 도서관

- e-mail: biblioteca.mae@esteri.it, domenico.iuorio@esteri.it.
- 이용 시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14:00
- 최소 24시간 전에 상기의 이메일로 출입요청을 해야 함

국방성 역사기록물보존소

- e-mail: statesercito@esercito.difesa.it
- 국방성 역사기록물보존소는 via Lepanto, 5(군부대 Caserma "Nazario Sauro")에 위치하고 있고 전철 A 라인을 타고 Lepanto 역에서 하차

국방성 도서관(Biblioteca Militare Centrale - Roma)

- 주소: Via XX Settembre n. 123/A,
- 연락처: tel. 06/47358557-8
- 이용 시간: 월-목, 9:00-14:00; 금 9:00-12:00

국방성 도서관(Biblioteca di Artiglieria e Genio - Roma)

- 주소: Piazza San Marco n. 8, Roma
- 현재는 내부 작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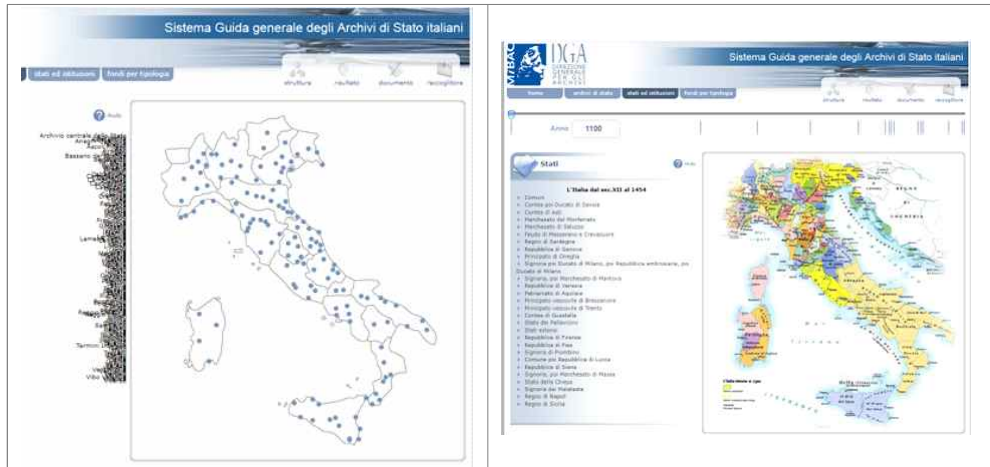
해군성 역사기록물보존소

- e-mail: ufficiostorico@marina.difesa.it
- 주소: 군부대 Angelo Paolucci, Via Taormina n. 4, Roma

6.4.2. 이탈리아 아카이브의 역사와 체계

- 이탈리아 내 국립기록물보존소(National Archive of Italy)는 100개소임
-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 이전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107개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함
 - 그 외에 35개의 지부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적으로 예속된 국립기록물보존소에 역사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음

[그림 37] 이탈리아 지도상 기록관 위치 표시



[표 60] 이탈리아 주(州)별 기록보존소

아부르초(Abruzzo) 주

1. 키에티(Chieti)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란치아노(Lancia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아쿠일라(Aquila) 국립기록물보존소
 - 2-1. 아베차노(Avezza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2-2. 솔모나(Sulmon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3. 페스카라(Pescara) 국립기록물보존소
4. 테라모(Teramo) 국립기록물보존소

바실리카타(Basilicata) 주

1. 마테라(Matera) 국립기록물보존소
2. 포텐차(Potenza) 국립기록물보존소

칼라브리아(Calabria) 주

1. 카탄자로(Catanzaro)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라메치아 테르메(Lamezia Terme)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코센차(Cosenza) 국립기록물보존소
 - 2-1. 카스트로빌라리(Castrovillar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3. 레지오 칼라브리아(Reggio Calabria) 국립기록물보존소
 - 3-1. 로크리(Locr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3-2. 팔미(Palm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4. 비보 발렌티아(Vibo Valentia) 국립기록물보존소

캄파니아(Campania) 주

1. 아벨리오(Avellino) 국립기록물보존소

2. 베네벤토(Benevento) 국립기록물보존소
3. 카세르타(Caserta) 국립기록물보존소
4. 나폴리(Napoli) 국립기록물보존소
5. 살레르노(Salerno) 국립기록물보존소

에밀리아-로마냐(Emilía-Romagna) 주

1. 볼로냐(Bologna)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이몰라(Imol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페라라(Ferrara) 국립기록물보존소
3. 퍼를리-체세나(Forlì-Cesena) 국립기록물보존소
 - 3-1. 체세나(Cesen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4. 모데나(Modena) 국립기록물보존소
5. 파르마(Parma) 국립기록물보존소
6. 피아첸차(Piacenza) 국립기록물보존소
7. 라벤나(Ravenna) 국립기록물보존소
 - 7-1. 파엔차(Faenz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8.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 국립기록물보존소
9. 리미니(Rimini) 국립기록물보존소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Friuli Venezia Giulia) 주

1. 고리치아(Gorizia) 국립기록물보존소
2. 포르데노네(Pordenone) 국립기록물보존소
3. 트리에스테(Trieste) 국립기록물보존소
4. 우디네(Udine) 국립기록물보존소

라치오(Lazio) 주

1. 프로시노네(Frosinone)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아나agni-구아르치노(Anagni-Guarci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라티나(Latina) 국립기록물보존소
3. 리에티(Rieti) 국립기록물보존소
4. 로마(Roma) 국립기록물보존소
5. 비테르보(Viterbo) 국립기록물보존소

리구리아(Liguria) 주

1. 제노바(Genova) 국립기록물보존소
2. 임페리아(Imperia) 국립기록물보존소
 - 2-1. 산 레모(San Rem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2-2. 벤티밀리아(Ventimigli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3. 스페치아(Spezia) 국립기록물보존소
4. 사보나(Savona) 국립기록물보존소

롬바르디아(Lombardia) 주

-
1. 베르가모(Bergamo) 국립기록물보존소
 2. 브레시아(Brescia) 국립기록물보존소
 3. 코모(Como) 국립기록물보존소
 4. 크레모나(Cremona) 국립기록물보존소
 5. 밀라노(Milano) 국립기록물보존소
 6. 파비아(Pavia) 국립기록물보존소
 7. 손드리오(Sondrio) 국립기록물보존소
 8. 바레세(Varese) 국립기록물보존소

마르케(Marche) 주

1. 안코나(Ancona)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파브리아노(Fabria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아스콜리 피체노(Ascoli Piceno) 국립기록물보존소
3. 페르모(Fermo) 국립기록물보존소
4. 마체라타(Macerata) 국립기록물보존소
 - 4-1. 카메리노(Cameri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5. 페사로-우르비노(Pesaro-Urbino) 국립기록물보존소
 - 5-1. 파노(Fa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5-2. 우르비노(Urbi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몰리세(Molise) 주

1. 캄포바소(Campobasso) 국립기록물보존소
2. 이세르니아(Isernia) 국립기록물보존소

피에몬테(Piemonte) 주

1. 알레산드리아(Alessandria) 국립기록물보존소
2. 아스티(Asti) 국립기록물보존소
3. 비엘라(Biella) 국립기록물보존소
4. 쿠네오(Cuneo) 국립기록물보존소
5. 노바라(Novara) 국립기록물보존소
6. 토리노(Torino) 국립기록물보존소
7. 베르바니아(Verbania) 국립기록물보존소
8. 베르첼리(Vercelli) 국립기록물보존소
9. 바랄로(Varallo) 국립기록물보존소

풀리아(Puglia) 주

1. 바리(Bari)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바리에타(Barlett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1-2. 트라니(Tran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브린디시(Brindisi) 국립기록물보존소
 3. 퍼지아(Foggia) 국립기록물보존소
 - 3-1. 루체라(Lucer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4. 레체(Lecce) 국립기록물보존소
-

-
5. 타란토(Taranto) 국립기록물보존소

사르데냐(Sardegna) 주

1. 칼리아리(Cagliari) 국립기록물보존소
2. 누오로(Nuoro) 국립기록물보존소
3. 드리스타노(Oristano) 국립기록물보존소
4. 싸사리(Sassari) 국립기록물보존소

시칠리아(Sicilia) 주

1. 아그리젠토(Agrigento) 국립기록물보존소
2. 쉬아카(Sciacc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3. 칼타니세타(Caltanissetta) 국립기록물보존소
4. 카타니아(Catania) 국립기록물보존소
 - 4-1. 칼타지로네(Caltagirone)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5. 엔나(Enna) 국립기록물보존소
6. 메세나(Messina) 국립기록물보존소
7. 팔레르모(Palermo) 국립기록물보존소
 - 7-1. 테르미니 이메레세(Termini Imerese)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8. 라구사(Ragusa) 국립기록물보존소
 - 8-1. 모디카(Modic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9. 시라쿠사(Siracusa) 국립기록물보존소
 - 9-1. 노토(Not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10. 트라파니(Trapani) 국립기록물보존소

토스카나(Toscana) 주

1. 아레초(Arezzo) 국립기록물보존소
2. 피렌체(Firenze) 국립기록물보존소
3. 그로세토(Grosseto) 국립기록물보존소
4. 리보르노(Livorno) 국립기록물보존소
5. 루카(Lucca) 국립기록물보존소
6. 마싸(Massa) 국립기록물보존소
 - 6-1. 폰트레몰리(Pontremol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7. 피사(Pisa) 국립기록물보존소
8. 피스토이아(Pistoia) 국립기록물보존소
 - 8-1. 페쉬아(Pescia)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9. 프라토(Prato) 국립기록물보존소
10. 시에나(Siena) 국립기록물보존소

트렌토-알토 아디제(Trentino-Alto Adige) 주

1. 볼자노(Bolzano) 국립기록물보존소
 2. 트렌토(Trento) 국립기록물보존소
-

움브리아(Umbria) 주

1. 페루지아(Perugia) 국립기록물보존소
 - 1-1. 아씨시(Assisi)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1-2. 펠리뇨(Folign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1-3. 굽비오(Gubbi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 1-4. 스폴레토(Spolet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2. 테르니(Terni) 국립기록물보존소
 - 2-1. 오르비에토(Orvieto) 국립기록물보존소 분소

베네토(Veneto) 주

1. 벨루노(Belluno) 국립기록물보존소
2. 파도바(Padova) 국립기록물보존소
3. 로비고(Rovigo) 국립기록물보존소
4. 트레비소(Treviso) 국립기록물보존소
5. 베네치아(Venezia) 국립기록물보존소
6. 비첸차(Vicenza) 국립기록물보존소
7. 바싸노 델 그라파(Bassano del Grappa) 국립기록물보존소

6.4.3. 한-이(韓-伊) 역사 관련 주요 연표

[표 61] 한국(조선) - 이탈리아 역사 관련 주요 연표

13세기	마르코 폴로(Polo,M.)에 의하여 고려(Kauli)라는 명칭으로 알려짐
16세기	예수회 신부들을 통해 알려짐
16~17세기	마테오 리치를 통해 조선이 이탈리아에 알려짐
19세기 후반	아르미논(Armignon) 선장의 마제타 호와 조선 해군간 친선을 통해 조-이 간 비공식관계가 시작됨. 조선의 인삼에 대한 소식을 전함
1880.06.	피사니호(Pisani) 선장 사보이아(Savoia) 공작이 조선정부와 접촉, 통상관계에 노력
1878.	이탈리아 국적의 선박 좌초로 산토로(Santoro) 선원 구조
1884.	순양함 크리스토퍼 콜롬보(Cristoforo Colombo) 호(號) 파견. 조-이 수호 및 통상에 관한 조약 체결 시도
1887.07.	서상우(徐相雨)와 크라비오사(Craviosa., F) 간 조약 체결
1901.	대한제국 내 이탈리아 대표 상주
1902.	말그라(Malgra) 영사의 신임장
1905.	을사조약으로 韓-伊 외교관계 단절
1950.	한국전쟁 당시 적십자 지원
1956. 11.	상호 외교사절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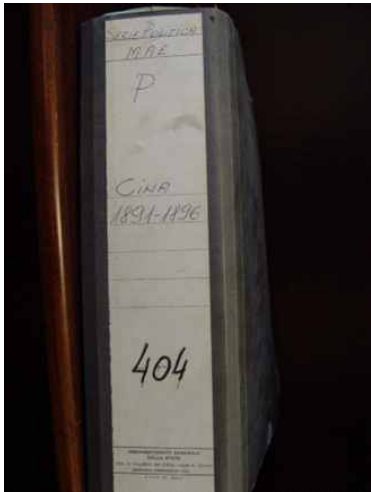

6.4.4. 이탈리아 소재 조선 관련 기록물 현황

■ 외무성 역사기록물보존소 기록물목록집

- Inventario delle Rappresentanze diplomatiche e consolari d'Italia a Pechino (1870-1952)

[표 62] 이탈리아 소재 조선 관련 기록물 현황 및 사진 정리

외무성 역사기록물보존소 기록물목록집 Inventario delle Rappresentanze diplomatiche e consolari d'Italia a Pechino (1870-1952), TITOLARIO 1904-1920				
Busta	Fasc.	Sf. Ins.	Oggetto	Anni
1	1		[Carteggio politico.] Varie	1870-1884
	2		[Corrispondenza con Legazioni estere]	1871-1884
		1	Legazione d'Austria-Ungheria (corrispondenza)	1882
		2	Legazione del Belgio (corrispondenza)	1879-1884
		3	Legazione del Brasile	1882-1883
		4	Legazione di Francia (corrispondenza)	1879-1884
		5	Legazione di Germania (corrispondenza, ecc.)	1871-1883
		6	Legazione dei Paesi Bassi - Pechino	1879-1884
		7	Legazione di Spagna (corrispondenza)	1879-1884
		8	Legazione cinese a Roma	1880-1882
	3		Tonkino	1881-1884
	4		[Trattati]	1882
		1	Trattato anglo-cinese	s.d.
		2	Trattato russo-cinese	1882
	5		Manifatture degli europei in Cina	1882
	6		[Documenti diplomatici a stampa]	1883
	7		Corea	1882-1884
	8		Corrispondenza con [il Viceré] Li Hung-chang	1884
	9		[Lettere di Angelo Luzzatti a Salvago Raggi]	1897-1898
	10		Miniere e ferrovie ovest di Pechino (Shi-Shan)	1898-1899
조선 관련 역사기록물 파일들(1882~1884)				
Storia & Diplomazia Pos. 90: Connazionale Ugo Montiglio (schedato sotto pos. 67) Pos. 91: Connazionale Ernesto Mori Pos. 92: Connazionale Paolo Mudanò (schedato sotto pos. 67) Pos. 93: Connazionale Salvatore Mudanò (schedato sotto pos. 67) Pos. 94: Connazionale Ugo Nervegna Pos. 95: Connazionale Valerio Ossimprandi (schedato sotto pos. 67) Pos. 96: ... Pos. 97: Connazionale M. Pallavicino Pos. 98: Connazionale Arnolfo Lapo Pineschi (schedato sotto pos. 67) Pos. 99: Connazionale Giovanni Rizzardi (schedato sotto pos. 67) Pos. 100: Connazionale Matteo Rizzo Pos. 101: Connazionale Bernardo Russo Pos. 102: Connazionale Baldassarre Savoia Pos. 103: Connazionale Savoldi (schedato sotto pos. 67) Pos. 104: Connazionale Gioacchino Scaduto (schedato sotto pos. 67) Pos. 105: Connazionale Luigi Sommariva (schedato sotto pos. 67) Pos. 106: Connazionale Stefano Tem (schedato sotto pos. 67) Pos. 107: Connazionale Umberto Ugo Pos. 108: Connazionale Vanni (schedato sotto pos. 67) Pos. 109: Connazionale Ernesto Valpreda (schedato sotto pos. 67) Pos. 110: Connazionale Daniele Zanetti (schedato sotto pos. 67) Pos. 111: Connazionale Giacomo Dondi (schedato sotto pos. 67) Pos. 112: Connazionale Luigi Gualtieri (schedato sotto pos. 67) Pos. 113: Marchesi Taddei (schedato sotto pos. 67) Pos. 114: Connazionale Natale Tirasacchi Pos. 115: Sua Eccellenza Carlo Baroli Pos. 116: Incidente del Yunnan Pos. 116/1: Incidente del Yunnan				
Storia & Diplomazia Pos. 33/2: Spedizione in Siberia - Partecipazione italiana Pos. 34: Corea Pos. 35: Relazione italo-cinesi. Reclami Pos. 36: Politica interna cinese Pos. 37: Mongolia (carteggio non individuato) Pos. 38: Tibet (carteggio non individuato) Pos. 39: Politica interna italiana (schedati sotto le posizioni 2, 81) Pos. 40: Consolato Mong Tzè (schedati sotto la pos. 116) Pos. 41: ... Pos. 42: ... Pos. 43: Indennità cinesi Pos. 44: Armi in Cina Pos. 45: Banche, capitali, prestiti esteri in Cina Pos. 46: Missioni in generale Pos. 47: Missioni individuali. Vicariato dello Shansi settentrionale Pos. 48/1: Vicariato dell'Honan orientale				
Storia & Diplomazia Pos. 33/2: Spedizione in Siberia 413 Arrivo in Cina del corpo di spedizione italiano in Estremo Oriente 1918-1919 414 Automobile per spedizione 1918-1919 415 Spedizione in Siberia. Partecipazione italiana. Sottoposizione: fondi per spedizione 1918-1919 1 [Pagamento viaggi ferroviari RR. truppe e irredenti] 1918-1919 2 Incidente muli 1918-1919 416 Seconda venuta del piroscafo "Roma" ¹⁵⁶ 1918-1919 417 Maggiore Menotti Garibaldi 1918-1919 418 Azioni in Siberia del contingente italiano 1919 419 Partenza del corpo di spedizione in Estremo Oriente 1919-1920 Pos. 34: Corea 33 420 Missione in Corea del Tenete di Vascello Conte [Ugo] Francesetti ¹⁵⁷ 1901-1902 421 Concessioni minerarie in Corea. Domanda del signor [Felice] Bijno ¹⁵⁸ 1902 422 Annessione della Corea al Giappone 1909-1912 423 [Corea] ¹⁵⁹ 1902-1919 ¹⁵⁶ Antica pos. V. ¹⁵⁷ Antica pos. IX. ¹⁵⁸ Antica pos. II, V. ¹⁵⁹ Una nota sulla camicia del fascicolo recita: "Per prima sua venuta vedere: Irredenti" (Varie sottoposizioni della 127). ¹⁶⁰ Antica pos. II. ¹⁶¹ Antica pos. VIII. ¹⁶² Antica pos. II.				
발다사레 사보이아(Baldassarre Savoia)는 1880년 06월 피사니호(Pisani) 선장으로 조선 정부와 접촉하여 양국간 통상에 노력				
1.조선에 관한 바실로(Vascello) 백작의 보고서(1901-1902)2.1901-1910년 조선의 광물 채굴(1902)3.일본의 조선 함방에 관한 보고서(1909-1912, 1902-1919)				

Storia & Diplomazia				
Busta	Fasc.	Sf. Ins.	Oggetto	Anni
85	1131		R. Agenzia Consolare in Vladivostok ²⁹⁶	1920-1924
		1	Signor Faustino Giani	1920-1921
	1132		Relazione [sulla situazione politico] economica del Consolato di Vladivostok	1921-1923
Pos. 75: Sua Eccellenza Barone Carlo Alliotti				
86	1133		[S.E. Barone Carlo Alliotti]	1916-1919
			Pos. 77: Sua Eccellenza Carlo Garbasso	
	1134		[S.E. Carlo Garbasso]	1918-1919
Pos. 79: Connazionale Felice Bijno				
	1135		Connazionale Felice Bijno ³⁰⁰	1903-1909
		1	Felice Bijno. Credito verso il signor [Gastone] de Rickmann	1903-1904
		2	Rapporto Vitale (8 annessi)	1903-1904
		3	Vertenza Bijno - [Antonio?] Perrone	1904
		4	Ferimento Bijno a Mukden	1905
		5	Felice Bijno. Carte diverse. Vedova Bijno proprietà in Corea ³⁰¹	
<p>펠리체 비지노(Felice Bijino), 비지노의 미망인이 조선에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p> <p>-</p>				
<div>  </div>				
Serie Politica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Cina 1891-1896, N. 404				
<div>  </div>				
Serie Politica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Cina 1897-1899, N. 405				

외무성 역사기록물보존소 도서관 소장 신문 사진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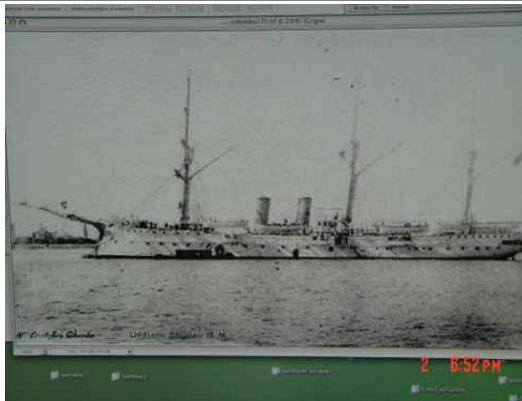
한국군 제3사단 소속 여성 전투요원 김수다(Kim Suda)



북한지역 Haguru-ri 마을의 새로운 시장 선거를
독려하는 미군 해병대 리젠버그 대령(H. L.
Litzengerg)

해군성 기록물보존소(Ufficio Storico della Marina)

MINISTERO della MARINA - Protocollo Spec. 10379(1885.08.24)
 - REGIO INCROCIATORE - Protocollo Spec. 7869(1884.07.18)
 - REGIO INCROCIATORE - Protocollo Spec. 7518(1884.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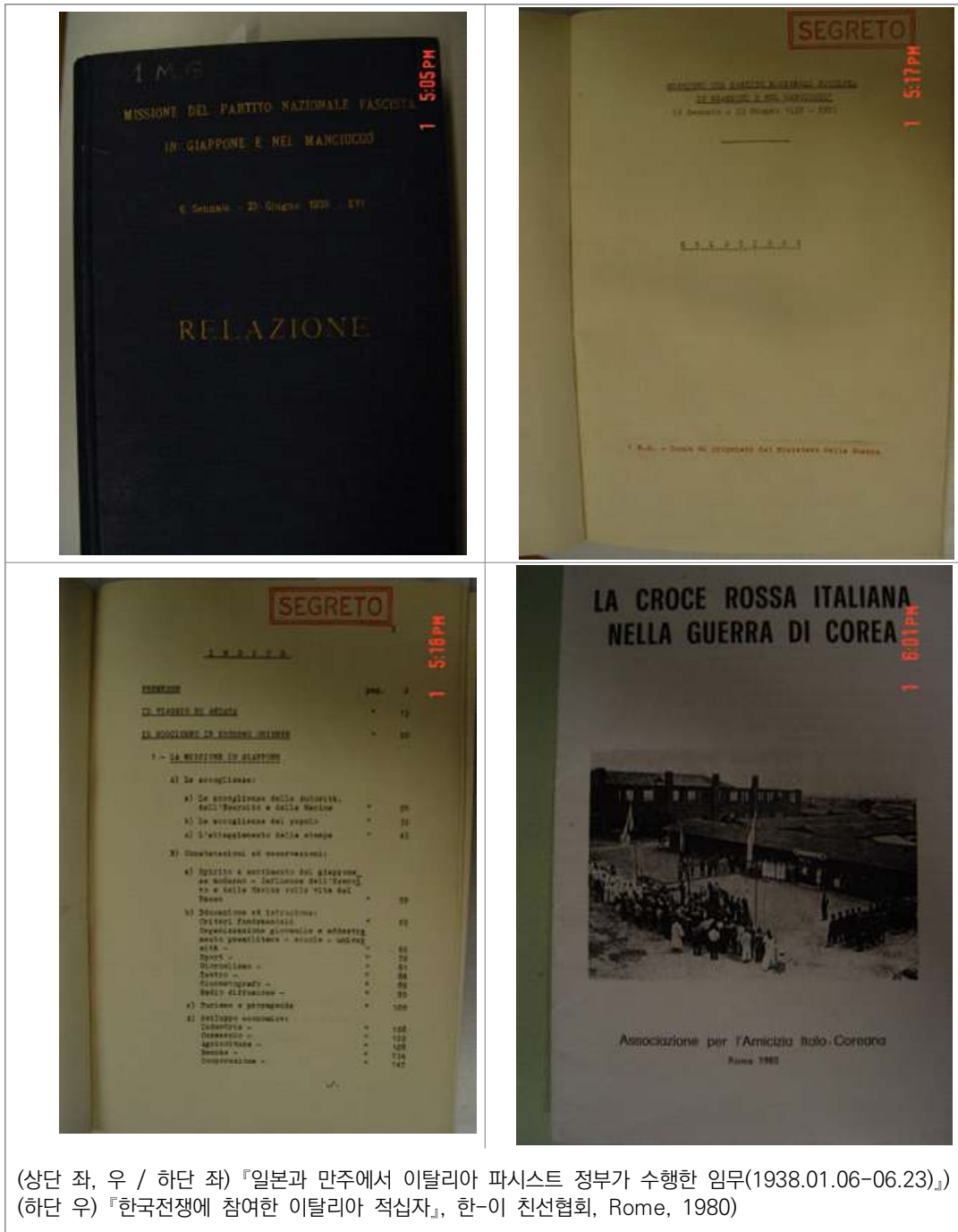
순양함 크리스토퍼 콜롬보호(號)



육군성 기록물보존소(L'ufficio Storico dello SME)

MINISTERO della MARINA - Protocollo Spec. 10379(1885.08.24)
 REGIO INCROCIATORE - Protocollo Spec. 7869(1884.07.18)
 REGIO INCROCIATORE - Protocollo Spec. 7518(1884.07.04)





(상단 좌, 우 / 하단 좌) 『일본과 만주에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가 수행한 임무(1938.01.06-06.23)』
(하단 우)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탈리아 적십자』, 한-이 친선협회, Rome, 1980)

6.4.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탈리아 소재 조선(대한제국) 관련 기(既)수집 자료

■ 이탈리아 외무성 자료

- 중국 상하이 주재 이탈리아 문화원(1890.12-1901.09) 역사기록물 일부: Serie Politica “P” Rubrica alfabetica delle Posizioni(1891-1916) 중 282, 289, 290, 303, 205, 227, 345, 370, 374.
 - 제작 당시 디지털 사본의 선명도가 충분하지 않았음
 - 1900-1916년의 역사기록물에 대한 추가 디지털 사본 제작이 필요함
 - 상기 수집대상 기록물의 모든 (건)item이 디지털 사진 사본으로 수집된 것은 아님
 - 상기 수집 자료는 2008년에 생산된 것이며 14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선명도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전쟁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과전한 적십자 관련 신문 사진 자료(이탈리아 외무성 내 도서관 소재)
 - 본 사본 자료는 1950년 초반에 발행된 신문들에 실린 사진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선명도와 해상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탈리아 해군성 역사기록물

- N. 209(1884)
- N. 7518(1884)
 - 상기의 기록물 번호가 동일연도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후대에 실시된 일련의 기록물 재정리작업에 따른 결과임
 - 디지털 사본을 제작할 당시 채류 기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많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함
 - 디지털 사본 제작 당시 이탈리아 역사기록물보존소의 역사기록물 열람은 월-금, 오전 8:30분~13:00이었음

■ 이탈리아 육군성

- N. 1610

6.4.6. 문헌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수집기록물의 대상을 Items(건) 단위까지 지정하기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역사기록물보존소와의 사전 협의 및 협력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 이탈리아의 역사기록물보존소들은 역사기록물의 안전과 활용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물 재정리 작업을 빈번하게 시행하는 관계로 방문일정과 방문 시 구체적인 열람 대상 기록물 파일에 대한 협의가 요구됨(이탈리아 외무성 역사기록물보존소, 육군성 역사기록물보존소, 해군성 역사기록물보존소 등)
- 수집과정에서 기록물목록집(Inventarium)의 활용, 열람 및 판독 활동 그리고 사본 제작을 위한 디지털 장비의 사용을 고려해 해당 역사기록물보존소의 각별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현지방문 일정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관련 역사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사본 제작 시에는 사본에 구체적인 설명(출처 정보)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각 사본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함
- 복수의 역사기록물보존소에서 사본 제작 시에는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본 및 정보들에 대한 대조는 실시간으로 실시해야 함
- 역사 기록물 사본 제작과정에서는 이미 자타의 여러 기관에서 수집되었거나 확보된 것들과의 중복을 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사전에 기(既)수집 역사기록물의 목록을 적어도 날짜가 언급된 File 단위까지는 작성하여 활용해야 함
- 디지털 사본 외에도 조-이 수호 및 통상에 관한 조약문(영어, 이탈리아어, 한문)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종이 사본을 제작하여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탈리아 해군성 역사기록물보존소의 조선 관련 기록물 수집은 19세기 말 ‘조-이 수호 및 통상에 관한 조약’ 체결 당시 조선 정부가 이탈리아 해군에 선물한 조선 해군 깃발 2기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조사를 해군 박물관과 도서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7. 단계별 수집 전략 및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7.1. 해외소재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7.1.1. 수집의 지향

1)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과 보완점

- (기관 특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서비스하는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서비스 전문 역량은 유관기관에 비해 서비스 비율 및 소요되는 시간에서도 차별성 발휘
- (예산) 수집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국내 타기관 대비 안정적
 -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액은 유관기관보다 안정적, 우위에 있음
- (수집) NARA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성과가 연구자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유지
- (서비스) 하지만 수집대상 기관이 한정되고 수집 내용에서 특정 매체와 유형의 비중이 절대적이라 사용성, 유용성,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
- 장차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설정하고 장기적, 체계적인 전망 필요

2) 수집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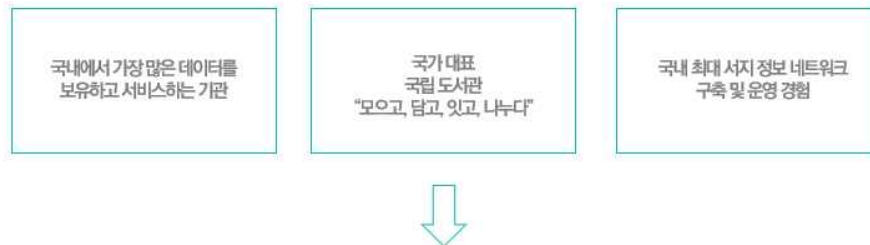
-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해외소재 근현대 기록 수집 및 서비스의 **지도적 역할 담당**
 - 공공성, 안정된 예산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시급하고 대표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역할**을 설정
 - 해외 국립도서관 사례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국립 도서관들은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특유의 아카이브를 운영** 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음
 - 또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 통합 전거서비스(인물, 사건, 지역 등) 제공 등은 국립 도서관에 전문성이 있는 역량임
 - 이미 여러 국립 문화유산기관들도 아카이브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사료의 **분류와 목록 등 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관리대상으로서 사료와 도서 및 간행물의 특성은 구별되지만 오랜 기간 서지 네트워크를 운영, 유지해 본 도서관의 **경험**은 여전히 유용함

■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전문화된 아카이브 기능 수행 역량 확보

- 수집-등록과 정리-보존-활용-연구조사 기능 등 국립도서관 내 아카이브 기능은 국가적 차이는 있지만 보편화되는 추세로 장기적 전망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조직 및 인적 자원 형성이 필요
-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온라 인자료과 내 개인 업무분장 수준으로는 중장기적 수집 및 서비스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 특히 수집 활동은 경험 축적과 인맥 형성이 중요하며 기증자와 신뢰 관계가 필수적임

[그림 38] 중장기 수집정책의 배경의 지향

○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



해외소재 근·현대 자료 수집 및 서비스의 지도적 역할

- 공공성, 안정된 예산과 신뢰에 바탕을 둔, 대표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장기적으로 특화된 Library Archives 운영
-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기관들은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아카이브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음(보고서 p. 158-161참조)

※ 참고 사례 -국내 국립 문화유산 기관들의 아카이브 기능²⁷⁾

■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아카이브 센터』

- 국립중앙박물관은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조선총독부박물관, 국립민족박물관 등 한국 근현대 박물관 활동의 유산 대부분을 계승한 기관
- 이러한 박물관사 및 업무 활동 기록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아카이브센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 현재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이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개념 정립 단계로 판단됨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는 2011년 11월에 개소했으며, 설립 목적은 “한국

27) 2022년 10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 주최로 박물관 아카이브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주제는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의 역할과 전망”. 참고사례는 심포지엄 발표내용 및 추가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임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의 이해와 연구”로, 기관자료, 미술인카드 및 전시인쇄물, 건축자료, 미디어자료, 학술 및 출판, 근현대미술, 서비스 담당의 7인으로 시작

- 소장기록은 **수집기록**과 **미술관기록**으로 구분되며, 수집기록은 한국근현대미술가나 건축가, 단체 등 외부로부터 수집하였다면, 미술관기록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교육, 연구, 학술 등 미술관의 핵심 기능과 관련해 내부에서 생산된 업무기록
- 이후 각 분관에 아카이브가 설치되어 2024년 완공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까지 포함하면 국립현대미술관 내 4개의 아카이브가 운영될 예정²⁸⁾

■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

-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2007년 개소했으며 민속 관련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
- 수집대상 자료는 “국내외 생활문화 등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²⁹⁾
-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 연구 활동 과정에서 아카이브 생산 및 수집(가증)이 이루어짐

★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 “까레이치, 고려사람” 사례

- 이 전시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것임
- 국립민속박물관은 2021년부터 <재외한인동포 생활문화조사:중앙아시아>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19로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가 불가해지자 사업 내용을 국내 정착한 고려인의 생활문화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2021년 5월 조사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제보자(채예진, 전시 협력지원사 관계자임)를 통해 빅토르 안(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생 고려인, 1947년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사진은 고려인 생활상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에 유용한 가치를 보유한 것임
- 특히 과거 국내에 일부 소개된 적 있으나 기관에 기증된 적 없었으며 이번 22년 5월에 국립민속박물관이 그의 사진 352장을 에 기증받게 되었음
- 이렇게 동포생활문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제보자를 확보하고 기증자가 섭외된 점은 수집 활동이 갖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28) 2022. 10. 25. 이지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물관 아카이브 심포지엄 자료집. p. 21-24

29) 2022. 10. 25. 김중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박물관 아카이브 심포지엄 자료집. p. 25-27

[그림 39] (시계방향순으로) 홍범도의 흉상, 빅토르 안의 사진기, 고려일보, 조명희 작가



■ 국립도서관의 구술사료 수집 사례³⁰⁾

- 박준규(2022)는 해외 각국(미, 영, 호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들이 구술사료 수집 관리 제도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소개, “구술사료 수집관리 제도화 과정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립도서관으로 집결되는 경향 존재”
- 특히, 영국 국립도서관이 구술자료 관리를 위해 설정한 11가지의 핵심 역할을 살펴보면 “영국 구술사의 지도적 역할, 관련 단체 및 학계 지원, 수집 자료 관리, 개인 및 단체와 협력, 활용 활성화, 기금 조성” 등

30) 이 내용은 2022년 한국구술사학회 후기 학술대회 자료집 중 박준규.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구술사료 수집관리의 제도화”, p. 93-99를 토대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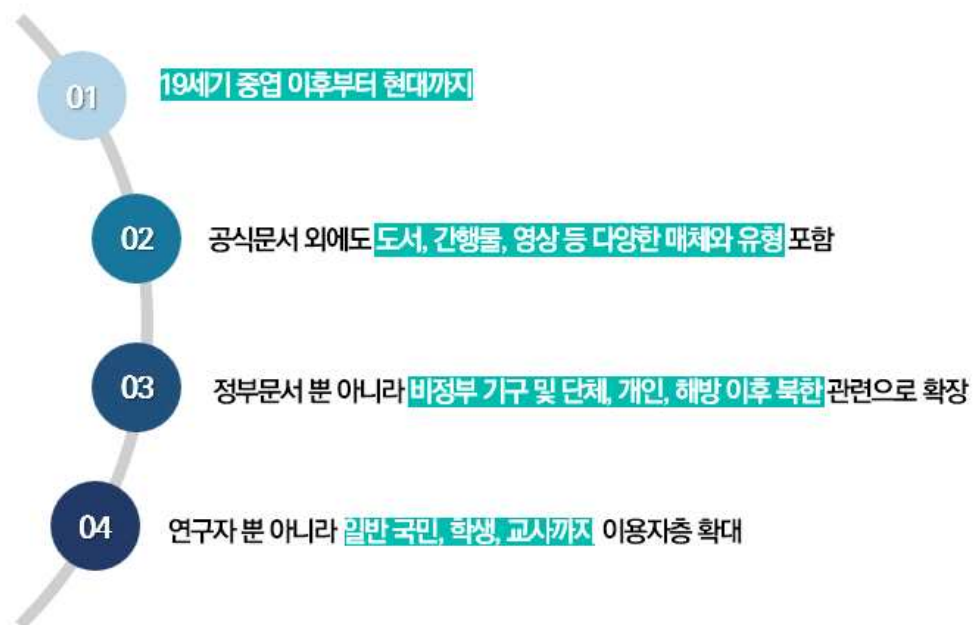
- 결론적으로 해외의 구술사료 수집관리 제도화의 유형을 1) 구체적인 법 2) 특별위원회 등의 보고서 제언 3) 대학 연구팀 또는 외부 재단이 수집하고 관리를 국립도서관이 하는 사례 4) 정부 주도로 국립도서관에 역할 지정 등으로 유형화함
- 그의 연구는 구술사료 등 수집, 관리가 까다로운 자료들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이 큼

7.1.2. 수집 대상

1) 수집 자료의 내용적 범주³¹⁾

- 시기 : 19세기 중엽 이후로부터 현대까지
- 유형: 공식 문서 외에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와 유형 포함
- 주제 및 생산자: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로서 망라적 주제에 관한 정부, 비정부 기구 및 단체, 개인, 해방 이후 북한 관련
- 이용자: 근현대 한국관련 연구자 및 일반 국민, 학생, 교사

[그림 40] 수집 자료의 내용적 범주



31) 상세한 내용은 3장.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참고

2) 수집 자료의 형태

- 디지털화된 사본 수집
- 이 외에, 기증 및 실물 수집 적극 고려 필요(실제 기록을 수집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3) 자료의 기정리 수준과 수집대상

- 수집대상이 될 자료는 아래 표 중 A-C 상태인 것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하며 기관 내 미정리 상태이거나 목록 수준으로 공개된 것이 적절함³²⁾
- A, B 상태인 것들은 관계자 면담 및 자문, 현지 조사위원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수준이며 C의 경우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들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CIA 등 온라인 공개 자료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집한 경우(D에 해당)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실효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표 63] 수집대상 자료의 정리 수준별 구분

구분	실물	내부 목록	온라인 목록	원문	텍스트화
A: 미정리 상태	○	X	X	X	X
B: 내부 목록 작성	○	○	X	X	X
C: 온라인 목록 제공	○	○	○	X	X
D: 온라인 원문 제공	○	○	○	○	X
E: 텍스트화된 온라인 제공	○	○	○	○	○

7.1.3. 수집 방법과 전략

1) 일반적 수집 방법

- 일반적으로 수집은 기증, 위탁, 사본 수집, 직접 생산, 구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기증) 수집 대상으로부터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
 - (위탁) 소유권을 위탁자(기관)가 가지며 협약 등에 의해 일정 기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사본 제작 및 공동 활용 권한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사본 수집) 수집기관이 스캐닝, 복제 등으로 사본을 제작하여 수집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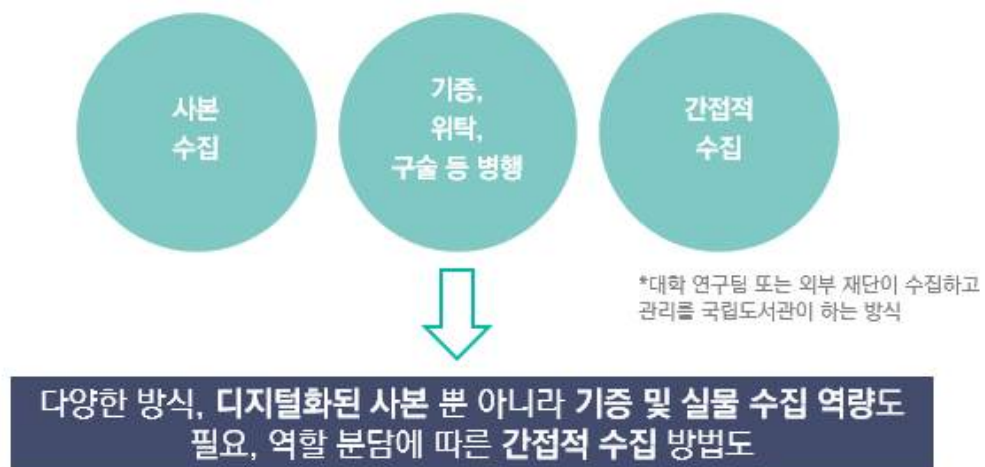
32) 목록화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직접 생산) 수집기관이 구술, 취재 등으로 직접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
- (구입) 수집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방식

2)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방법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재는 주로 사본 수집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증 및 위탁, 구술** 등의 방식도 병행해야 하고 아울러 역할 분담에 따른 **간접 수집** 방법도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이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부서별 특정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물 기록도 제한적으로 수집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³³⁾

[그림 41] 수집 방법 개요



3) 사본 수집(現)

- 개념
 - 국립중앙도서관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수집 활동으로 내부 직원 혹은 용역업체를 대행시키는 등 수집 활동 자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
- 직접 사본 수집의 의의
 -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주제(대상) 관련 기록의 사본을 수집함으로써

33) 국립중앙도서관 여러 부서 차원에서 이미 유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6월 27일에 이루어진 “국립중앙도서관-영인문학과 업무협약”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故이여령 장관 자료 및 영인문학관 소장 근대 문인 원고, 편지 등에 대한 디지털화 보존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2022. 6. 27. 지식정보운영부 디지털정보기획과. 보도 자료).

써 기관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서비스를 위한 자체 원천 소스를 확보하며 다양한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고려사항

- 수집대상을 기획하는 것부터 소장처 확보, 수집 실행 및 결과물 정리와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사본 수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본 소장처가 존재하고 또한 동일한 사본을 수집한 기관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중복수집의 문제가 상존함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필사본이거나 혹은 외국어로 되어있어 수집 당시 맥락정보 파악도 중요하고 이후 정리 및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이 쉽지 않음

4) 기증·위탁 등 본격적인 수집으로의 확대

■ 개념

- 해외 공공 아카이브 소장본에 대한 사본 수집 뿐 아니라 미발굴 소장처(개인, 단체 또는 기수집기관)로부터의 직접 기증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

■ 본격적 수집의 의의

- 해외 국립도서관, 국내 국립 문화유산 기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때 도서관의 아카이브 기능 수행은 보편적인 현상
- 현실적으로 원본 형태가 갖는 가치가 있고 소장처(소장자)가 실물 수집을 요청할 경우가 있어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춘다는 의미

■ 고려사항

- 아카이브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직 체계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함

5) 역할 분담에 따른 간접 수집 방법

■ 개념

- 외부 연구팀 또는 재단 등 기관 등이 수집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관리와 서비스를 전담하는 방식

■ 간접 수집의 의의

- 전문성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수집 업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며 국립도서관 정체성에 걸맞은 역할 정의를 통해 공공성 실현 가능

- 기수집 또는 기서비스되고 있지만 재구성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 아래 국가 차원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고려사항

- 다양한 기관들이 어렵게 수집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관리상의 문제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해외 사료 서비스 기관들은 다수가 분류, 메타데이터 문제로 서비스 및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³⁴⁾
- 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함

※ 참고사례 - 아카이브의 사본수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 정리 사업³⁵⁾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대표적인 수집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예전부터 사료 수집의 한 방법으로 소장기관의 미정리 사료를 대신 정리해주고 사료를 “공유”받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사업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통해 결락사료를 발굴하고 아울러 사료 DB 구축을 통해 사료관의 온라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를 위한 콘텐츠를 확보
- 사업은 사료 단년 또는 복수년도에 걸쳐 진행되고 2020-2022년의 경우 김근태 재단 소장사료, 한국 YWCA연합회 소장사료, 일본기증사료,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소장 문익환, 문동환, 박용길에 관한 사료들을 정리하였음³⁶⁾
- 2020년에 진행된 김근태재단, 한국 YWCA연합회, 일본기증 사료는 약 11,500건이 정리되고 그중 약 102,000면이 디지털화되었으며, 2021년 문익환, 문동환, 박용길 사료 정리사업의 경우 약 5,000건의 사료가 정리되고 그중 약 16,000면을 선별해 디지털화해 원문 이미지를 구축했음
- 사업대상기관들은 사업대상 사료 선별, 맥락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고

34) 가장 체계적인 검색도구를 구현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서비스에서 연구자들이 계층형 검색도구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함

3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년 미정리사료 등록사업 제안요청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화운동 주요 인사 사료 정리사업 제안요청서 및 결과보고 자료 등 참고

36) 국내 보유 자료 및 해외 소재 자료도 대상에 포함. 2023년에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故 문동환 목사 기록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음. 김근태기념도서관 <https://www.geuntae.co.kr/>; 늦봄문익환아카이브 <https://www.archivecenter.net/tongilhous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을 주관. 사업 종료 시 사업회는 사료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디지털화된 파일 및 파일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권한을 보장받음

- 디지털화된 기록들은 공개기록물인 경우 모두 오픈아카이브에 등록되며 이때 사업 대상기관(사료의 소장기관)은 기증자(김근태 재단,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로 표시되고 있음³⁷⁾
- 이 사업의 의미는 비단 현실적인 효과를 넘어 공공기관이자 국내에서 민주화운동 사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사료관이 갖는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음
- 민주화운동사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기관들은 실물 사료 정리를 통해 사료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사본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42] 오픈아카이브에서 검색한 김근태 재단 기록물



37) 소장기관들도 자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 결과물을 자관의 온라인 아카이브로 등록해 서비스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기관으로 온라인 아카이브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그림 43] 오픈아카이브에서 검색한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기록물



- 하지만 수집 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 작업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맥락정보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관간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 시 주관 사업기관 특성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업 결과물은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소장 기관일지라도 당장 자관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바로 서비스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디지털화된 파일에는 서비스를 위해 기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기관의 로고를 공동으로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그림 44)

[그림 4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로고가 삽입된 자료



7.2. 해외소재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 수집의 단계별 · 연차별 이행방안

7.2.1. 고려사항

1) 운영적 측면

- 수집 성공 요건의 핵심은 제대로 된 ‘운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수집이론과 유관 기관 사례 실무를 토대로 주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음
-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지역, 사건, 주제를 위한 수집 전략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굉장한 붐을 일으켰고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능동적이며 협력방식의 수집이론이자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수집 요건으로 “명확한 수집 범위 설정,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수집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주관기관의 역할,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직원 배치(Malkmus, 2008. 394-40)”에 주목함
- 유관기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수집 업무 관련 세부 규정을 갖추고 있고 해외조사위원 운영, 다양한 주제의 연구자 그룹과의 연계 등이 실효 있는 운영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 또한 해외 수집 자료 관련 업무 세분화 시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부분과 외주 가능한 부분에 관한 구분이 필요함. 유관기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 관한 벤치마킹이 가능함

2) 법 · 제도적 측면

- 법 · 제도적 근거는 전문적인 아카이브 기능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하는데 필수적임
- 우선적으로 수집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등 근거를 갖추고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기준을 담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현재의 해외자료 수집업무는 온라인자료과의 수집업무 중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어 수집 기획, 수집 실행, 수집 결과의 정리 및 서비스라고 하는 총체적인 업무 과정을 포괄하기 어려움

[표 64] 현재 업무분장 근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제 603호)

제 7조(온라인 자료과) 2항의 9.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 · 등록

- 또한,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규정 제정 필요³⁸⁾ 아카이브 업무의 특성상 도서관 업무와는 구별되는 업무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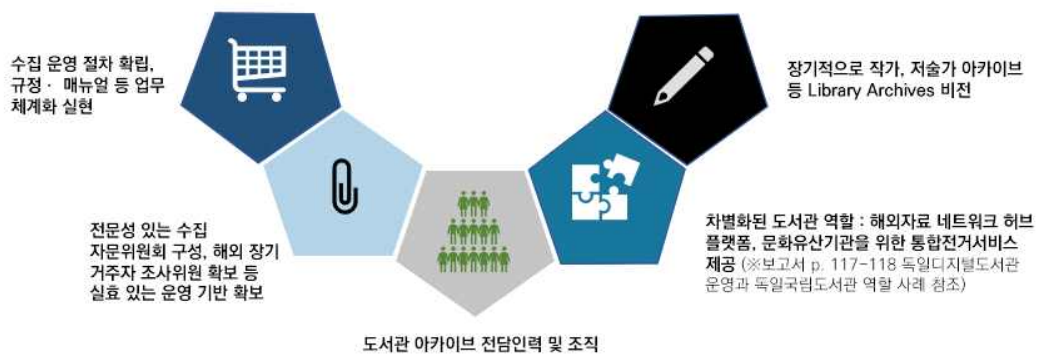
[표 65] 국가기록원의 관련 규정 예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국가기록원훈령 제 207호)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과제

- 수집 운영 절차 확립, 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수집 업무 체계화
-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 도서관 아카이브를 이끌어갈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 해외자료 수집 및 서비스에 있어 차별화된 도서관 역할 확립 및 대내외적 확산
- 도서관 아카이브(Library Archives) 비전 확립 및 구현

[그림 45] 주요 과제



7.2.2. 단계별 운영 방안

1) 고려사항

-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대내외적인 **인식을 확보**해가면서 점차 확장해나가야 함
- 본 연구과제를 통해 파악된 우선 수집대상 국가(지역, 주제 등)를 중심으로 준비단계

38) 수집이론 및 수집 실무를 고려해 기관 수준에 맞게 조정. 일반적으로 수집계획의 수립, 수집자문위원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기능, 해외 현지 기록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의 위촉, 업무 범위 등을 포함

를 운영하면서 법·제도적인 준비를 갖추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지향하는 특성화 아카이브, 전문화된 역할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운영이 필요함

2) 단계별 이행방안

■ 수집업무체계화 및 준비단계

- 유관기관 사례를 참조해 수집 업무 체계화 필요(잘된 규정과 사례 참고 필요)
- 실효성 있는 수집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적(인력, 예산), 내용적(경험 있는 내부 자원 양성, 연구자 등) 준비 중요, 사전 온라인 조사와 현지조사는 병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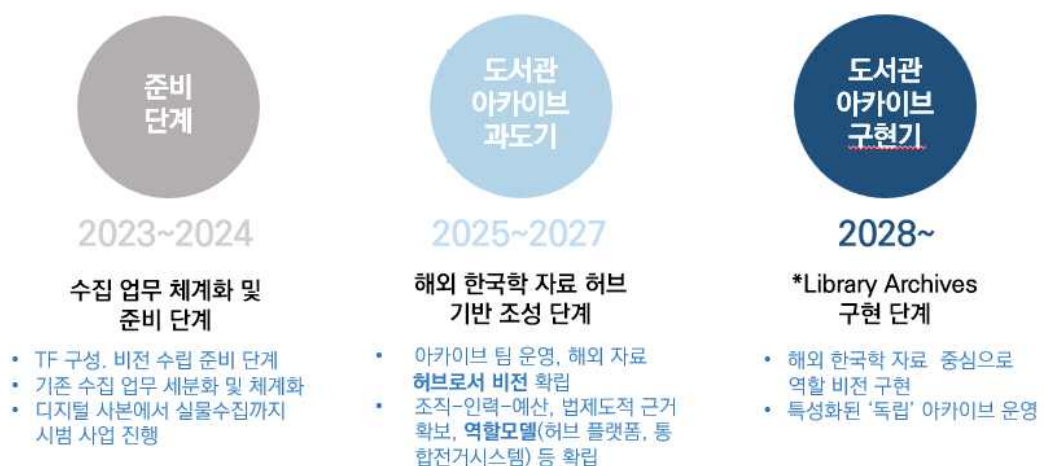
■ 도서관 아카이브 과도기

- 국립중앙도서관의 차별화된 역할로서 허브 플랫폼 역할,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지원 역할, 통합 전거시스템 운영 역할 등
- 국립중앙도서관은 더 대중적이며 IT 인프라에 능숙한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역할 설정 필요

■ 도서관 아카이브 구현기

- 다양한 국립도서관 및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특유의 아카이브 운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 도서관 소장자료의 성격에 맞는 아카이브 분야를 발굴해 대표 도서관으로서 공공성과 신뢰에 기초한 아카이브 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그림 46] 단계별 운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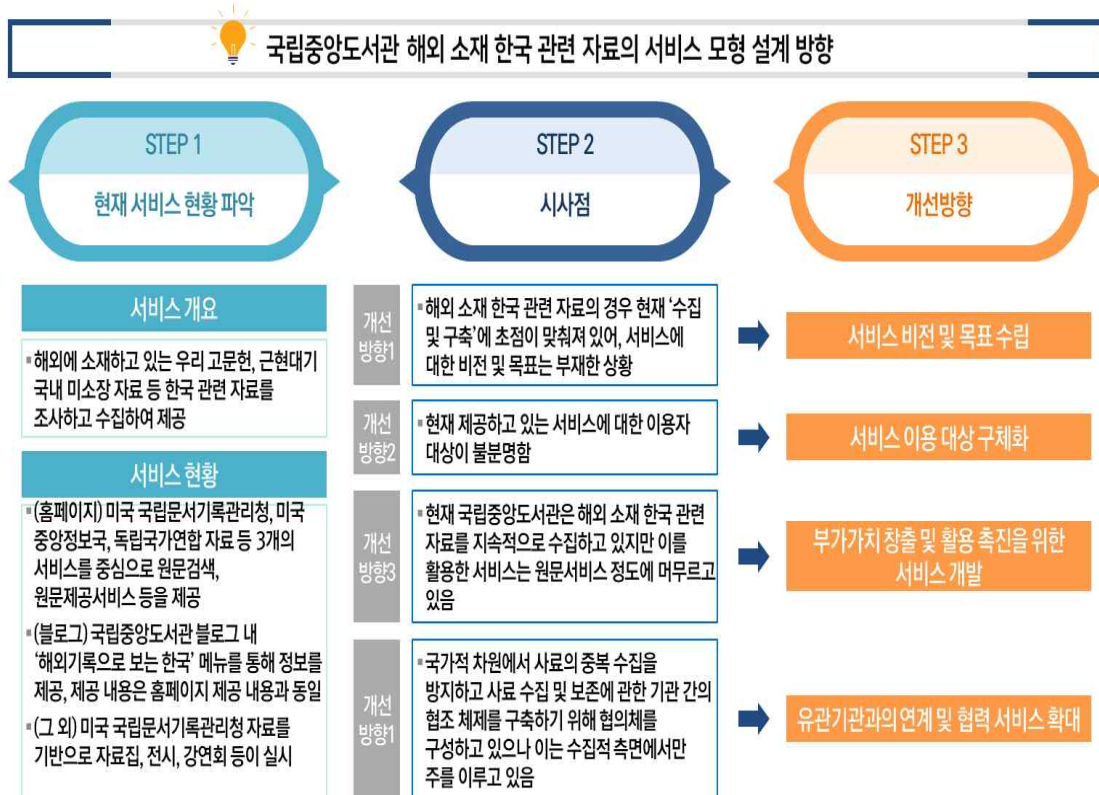


7.3. 수집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형 제안

7.3.1. 서비스 모형 설계 방향

1) 현재 서비스 현황 파악

[그림 4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서비스 모형 설계 방향



- **(서비스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고문헌, 근현대기 국내 미소장 자료 등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현황)** 현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컬렉션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미국 중앙정보국, 독립국가연합 자료 등 3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원문검색, 원문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블로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 내 '해외기록으로 보는 한국' 메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내용은 홈페이지 제공 내용과 동일함
 - 그 외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집, 전시, 강연회 등이 실시되었지만, 지속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현재 서비스 기반 서비스 개선 방향

■ (개선방향 1) 서비스 비전 및 목표 수립

- AS-IS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경우 현재 '수집 및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비스에 대한 비전 및 목표는 부재한 상황
- TO-BE |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자료 확충과 더불어 수집 및 구축한 자료를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해외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비전 및 목표 수립

■ (개선방향 2) 서비스 이용 대상 구체화

- AS-IS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대상이 불분명함
- TO-BE |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이용장, 서브 이용자, 특수 이용자 등 이용자 타겟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설계 필요

- ① 주요 이용자 타겟 : 연구자, 학술단체 등
- ② 서브 이용자 타겟 : 일반이용자(대국민), 성인, 대학생, 청소년 등
- ③ 특수 이용자 타겟 : 가족단위 등

■ (개선방향 3)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 AS-IS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원문서비스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TO-BE | 단순 정보제공서비스를 넘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① 검색서비스 확대 : 별도 시스템 구축, 키워드 검색, 시기별 등
- ② 원문서비스 확대 : 시대별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 등
- ③ 정보큐레이션서비스 강화 : 맞춤형서비스, 희망자료 신청서비스 등
- ④ 자료활용 촉진서비스 개발 : 전시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 (개선방향 4)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서비스 확대

- AS-IS |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사료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사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수집적 측면에서만 주를 이루고 있음
- TO-BE | 수집측면에서의 협력 및 연계를 넘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연계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더 나아가 향후 통합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 등

7.3.2. 서비스 방안 제안

- 본 연구에서는 해외소재 관련 한국 자료의 서비스 방안으로 1) 서비스 비전 및 목표 수립, 2) 서비스 이용 대상 구체화, 3)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4)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서비스 확대를 제안함

[표 66]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방안

영역		세부내용	
1	서비스 비전 및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수립 - 목표수립 	
2	서비스 이용 대상 구체화	주요이용자	- 연구자, 학술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
		서브이용자	- 일반이용자, 성인, 대학생, 청소년 등
		특수이용자	- 가족단위 등
3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검색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스템 구축 - 인터페이스 제공 - 분류에 따른 검색 - 키워드 및 문자열 검색 - 결과의 항목 제시 - 검색 결과의 정렬
		원문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서비스 - 희망자료 신청서비스 - 주제관계서비스
		자료 활용 촉진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 교육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공모전 - 문화행사
4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 	

1) 서비스 비전 및 목표 수립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비전)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근현대기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확충 및 한국학 연구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로 비전 제시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목표)
 - 서비스 목표 1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체계 확립
 - 서비스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화를 구체화함
 - 서비스 목표 2 | 이용자의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 수집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제공하고 있는 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및 자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표 3 |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계 관계 확장
 - 수집과 더불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제 구축

[표 67]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비전 및 목표

비전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		
목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체계 확립	이용자의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계 관계 확장
서비스 개선 방향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서비스 이용 대상 구체화	- 검색서비스 확대 - 원문서비스 확대 - 정보큐레이션 서비스 강화 - 자료활용 촉진서비스 개발	-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

2) 서비스 이용 대상 구체화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타겟팅 및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며, 각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개발해야 함
- 이용자는 **주요 - 서브 - 특수** 타겟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의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 서브 이용자, 특수 이용자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이용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은 우리나라 근현대기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확충 및 한국학 연구정보 지원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 주요 이용자는 관련 연구자,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이용자의 경우, 근현대 또는 한국학 관련 연구정보를 지원 받는 전문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에게는 연구지원서비스, 자료수집지원서비스, 주제관계서비스, 강연회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브 이용자)** 서브 이용자는 주로 일반 이용자에 해당되며, 성인, 대학생, 청소년 등 대국민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로 볼 수 있음
 - 서브 이용자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에 해당하는 일반 이용자이기 때문에 역사교육 및 문화향유 측면에서 교육서비스, 체험서비스, 전시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특수 이용자)** 특수 이용자의 경우, 주요 이용자와 서브 이용자를 제외한 가족단위, 기관단위 등으로 볼 수 있음
 - 특수 이용자의 경우, 가족단위의 체험서비스, 놀이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이 예상됨

[표 68]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이용자 설정(안)

이용자 구분		예상 이용 시나리오	비중
주요 이용자 (전문가 이용자)	연구자, 학술단체, 관련 유관기관	연구지원서비스, 자료수집지원서비스, 주제관계서비스, 강연회 등	50%
서브 이용자 (일반 이용자)	성인, 대학생, 청소년 등	교육, 체험, 전시, 문화 향유	40%
특수 이용자	가족 단위, 기관 단위	체험, 놀이, 여가	10%

3)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서비스 방향 설정) 서비스는 단순 검색과 열람서비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수집한 자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서비스까지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 크게 ① 검색서비스 확대, ② 원문서비스 확대, ③정보지원서비스 강화, ④ 자료 활용 촉진서비스 개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69]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 이용자 설정(안)

구분	서비스 방안	세부내용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	검색서비스 확대	- 별도 시스템 구축 - 인터페이스 제공 - 분류에 따른 검색 - 키워드 및 문자열 검색 - 결과의 항목 제시 - 검색 결과의 정렬
	원문서비스 확대	- 시대별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
수집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방안	정보큐레이션서비스 강화	- 연구지원서비스 - 수집자료 알람서비스 - 주제관계서비스 - 정보연계서비스
	자료활용 촉진서비스 개발	- 전시회 - 교육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공모전 - 문화행사

① 검색서비스 확대

- (검색서비스 현황) 현재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경우, NARA, CIA, CIS 웹페이지 내에서 각자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수집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색이 어려우며, 단순검색만 가능한 상황임

[표 70]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검색서비스 현황

구분	홈페이지 내 화면
NARA 문서군 검색 기능	<div> <div> <div>디지털컬렉션</div> <div>주제별컬렉션</div> <div>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div> <div>관보</div> <div>해외 한국 관련 자료</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립국가연합(CIS) </div> <div>OAK국가리포지터리</div> <div>오아시스(OASIS)</div> <div>책 읽어주는 도서관</div> </div> <div> <div>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div> <div>이용 안내 문서군 검색 문서군 소개</div> <div>자료검색</div> <div>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div> <div>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통합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div> <div> <div>RG 12 Records of the Office of Education</div> <div>2계층 목록 보기</div> </div> <div> <div>RG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div> <div>2계층 목록 보기</div> </div> <div> <div>RG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div> <div>2계층 목록 보기</div> </div> <div> <div>RG 51 Recor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div> <div>2계층 목록 보기</div> </div> </div> </div>
	<div> <div> <div>디지털컬렉션</div> <div>주제별컬렉션</div> <div>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div> <div>관보</div> <div>해외 한국 관련 자료</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립국가연합(CIS) </div> <div>OAK국가리포지터리</div> <div>오아시스(OASIS)</div> <div>책 읽어주는 도서관</div> <div>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div> <div>세계의 도서관</div> <div>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div> </div> <div> <div>미국 중앙정보국(CIA)</div> <div>이용 안내 문서 검색 문서 소개</div> <div>자료검색</div> <div>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div> <div>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통합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div> <div> <div>CREST</div> <div>2계층 목록 닫기</div> </div> <div> <div>before 1967</div> <div>Central Intelligence Agency</div> </div> <div> <div>after 1968</div> <div>Central Intelligence Agency</div> </div> <div> <div>PDB NIS JPRS collections</div> <div>Central Intelligence Agency</div> </div> </div> </div>
	<div> <div> <div>디지털컬렉션</div> <div>주제별컬렉션</div> <div>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div> <div>관보</div> <div>해외 한국 관련 자료</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립국가연합(CIS) </div> <div>OAK국가리포지터리</div> <div>오아시스(OASIS)</div> <div>책 읽어주는 도서관</div> <div>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div> <div>세계의 도서관</div> <div>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div> <div>코리아 메모리(시범페이지)</div> </div> <div> <div>독립국가연합(CIS)</div> <div>이용 안내 문서 검색 카드뉴스</div> <div>자료검색</div> <div>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div> <div>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통합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div> <div> <div>독립국가연합(CIS) 소재 한국 관련 자료</div> <div>2계층 목록 닫기</div> </div> <div> <div>한국어 문헌</div> <div>다양</div> </div> <div> <div>사진자료</div> <div>지리지 불명</div> </div> <div> <div>옥필원고</div> <div>다양</div> </div> <div> <div>러시아어 문헌</div> <div>다양</div> </div> </div> </div>

- (향후 검색서비스 개선 방향) 이에 향후 검색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별도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분류에 따른 검색, 키워드 및 문자열 검색, 결과의 항목 제시, 검색 결과의 정렬 등이 필요함
- 1차적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집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기관별 구분이 아닌, 원문제공서비스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수집된 문서는 기관별로 구분되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디지털컬렉션' 세부 메뉴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단순히 검색 및 원문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이용자가 이용·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참고 사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자료 검색과 원문제공서비스와 함께 신문사별, 키워드별, 시대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디지털 컬렉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더 나아가, 활용 도모를 위한 신문 연대기, 신문 트렌드, 주제관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 및 자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색 시에도 기본 키워드 검색과 더불어 기관별, 국가별, 주제별, 문서유형별, 사건별, 시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7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검색기능 강화(안)

구분	세부내용
기관별 구분 검색	- NARA, CIA, CIS 등
기관별 구분 검색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독립국가연합(CIS)
나라별 구분 검색	-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제별 구분 검색	- 경제, 과학, 관리, 군사, 사회, 정보, 정치, 외교 등
문서유형별 구분 검색	- 협정, 비망록, 별첨, 통신문, 원고, 지시서, 첩보각서, 서한, 대화록, 회의록, 각서, 통보, 의사록, 통첩, 공적서한, 보도자료, 보고서, 쪽지, 전문, 전보, 합동주간보고, 문서회수 등

② 원문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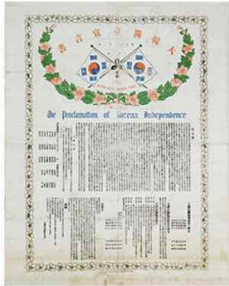
- 현재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경우, 단순 원문제공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해당 원문을 시대별, 주제별 등으로 구분하여 원문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함
- 같은 자료도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자료의 이용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색에 의한 원문제공보다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주제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집한 원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는 시대별, 주제별 컬렉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대별**의 경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 등 시대별로 구분하여, 원하는 시기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주제별**의 경우, 독립·해방,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글, 올림픽, 감염병, 독도·울릉도, 하수, 자연재해(천재) 등 특정 주제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7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 컬렉션 서비스 현황

시대별 컬렉션	주제별 컬렉션
<div>  <p>대한제국</p> <p>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8일까지의 조선의 국명입니다.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조선의 자주 독립과 고종에 대한 한국 요구가 커세지자 완공한 고종은...</p> <p>바로가기</p> </div> <div>  <p>일제강점기</p> <p>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위해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육성...</p> <p>바로가기</p> </div>	<div> <p>고신문 디지털 컬렉션</p> <p>시대별 주제별</p> <div>  <p>독립·해방</p> <p>독립·해방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중속국과 식민지에서 이 운동이 고조되었다가 제2차 ...</p> <p>바로가기</p> </div> <div>  <p>3·1운동</p> <p>3·1운동은 만민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석 달 넘게 계속되었...</p> <p>바로가기</p> </div> </div>

- 이에 향후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도 시기별, 주제별, 또는 문서군별, 기관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원문을 단순히 검색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③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

- 정보지원서비스는 보다 전문적 서비스로,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역사적 가치와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하며, 세부적으로 연구지원서비스, 맞춤형서비스, 희망자료 신청서비스, 주제관계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연구지원서비스)** 연구자가 요청하는 자료제공서비스, 연구분석서비스, 연구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볼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및 등록하고 있는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음
 - 더 나아가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수집자료 알림서비스)** 새로 수집된 자료를 속보 또는 레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주제관계서비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관계서비스 제공
- **(정보연계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예로 유관기관에서 수집하는 자료 내용과 함께 관련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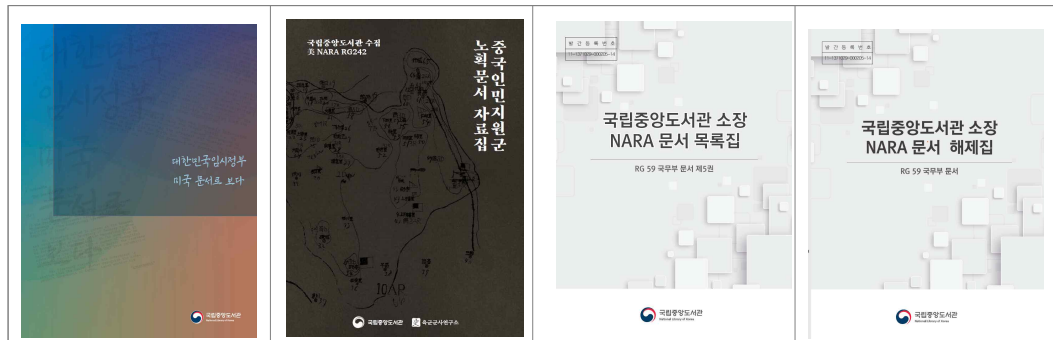
④ 자료 활용 촉진 서비스 개발

- **(자료 활용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현재 관련한 서비스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강연회 등이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자료 기반 카드 뉴스 제작 등이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가 활발하게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향후 자료 활용 촉진 서비스 개발 방향)** 이에 향후에는 수집한 자료를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자료집 발간, ② 전시회, ③ 체험프로그램, ④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㉑ 자료집 발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소장 NARA 문서 중 해제 완료된 문서군을 기준으로 목록집과 해제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단행본, 육군군사연구소와 연계하여 발간한 자료집 등이 있음

[그림 48]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발간 자료집(일부)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볼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NARA 문서군별 목록집, 해제집 발간과 더불어 주제별 또는 국가간 관계별로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자료집을 발간하면 이용자의 자료 활용 및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자료집은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번역문과 요약문,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기 때문에 자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자료집 발간을 통해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 자료의 수집과 이용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음

㉒ 전시회 개최

- (개요) 해외 소재 관련 한국 자료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흩어진 한국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료로,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 행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향유하도록 함
- (전시 플랫폼 유형)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전시회 또는 온오프라인 모두를 고려한 하이브리드형 전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온라인 전용 전시 구축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전시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로 국가기록원에서도 VR을 통해 온라인 전시를 실시하고 있음

- (오프라인 후 온라인 구축 방향)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전시 행사를 온라인 전시관으로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음
- (전시 자료 및 주제의 다양화) 기존의 전시 행사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확대하여 CIA, CIS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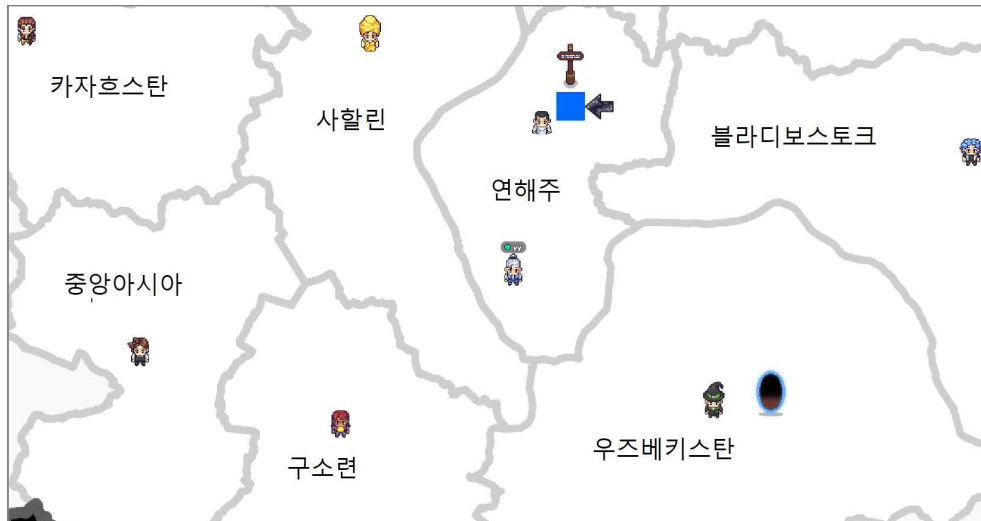
[표 73]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전시회 기획(안)

구분	세부내용	
전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전시회 - 온라인 전시회 -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형) 전시회 	
전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기관별 전시 가능(NARA, CIA, CIS 등) -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전시 주제 선정(대한민국 임시정부, 6.25전쟁, 독립운동 등) 	
대상	- 일반 국민 누구나	
연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또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연계도 고려 - 연계 범위 : 장소, 자료, 인력 등 	
전시회 계획(안)	전시 주제 : CIS 기록으로 보는 고려인의 역사	
	1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이주 후 고려인들의 일상 - 연해주 초기 고려인 가족들 - 고려인들의 항일 활동
	2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들의 마을 잔치, 혼인예식과 환갑잔치 - 고려인 구전가요 171곡 필사본 [리 알렉산드르 창가집]
	3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바롭스크 학교 고려인들 - 러시아 학교 속 고려인들 - 카자흐스탄 고려사범대학교

㉔ 국립중앙도서관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방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하면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 활성화뿐 아니라 이용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관련 자료 중, 문화나 항일운동 이후의 삶에 관련된 자료를 ‘게더타운’에 체험관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공
 - 제작 형식은 메인 맵 1개에 서브 콘텐츠 맵 여러 개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메인 맵 내에 서브 맵들을 포탈을 통해 이동해 나아가면서 스스로 맵을 탐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큰 맵의 경우에는 당시 고려인들이 생활하게 된 지도의 일부를 자르고 묶어서 제공하며, 작은 맵은 각각의 책의 당시 상황을 표현한 지역이나 장소에 책에 관련된 정보나 당시 배경사항, 책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작함

[그림 49] '게더타운'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관 예시(안)



④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개요) 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서비스 중 하나이자,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를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임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교육 주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6.25전쟁 등을 주제를 기반으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해당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교과과정 또는 중·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표 7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구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운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 강좌형 프로그램 • 온라인 쌍방향 프로그램 • 강연회 등
교육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기관별 전시 가능(NARA, CIA, CIS 등) •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전시 주제 선정(대한민국 임시정부, 6.25전쟁, 독립운동 등)
대상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등 대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차별화 필요
연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또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유관기관(기록원, 박물관, 기념관 등)과 연계를 통해 전문성 및 프로그램 질 향상 • 교육 대상에 따라 연계 기관 차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 중·고등학교 연계 - 대학생 : 대학과의 연계 등

㉔ 어린이 및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융합 맞춤형 체험 제공
- 해외 소재 근현대사 한국 관련 자료를 직접 읽고 이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를 이용자 직접 만들어 보거나, 연극 체험, 영화 상영 등을 제공할 수 있음

[표 7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기반 체험프로그램 제시(안)

구분	세부내용
1	CIS 자료 읽고 카드뉴스 만들어보기
2	다재다능한 천재 희극인 김해운이 연기했던 '춘향전'의 방자 체험하기
3	고려인의 삶은 어떤가 - CIS 자료에서 살펴본 문화융합 맞춤형 체험 -
4	고려인 연극 '동북선' 상영 - 고려인 연극 개화기의 서막 김해운 희곡 -

4)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서비스 확대

①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재 과거사 기록을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동 활용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사료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사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 현황)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법원도서관, 전쟁기념관 등
-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한 자료를 기반으로 독립적 열람, 전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국가기록원 등 기타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협력과 공동 운영을 통해 정부 3.0시대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관련 기록을 제공하고 공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
 - 특히 박물관의 경우 '에듀케이터'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이는 기록큐레이터와 협업하여 소장 기록의 이용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활용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음

②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 방안 모색

- 향후 중복 자료 수집 방지 및 서비스를 위한 연계 협력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도 고려해야 함
- **(필요성)** 각 기관별로 수집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어 이용자는 각각의 시스템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등 통합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업무적 이용에 있어서도 기관간 목록 공유, DB 공유 등이 원활하지는 않으며, 시스템 연계 및 통합포털 구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 **(기대효과)**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중복 수집, 중복 입력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 유관기관간 교류 및 협력증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화 등
 -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스템이 연계되고 통합포털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포털상에서 기관별로 강점을 극대화한 역할 분담 및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짐
 - 도서관, 기록관, 연구기관, 전시기관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OneSourceMultiUse를 통해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경제적 손실 감소)**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도 빈약하고 부실한 독자적 시스템 구축보다는 표준화되고 통합적인 포털 구축이 비용과 완성도에 있어 바람직함
 -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증대)** 현재 국내 기관들의 역사자료 수집·관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분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수집과 관리는 기관의 정체성과 존립 목적,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통합이 어려울 수 있으나, 활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함
 - 이를 시작으로 공동 활용, 더 나아가 각종 표준화와 공동 수집, 보존, 관리 등으로 교류·협력을 증대해 나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통폐합까지 고려할 수도 있음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화)**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사정보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구성하며, 이를 문화상품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은 웹 기반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해외의 많은 사례처럼 관련 시스템 연계 및 포털 구축은 필수적임

- 역사자료 포털은 정보산업 관련 전문직에게는 방대한 지식정보의 소스(source)를, 일반인에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기여함

[부록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군별 수집/해제 현황

순번	문서군	제목
1	RG 338	[NARA 2020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 ③]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338)
2	RG 407	[NARA 2020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 ②]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3	RG 407	[NARA 2020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 ①]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4	RG 407	[NARA 2020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 ②]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5	RG 407	[NARA 2020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 ①]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6	RG 407	[NARA 2020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 ②]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7	RG 407	[NARA 2020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 ①]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8	RG 338	[NARA 2020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 ②] 미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9	RG 338	[NARA 2020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 ①] 미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10	RG 407	[NARA 2017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③] 美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11	RG 407	[NARA 2017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 美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12	RG 554, RG 338	[NARA 2017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RG 554 · RG 338
13	RG 554, RG 338	[NARA 2017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 RG 554 / RG 338
14	RG 554	[NARA 2017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④]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15	RG 554	[NARA 2017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③]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16	RG 338	[NARA 2017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17	RG 554	[NARA 2017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18	RG 338	[NARA 2017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19	RG 554	[NARA 2017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20	RG 338	[NARA 2017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21	RG 554	[NARA 2017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22	RG 242	[NARA 2016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 북한노획문서군(RG 242)
23	RG 242	[NARA 2016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 북한노획문서군(RG 242)
24	RG 554	[NARA 2016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25	RG 338	[NARA 2016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26	RG 554	[NARA 2016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27	RG 338	[NARA 2016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28	RG 554	[NARA 2016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29	RG 242	[NARA 2016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③] 북한노획문서군(RG 242)
30	RG 338	[NARA 2016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31	RG 554	[NARA 2016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순번	문서군	제목
32	RG 338	[NARA 2016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33	RG 554	[NARA 2016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34	RG 338	[NARA 2016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35	RG 554	[NARA 2016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36	RG 338	[NARA 2016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37	RG 554	[NARA 2016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38	RG 338	[NARA 2016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39	RG 554	[NARA 2016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40	RG 338	[NARA 2016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41	RG 554	[NARA 2016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42	RG 338	[NARA 2016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43	RG 554	[NARA 2016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44	RG 338	[NARA 2016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45	RG 338	[NARA 2015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46	RG 554	[NARA 2015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47	RG 338	[NARA 2015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48	RG 554	[NARA 2015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49	RG 338	[NARA 2015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50	RG 554	[NARA 2015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51	RG 242	[NARA 2015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북한 노획 문서(RG 242)
52	RG 554	[NARA 2015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53	RG 338	[NARA 2015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54	RG 554	[NARA 2015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55	RG 338	[NARA 2015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56	RG 554	[NARA 2015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57	RG 338	[NARA 2015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58	RG 554	[NARA 2015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순번	문서군	제목
59	RG 338	[NARA 2015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60	RG 554	[NARA 2015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1	RG 338	[NARA 2015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62	RG 554	[NARA 2015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3	RG 554	[NARA 2014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4	RG 338	[NARA 2014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65	RG 554	[NARA 2014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6	RG 338	[NARA 2014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RG 338)
67	RG 554	[NARA 2014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8	RG 554	[NARA 2014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69	RG 554	[NARA 2014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70	RG 554	[NARA 2014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71	RG 242	[NARA 2014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북한 노획 문서(RG 242)
72	RG 554	[NARA 2014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73	RG 242	[NARA 2014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북한 노획 문서(RG 242)
74	RG 554	[NARA 2014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75	RG 218	[NARA 2013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美 합동참모부 문서군(RG218)
76	RG 319	[NARA 2013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77	RG 554	[NARA 2013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78	RG 338	[NARA 2013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②]美 작전·전술·지원 조직문서군(RG 338)
79	RG 554	[NARA 2013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80	RG 319	[NARA 2013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①]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81	RG 554	[NARA 2013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82	-	2013년 수집목록
83	RG 319	[NARA 2013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순번	문서군	제목
84	RG 554	[NARA 2013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85	RG 554	[NARA 2013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86	RG 218	[NARA 2013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 美 합동참모부 문서군(RG 218)
87	RG 554	[NARA 2013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88	RG 319	[NARA 2013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 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89	RG 554	[NARA 2013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90	RG 319	[NARA 2013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③] 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91	RG 218	[NARA 2013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 美 합동참모부 문서군(RG 218)
92	RG 554	[NARA 2013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93	RG 218	[NARA 2013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 美 합동참모부 문서군(RG 218)
94	RG 554	[NARA 2013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 (RG 554)
95	RG 59	[NARA 2013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96	RG 554	[NARA 2013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97	RG 59	[NARA 2013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59)
98	RG 554	[NARA 2013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554)
99	-	2012년 수집 목록
100	RG 242	[NARA 2012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③] 북한 노획 문서(RG 242)
101	RG 59	[NARA 2012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02	RG 554	[NARA 2012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03	RG 59	[NARA 2012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04	RG 554	[NARA 2012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05	RG 59	[NARA 2012년도 제6-7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06	RG 554	[NARA 2012년도 제6-7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07	RG 59	[NARA 2012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08	RG 554	[NARA 2012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 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09	RG 59	[NARA 2012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 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순번	문서군	제목
110	RG 554	[NARA 2012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11	RG 59	[NARA 2012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12	RG 554	[NARA 2012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13	RG 59	[NARA 2012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14	RG 554	[NARA 2012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15	RG 59	[NARA 2012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16	RG 554	[NARA 2012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17	-	[NARA 2011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③]국무부 문서군 분류와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분류 개괄
118	RG 59	[NARA 2011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19	RG 554	[NARA 2011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RG 554)
120	RG 59	[NARA 2011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21	RG 554	[NARA 2011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22	RG 59	[NARA 2011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23	RG 554	[NARA 2011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24	RG 59	[NARA 2011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25	RG 554	[NARA 2011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26	RG 59	[NARA 2011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27	RG 554	[NARA 2011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28	RG 319	[NARA 2011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③]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129	RG 59	[NARA 2011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30	RG 554	[NARA 2011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31	RG 59	[NARA 2011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美 미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132	RG 554	[NARA 2011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33	-	[NARA 2011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③]노근리 파일
134	RG 59	[NARA 2011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일반 문서군(RG 59)

순번	문서군	제목
135	RG 554	[NARA 2011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36	-	[NARA 2011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노근리 파일
137	RG 554	[NARA 2011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38	RG 319	[NARA 2011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③]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139	RG 554	[NARA 2011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40	RG 242	[NARA 2011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북한 노획 문서(RG 242)
141	-	[NARA 2011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③]노근리 파일
142	RG 319	[NARA 2011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143	RG 554	[NARA 2011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44	RG 319	[NARA 2011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③]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145	RG 550	[NARA 2011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46	RG 554	[NARA 2011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47	RG 550	[NARA 2010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②]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48	RG 554	[NARA 2010년도 제12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49	RG 550	[NARA 2010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②]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50	RG 554	[NARA 2010년도 제11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51	RG 550	[NARA 2010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③]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52	RG 554	[NARA 2010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②]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53	RG 242	[NARA 2010년도 제10차 수집분 해제①]북한 노획 문서(RG 242)
154	RG 550	[NARA 2010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③]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55	RG 554	[NARA 2010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56	RG 242	[NARA 2010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북한 노획 문서(RG 242)
157	RG 550	[NARA 2010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③]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58	RG 84	[NARA 2010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 84)
159	RG 554	[NARA 2010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60	RG 550	[NARA 2010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③]美 태평양군 문서군(RG 550)
161	RG 84	[NARA 2010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 84)

순번	문서군	제목
162	RG 554	[NARA 2010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163	RG 550	[NARA 2010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③]美 태평양군 문서군 (RG 550)
164	RG 84	[NARA 2010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 (RG 84)
165	RG 554	[NARA 2010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RG554)
166	-	[인물/사건(6)]'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②-1942년 정보참모부(G-2)가 분석한 한국·한국인
167	-	[인물/사건(6)]'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①-1942년 정보참모부(G-2)가 분석한 한국·한국인
168	-	[인물/사건(5)]치안국장, '국회의원 내사' 극비 지시-1952년 6월, 2대 총선 직후 사찰과 업무 하달
169	-	[인물/사건(4)]중국군 반공 포로 석방 - 이승만의 산술과 미국의 계산
170	RG 550	[2010년도 NARA 제5차 수집자료③]미 태평양군 문서군 (RG 550)
171	RG 84	[2010년도 NARA 제5차 수집 자료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84)
172	RG 554	[2010년도 NARA 제5차 수집자료 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RG554)
173	RG 84	[NARA 2010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84)
174	RG 554	[NARA 2010년도 제4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RG554)
175	RG 319	[NARA 2010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③]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319)
176	RG 84	[NARA 2010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84)
177	RG 554	[NARA 2010년도 제3차 수집분 해제①]美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 (RG554)
178	RG 319	[NARA 2010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③]美 육군참모부 문서군(RG319)
179	RG 84	[NARA 2010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②]美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84)
180	RG 554	[NARA 2010년도 제2차 수집분 해제①]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554)
181	RG 554	[NARA 2010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③]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554)
182	RG 319	[NARA 2010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②]미 육군참모부 문서군(RG319)
183	RG 84	[NARA 2010년도 제1차 수집분 해제①]미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 (RG84)
184	RG 554	[NARA 2009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④]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554)
185	RG 319	[NARA 2009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③]미 육군참모부 문서군(RG319)
186	RG 242	[NARA 2009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②]북한 노획 문서(RG242)
187	RG 84	[NARA 2009년도 제9차 수집분 해제①]미 국무부 해외 공관 문서군(RG84)
188	RG 554	[2009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③]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군(RG554)
189	RG 319	[2009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②] 미 육군 참모부 문서군(RG319)
190	RG 84	[2009년도 제8차 수집분 해제①] 미 국무부 해외공관 문서군(RG84)
191	RG 319	[2009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④] 미 육군참모부 문서(RG319)

순번	문서군	제목
192	RG 84	[2009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③] 미국무부 해외공관 문서(RG84)
193	RG 554	[2009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②] 미 GHQs,FEC, SCAP & UNC(RG554)
194	RG 242	[2009년도 제7차 수집분 해제①] 북한 노획 문서(RG242)
195	RG 319	[2009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④] 미 육군참모부 문서(RG319)
196	RG 84	[2009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③] 미국무부 해외공관 문서(RG84)
197	RG 554	[2009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②]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문서(RG554)
198	RG 242	[2009년도 제6차 수집분 해제①] 북한노획 문서(RG242)
199	RG 319	[2009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④] 미 육군참모부 문서(RG319)
200	RG 84	[2009년 5차 수집분 해제③] 미 국무부 해외공관 문서(RG84)
201	RG 127	[2009년 5차 수집분 해제②] 미 해병대 문서(RG127)
202	RG 242	[NARA 목록]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수집자료목록 : NARA 북한문서(RG242)
203	RG 554	[2009년도 제5차 수집분 해제①]미 극동군 GHQ, SCAP & UNC문서(RG554)
204	-	[e-문서 (9)]1960년대 한국의 초상 : 다방(茶房)- 美 공보처(USIS)가 들여다본 한국의 이색 지대
205	-	[e-문서(8)]아펜젤러와 미 군사정보국
206	-	[e-문서(7)]북한노획문서군에서 수집된 북한잡지 창간호
207	-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5)] 국제회의, 위원회, 박람회 문서군(RG 43)
208	-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4)] NARA 전자기록을 활용한 조사 연구
209	-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3)] AAD(Access to Archival Databases)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이용
210	-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2)]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이용자 서비스(연구조사 Tip)
211	-	[NARA 문서 100% 활용하기 (1)]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이용자 서비스 계획
212	-	[e-문서(6)]1953년 7월28일 군사정전위원회 첫번째 회의의 회의록
213	-	[인물/사건(3)] 조봉암 사형 직후 기록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망록
214	-	[e-문서(5)] 미 8군 사령관 "전쟁 포로 모두 해외로 철수시켜야" 건의
215	-	[인물/사건(2)]1948년 CIA가 분석한 이승만
216	-	[e-문서(4)]아내들의 편지-노획문서에서 '걸어나온' 사람들③
217	-	[e-문서(3)]아내들의 편지-노획문서에서 '걸어나온' 사람들②
218	-	[e-문서(2)] 아내들의편지-노획문서에서 '걸어나온' 사람들①
219	-	[인물/사건(1)] 주한 미 영사가 기록한 4•19 그날의 현장..
220	-	[e-문서(1)] 제2 군수사령부 병기창에 쌓여 있는 재고 무기 7만5천 톤의 향방
221	-	[Finding Aid]Homer Crane Blake papers
222	-	[Finding Aid]George Clyton Foulk papers
223	-	[Finding Aid]Horace Newton Allen papers

[부록 2]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표2])

1. 인쇄자료

구 분		파일형식	압축방식	해상도	비 고
텍스트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귀중자료, 고문헌, KDCP, 고신문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비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사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800-10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4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지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고서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벳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 원자료의 형태, 열화 등 훼손정도,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파일형식 및 압축,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음

2. 녹음자료

구 분	파일 형식	비트심도	샘플링 주파수
보존용	WAV(무압축)	24bit	48kHz
제공용	MP3(손실압축)	16bit	44.1kHz
	AAC(손실압축)	16.bit	48kHz

※ 원자료의 녹음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음

3. 영상자료

구 분	파일 형식	코덱	화면비
보존용	MXF(무압축)	MPEG4(영상) / PCM(음성)	D : 4:3 / HD : 16:9
제공용	MPEG-4(손실압축)	H.264(MPEG-4/AVC)(영상) / AAC(음성)	SD : 4:3 / HD : 16:9

※ 원자료의 녹화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음

※ [부록 3] ~ [부록 10]은 별도의 Excel 파일을 참조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학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오명진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조민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곽승진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노영희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박민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양은수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과정
현지자료조사원	김정하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홍승희	베트남 Đom Đóm Farmtory 대표

2022년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

인쇄일	2022년 12월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ISBN	979-11-6513-307-8(93020)

